

NIE 교재 현황 분석과 교과서 개발에 관한 연구

A Study on Analysis of the Current Situation of NIE (Newspaper
in Education) Teaching-Learning Materials
and Developing of NIE Textbook

2010. 11



한국교과서연구재단
Korea Textbook Research Foundation

NIE 교재 현황 분석과 교과서 개발에 관한 연구
A Study on Analysis of the Current Situation of NIE (Newspaper
in Education) Teaching-Learning Materials
and Developing of NIE Textbook

책임연구 : 김 동 규 (건국대학교 신문방송학과 교수)

공동연구 : 심 영 섭 (건국대학교 신문방송학과 강사)

“이 연구는 2010년도 한국교과서연구재단의 연구비 지원으로 수행하였으며,
이 보고서에서 제시한 대안이나 의견 등은 한국교과서연구재단의 공식 의
견이 아니라 연구 개발진의 견해를 밝힙니다.”

머리말

디지털 미디어의 발달로 이제는 초등학생 때부터 자연스럽게 신문이나 인터넷과 텔레비전, 모바일 등을 교육의 도구로 사용하고 있으며, 이러한 사회적 변화에 맞게 학교교육도 이들 미디어를 수업의 다양한 보조수단으로 활용하는 추세입니다. 신문을 활용한 교육인 NIE(Newspaper in Education) 또한 이미 1990년대 중반부터 일선 교사들을 중심으로 시작되어 이제는 그 활용이 상당히 보편화, 다양화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교육현장의 변화에 맞춰 교육과학기술부도 2000년부터 시행한 ‘제7차 교과과정’ 개혁을 통해 NIE와 미디어교육을 교육의 일부로 적극 활용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이러한 변화에 맞게 교과과정이 개편되거나 보완되고 있지 못하는 것 또한 현실이기도 합니다. 즉, 오래전부터 NIE는 학교교육에서 필요한 보조교재로 활용되고는 있지만 주 교재나 학과목의 하나로 채택되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주지하다시피 미디어기술의 발달과 생활방식의 변화로 이제 학생들은 ‘미디어’를 통해 세상을 들여다보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만일 미디어가 왜곡되거나 착시현상을 일으킨다면 학생들도 세상을 올바르게 바라볼 수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NIE와 미디어교육이 단순한 수단과 보조적 기능에 머물지 않고, 독립된 교과과정으로 연구되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2000년 초반부터 교육 일선현장에서 근무하는 교사와 학자(교육학과 언론학), 언론인들이 협력하여 학교교육에 적절한 교재를 개발하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이러한 노력은 어느 정도 성과를 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교재개발에는 일정한 한계가 있습니다. 학교교육은 사회교육이나 직업교육과 다르게 학생의 인성과 지성을 키우는 전인교육입니다. 전인교육은 교육목표가 다를 뿐만 아니라, 학생 스스로 교과과정에 참여하여 자신의 가치관과 창의적인 시각을 키우는 것입니다. 이러한 학교교육의 특수성을 반영한 교재는 아직까지 발간되지 않았습니니다. 또한 그동안의 교재는 교사나 학생의 입장보다는 언론인이나 학자의 입장에서 NIE와 미디어교육의 필요성을 강조한 측면이 있습니다.

이제 NIE와 미디어교육은 수단이자 보조교재가 아니라 미디어 현상 전체를 아우르고 학생들이 객관적이고 창의적인 시각을 가질 수 있도록 교과목의 하나로 개발될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가 점점 더 디지털미디어의 영향을 많이 받을수록 기존의 기술교과목이나 사회교과목에서 다루지 못했던 미디어기술을 통해 매개되는 정보와 사회현상을 학생들이 올바르게 인지하고 영향을 받아서, 자신의 가치관과 지식으로 발전시킬 수 있도록 교육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이 연구는 이러한 요구에 따라 추진된 연구로서 미래지향적인 NIE 교재개발과 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교육 정책적 방안을 모색하는 첫걸음이라 할 수 있습니다. 부디 이 연구가 촉매체가 되어 이 분야 연구는 물론 교과서 정책 당국 및 관계자들의 관심이 활성화되기를 기대합니다.

끝으로 이 연구를 위해 참여해 주신 연구진과 NIE 현장의 여러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재단법인 한국교과서연구재단

이사장 전 찬 구

차 례

I. 서론	1
1. 연구의 필요성	1
가. 연구의 목적	1
나. NIE에 대한 선행연구	4
(1) 미디어 리터러시	4
(2) NIE (Newspaper in Education)	9
2. 연구방법과 연구체계	12
II. NIE의 목적과 지향점	13
1. NIE의 개념 및 정의	13
가. 미디어 세계와 미디어 활용 능력	13
나. 미디어 활용 능력의 특징	16
다. NIE란 무엇인가?	16
라. 디지털시대의 NIE	17
마. 소 결	19
2. NIE의 유형	21
가. 정보매개의 영역	22
(1) 신문학 : 미디어의 이해	2
(2) 신문비평 : 미디어 비평	2
나. 목적지향의 영역	23
(1) 신문활용	3
(2) 신문제작	3
다. 생활공간에서의 활용	23
라. 소 결	24
III. NIE 교재 현황과 사례 분석	25
1. 신문을 활용한 교육 현황	25
가. 신문을 이용한 수업 현황	25
(1) 어린이 신문을 이용한 NIE	3
(2) 신문의 NIE	3

(3) 일간신문의 NIE 현황	3
(4) 사례1 : 조선일보의 NIE	3
(5) 사례2 : 한겨레신문의 NIE	4
(6) 사례3 : 한라일보의 NIE	4
(7) 연구기관과 시민단체의 NIE	4
나. NIE교재개발 현황	45
(1) 국내 NIE교재 현황	45
(2) 국내 NIE교재 사례	47
다. 소 결	51
2. NIE 교육전문가 인터뷰	53
가. NIE를 통한 학교교육과 사회교육에서의 차이점	53
나. 현행 NIE의 제도적 문제점	54
다. NIE교재의 필요성	56
라. 검정교과서로서의 NIE교재의 내용	58
마. 신문만들기 교육	59
바. NIE를 위한 협력네트워크	62
사. 소 결	64
3. 해외의 NIE	65
가. 미국의 NIE	65
나. 일본의 NIE	66
다. 핀란드의 NIE	67
라. 캐나다의 NIE	68
마. 덴마크의 NIE	69
바. 소 결	71
IV. NIE 교재개발	74
1. NIE 교육의 주체	74
가. NIE 교육의 주체	74
(1) 정책기관	75
(2) 연구기관	76
(3) 행위자집단	76
(4) 이익집단	78
(5) 경제집단	79

나. NIE 교육기관과 전문강사 인증	79
다. 소 결	83
2. NIE 교재개발 전략	85
가. 교과목의 유형	85
나. 교과목 개발과제	87
다. 교과목 개발전략	88
라. 소 결	92
V. 연구결과 및 제언	94
1. 연구결과요약	94
가. NIE의 목적과 유형	94
나. 우리나라의 NIE 현황	95
다. 전문가들이 제안하는 NIE에 대한 개선 방안	96
라. 해외의 NIE 사례	98
2. 정책적 제언	100
3. 후속 연구 제언	102
참고문헌	104
부록 : NIE전문가 인터뷰 항목	108

그 립 차 례

〈그림 I-1〉 연구체계와 흐름	2
〈그림 II-1〉 디지털시대 신문의 가치사슬변화	2
〈그림 II-2〉 NIE의 목적별 유형	2
〈그림 III-1〉 소년조선일보, 소년한국일보 1면	2
〈그림 III-2〉 어린이동아 1면	2
〈그림 III-3〉 강원일보의 NIE면 창간호와 어린이강원일보 최근호	8
〈그림 III-4〉 한겨레신문의 NIE지면	3
〈그림 III-5〉 매일신문, 조선일보의 NIE 사이트면	4
〈그림 III-6〉 조선일보의 NIE지면	8
〈그림 III-7〉 조선일보의 Webzine과 어학활용교육사이트	4
〈그림 III-8〉 한겨레신문의 NIE지면	4
〈그림 III-9〉 한라일보의 NIE지면	4
〈그림 III-10〉 한라일보 기사를 토대로 학생들이 제작한 ‘굿’소재 신문	34
〈그림 III-11〉 한국신문협회와 한국언론진흥재단의 NIE 교재	8
〈그림 III-12〉 『신문활용교육의 이해와 실천 - 교사용 NIE가이드』	94
〈그림 III-13〉 『미디어와 사회』의 일부	5
〈그림 III-14〉 덴마크 왕립도서관의 ‘읽기카페’	96
〈그림 IV-1〉 NIE의 주요 이해관계자	7
〈그림 IV-2〉 NIE교재의 유형	8
〈그림 V-1〉 NIE정책과제와 NIE교재개발	100
〈그림 V-2〉 후속연구과제	102

표 차 례

〈표 III-1〉 일간신문의 NIE지면 특징	3
〈표 III-2〉 NIE 주요 교재 개요	4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가. 연구의 목적

21세기에 들어서 우리는 디지털 미디어의 발달과 더불어 정보의 홍수 속에 살아간다. 매일같이 접하는 수많은 정보 속에서 무엇이 우리에게 유익하고 무엇이 필요 없는지 구분하기가 어렵다. 특히 개개인이 공동체 생활을 영위하기 위해서 반드시 알아야 하는 정보가 무엇인지 판단하기가 어려워진다. 인터넷을 통해 범람하는 정보는 누군가가 생산한 정보를 재전송하거나 덧칠한 복제품인 경우가 많다. 그러나 그 어딘가에는 정보의 원형이 존재하는데, 우리는 이러한 정보의 원형을 신문에서 찾을 수 있다. 아무리 디지털미디어가 발달해도 신문은 여전히 원형을 간직하고 있는 정보의 원천이며 동시에 사회적 의제를 제시하는 매체이다. 이러한 매체를 이해하는 것은 통합적인 구조에서 세상을 볼 수 있는 눈을 얻는 작업이다. 신문을 활용한 미디어 교육(Newspaper in Education)은 정보를 생산하는 신문을 읽음으로써 신문의 기능과 역할을 이해하고, 나아가 신문을 직접 만들면서 참여하는 생산자로서 창의적인 교육을 실시하기 위해서이다. 이미 NIE는 학교교육의 한 부분으로 자리하고 있다.

미디어 교육은 교육대상에 따라 학교교육과 사회교육으로 나눌 수 있다. 인성교육과 지식교육을 동시에 진행하는 학교교육은 한 사회의 차세대 주축을 양성한다는 의미에서 기초교육에 해당하며, 누구나 의무적으로 참여해야 하는 국민의 의무이자 권리이다. 그래서 학교교육은 통상 검정교재를 통해 실시한다. 그러나 사회교육은 학교교육과 달리 필수가 아닌 선택이며, 학교교육을 마친 성인이 새롭게 등장한 기술과 과학, 지식을 습득할 수 있도록 제공한다. 교양교육이라는 의미에서 선택적이지만, 노령화사회에서 시민에게 제공하는 지속적인 복지의 하나로 이해할 수 있다.

NIE는 교육목적에 따라 학교에서는 신문내용에 대한 비판적 수용과 미디어

어의 이해, 신문 제작, 신문을 활용한 교육을 중심으로 진행하며, 사회교육은 신문에 대한 이해와 신문만들기와 같이 소비자교육 중심으로 진행한다. 사회교육은 정규학교교육뿐만 아니라 인간의 삶의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장기적인 교육학습이라는 의미에서 평생교육이다. 특히 자본주의적 시장경제 사회에서 NIE는 사회구성원 개개인이 정보사회에서 커뮤니케이션수단으로서의 새로운 정보기술과 미디어장비를 다룰 수 있는 능력과 그 내용물을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을 평생 동안 가르침으로써, 사회가 필요로 하는 노동력을 재교육시키고, 신문의 기능과 역할을 이해하고 이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소비자를 만드는데 있다.

이러한 신문 활용 능력의 배양을 위해서는 첫째는 신문비평으로 수용자들이 주체적으로 신문이 전달하는 정보를 분석하고 활용하며 반응하도록 해야 하고, 둘째는 신문을 활용하여 정보를 얻을 수 있는 도구와 수단으로서의 신문 활용 교육(예를 들어 사회과목이나 역사과목의 수업을 위해 신문에 게재된 기사를 활용하여 사례를 찾거나, 인터넷을 검색하여 정보를 얻는 법 익히기)이 필요하며, 셋째로 신문이 전달하는 정보를 수용하여 소비하고, 쌍방향적 커뮤니케이션을 시도하는 소비 교육이 필요하고, 넷째로는 혁신적이고 창조적인 신문 만들기 교육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다섯째로는 미디어정치 시대에 시민들은 기본적 능력으로 정치현상과 사회를 이행하기 위해 ‘미디어이해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정의에도 불구하고 미디어에 대한 이해능력을 키우기 위한 NIE의 목표는 간략하게 정의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다. 이는 NIE의 범위가 이미 정치교육이나 학교교육의 보조적 기능을 넘어서 매우 다양화되었으며, 기존의 학교교육과 사회교육에 복합적으로 융화되어 기능하고 있다.

학교에서 신문을 처음으로 활용한 것은 200여 년 전인 1795년 미국 메인(maine)주에 있는 포틀랜드 이스턴 헤럴드(Portland Eastern Herald)로, 이 지역의 학교에서 포틀랜드 이스턴 헤럴드를 수업 교재로 사용하여 학생들에게 지리와 경영법, 농촌과 도시의 생활상, 과학적 발견 등을 가르친 것으로 알려졌다(김양은, 2001). 같은 시기 유럽에서도 신문은 수업에서 종종 사용되는 보조교재였으며, 특히 해외소식을 알리고 새로운 풍물을 가르치는데 효과적인 수단이었다. 이러한 초창기 신문 활용 수업은 학교수업에서 신문을 이용하여 얼마든지 수업의 질을 향상시키고, 새로운 지식을 전파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확인해 준 것이다(Wilke, 1999). NIE는 미국을 비롯하여 일부 국가에서 꾸준히 성장했지만, 대부분의 경우에 신문사의 자사 홍보와

새로운 잠재적 신문구독자 확보를 위한 전략의 일부로 도입되었다. 반면 유럽의 NIE는 신문사를 중심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전체 미디어 이해능력(Media Literacy)의 일부로써 활용했는데, 학생들이 미디어를 이용하여 자신들의 의사를 표현하는 작업부터 미디어를 이해하는 교육, 미디어의 내용을 비판하는 내용에 이르기까지 미디어활용 교육을 중심으로 발달했다.

우리나라에서도 NIE는 이미 1960년대 어린이신문을 통해 시작되었으며, 1994년 이후 신문사가 ‘신문판촉의 위기’, ‘사라지는 신문독자’의 문제해결의 방안으로 중앙일보가 처음으로 NIE를 시작하면서 전략적인 선택의 하나로 신문사들이 NIE를 도입했다. 그러나 대학입학시험 제도의 개편이후 논술의 비중이 커지면서, 신문사의 NIE는 실질적으로 논술대비교육의 하나로 전략한 측면도 있다. 엄밀한 의미에서 우리나라 NIE는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어린이신문을 활용한 교육과 중고생을 대상으로 한 신문을 활용한 논술교육으로 양분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복합화(Meta)되어 나타나는 신문을 이용한 교육, 나아가 미디어 교육을 구체적으로 인성교육을 중심으로 하는 정규교육과정인 학교교육의 교과목으로 승격시키고, 효과적인 교재개발을 위해서는 학교교육에서의 활용가능성 과 적합성이 검증될 필요가 있다.

이 연구에서는 첫째로 NIE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해 정책적으로 보완되어야 할 점은 무엇인지 알아보았다. 학교교육의 주체인 교육과학기술부와 지방교육청은 NIE를 보조수단으로 여기고 있는 게 현실이다. 그러나 NIE와 미디어교육은 이미 교육현장에서는 실질적으로 중요한 교과목의 하나로 부상하고 있다. 특히 언론산업진흥과 경제적 이해 이해관계를 가진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신문협회, 개별 신문사가 주도하는 NIE와 미디어교육은 공교육의 목표를 흐리게 할 수 있는 위험성도 있다.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 교육당국의 정책 거버넌스가 필요한 시점으로 이 연구에서는 정책목표를 제시하고자 한다. 둘째로 검정교재를 만들고 교육과정을 신설한다면 어떠한 형식이 되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기존의 NIE와 미디어교육이 향후 신설되어야 할 NIE 및 미디어교육 과목과 어떠한 차별성이 있고, 기존의 교육과정을 편입시킬지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일선학교에서 NIE와 미디어교육을 담당할 전문 인력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대두되고 있다. 이러한 필요성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점검하여 교육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실용적인 제언을 찾을 목적으로 수행하였다.

나. NIE에 대한 선행연구

(1) 미디어 리터러시

한국에서 NIE와 미디어 교육에 대한 연구는 주로 미디어교육을 실시하는 주체에 따라 다르게 진행되었다. 첫째, 미디어 교육에 대한 연구는 주로 영상매체에 집중되어 있는데, 구 방송위원회가 거점지역별로 시청자센터를 설치하면서 영상매체의 이해와 제작이 눈에 띄게 늘어났다. 텔레비전에 이어서 인터넷 등 뉴미디어가 미디어 교육의 중심이었고, 그 다음으로 신문과 영화 등의 순으로 연구가 진행되었다.

둘째, 미디어 교육의 내용은 ‘미디어에 대한 지식 및 정보 습득’이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미디어 콘텐츠 제작’, ‘미디어 내용 읽기’, ‘수용자 의식 함양’등의 순서였다. 미디어 교육에 대한 연구의 중심에는 미디어를 어떻게 이해할 것인지 그리고 정보를 어떻게 습득할 것인지가 가장 중요하게 여겨졌다.

셋째, 연구방법론은 정보의 내용분석과 미디어 모니터 교육, 매체 제작활동, 매체의 교육적 활용 등의 순으로 분석되었다.

넷째, 교육이 이루어지는 장(場)은 사회와 학교 모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주로 연구의 영역은 학교교육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특히 중고교와 초등학교를 중심으로 하는 미디어교육에 대한 교육방법과 미디어활용수업에 대한 내용이 주를 이루었다.

다섯째, 교육 수준은 전체적으로는 지도자 대상 교육과 일반인 대상교육이 비슷한 비중을 차지하였는데, 대표적으로 한국언론진흥재단에서 꾸준히 미디어교육을 위해 교사 대상 교육을 주로 실시했으며, 대부분의 연구기관에서 실시한 미디어교육 관련 연구의 내용도 교사중심의 교육정착방안에 치중되어 있다.

여섯째, 교육 대상 연령은 초등학생이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중학생과 고등학생 대상이었으며 유치원 대상 교육은 거의 이루어지고 있지 않았으며 교육은 대부분 비정기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었다. 그러나 특징적이게도 유치원생 대상의 NIE교재를 조선일보를 비롯한 언론사에서 직접 제작하여 지원하고 있고, 이를 위해 개별 언론사차원에서 NIE방법론과 효과를 연구하고 있다.

일곱째, 현재 학교에서 시행하고 있는 미디어교육은 계발활동(CA활동),

창의적 재량 활동, 방과 후 특기 적성교육, 정규 교과 시간을 이용한 미디어교육 순으로 진행되는데, 이에 대한 연구는 거의 없는 편이다.

여덟째, 미디어교육 시행 주체는 시민사회단체 미디어교육과 공공기관 미디어교육이 서로 결합하는 형태로 분석되었고, 점차 공공기관 지원 미디어교육의 비중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학교교사 중심의 미디어교육이 갈수록 활성화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신문사에서도 다양한 미디어교육을 시행하고 있었는데 특히 문화방송과 교육방송의 미디어교육이 상대적으로 활발하다.

이러한 교육현장에서의 특징을 중심으로 우리나라의 미디어교육 연구동향을 정리하면, 첫째, 미디어교육의 필요성이나 중요성을 강조하는 원론 수준의 당위론적 담론은 풍성하지만, 실질적인 논의나 사회 철학적 배경에 대한 설명은 적다. 둘째, 미디어교육이 주로 학교 밖에서 논의되고 있다. 또한 교육학회와 언론학회는 서로 영역주체에 대한 논쟁으로 오랜 기간 동안 소모적인 논쟁을 실시하면서, 정작 학교교육과 사회교육이 어떻게 병행되어질 것인지에 대한 명확한 대안은 제시되지 못했다. 셋째, 한국의 미디어 환경과 미디어교육의 특성상 수용자운동 중심의 미디어교육이 이루어져 왔던 역사적 특성 때문에 여전히 미디어교육과 수용자운동이 혼동되고 있다.

수용자운동은 미디어교육보다는 시민운동에 가까움에도 불구하고, 미디어교육을 이와 혼동함으로써, 정작 필요한 미디어를 활용한 다문화가정에 대한 사회통합교육, 노년층 및 저소득층에 대한 평생교육 등 다양한 분야에서 필요로 하는 교육욕구를 전혀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다. 이에 대한 이론적 연구는 아직까지 출발조차 못하고 있다. 넷째, 우리나라 매체 및 교육환경에 알맞은 한국형 미디어교육 교재와 교육모형에 대한 개발과 연구는 미흡하다. 다섯째, 미디어교육의 특성상 언론학적 접근과 교육학적 접근의 조화가 필요한 학문 영역인데도 이들 양 진영의 균형적 연구나 실천 또는 교류가 부족하다.

외국에서의 미디어교육에 대한 연구는 주로 OECD의 선진 국가에서 실시되고 있다. 이중에서도 모범적인 학교 미디어 교육의 사례는 영국, 캐나다, 호주, 미국, 독일 그리고 핀란드 등에서 찾아볼 수 있다.

독일의 미디어 교육학자 모저(Moser)는 미디어 교육의 목적을 ‘미디어능력’을 배양으로 보고 있다. 이러한 미디어 능력의 배양을 위해 모저는 세 가지가 중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Moser, 1999, p. 64-67). 미디어 능력 배양은 미디어가 전달하는 정보를 취사선택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는 것으로,

미디어가 갖고 있는 언어적 코드를 이해하는 교육이 필요하다. 그러나 어떠한 정보를 취사선택해야 하며, 무엇이 진정한 미디어의 코드인가를 구분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은 과제이기 때문에, 미디어가 내세우는 입장(논의의 출발점)을 이해하고, 이를 뚜렷하게 인식할 수 있는 판단력을 배양하며, 정보생산과 전달의 전략적 구조를 이해함으로써, 정보의 행간을 읽어낼 수 있는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즉 미디어 교육은 미디어가 전달하는 정보에 대한 비판적 이해와 행간읽기를 통한 취사선택에 있다. 그래서 모저는 이러한 교육은 학교교육에서부터 사회교육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하게 실시될 것을 주장하고 있다.

영국의 경우 1960년대 이후 많은 교사들이 영화, TV, 라디오, 신문 그리고 잡지 등의 매스미디어와 대중문화 연구에 관심을 기울였고, 이것은 곧 학생들의 미디어 교육과 미디어 생산물 제작의 필요성을 증폭시킨 계기로 작용하였다(<http://www.presskorea.or.kr/>).

캐나다의 경우는 1990년대 초에 교사들을 중심으로 한 미디어 리터러시 추진 단체가 각 주에 설립되었고, 1992년에는 전국적 규모의 미디어 리터러시 실천 조직으로서 ‘캐나다 미디어교육기구 협회(CAMEO)’가 출범하였다. 교사들이 주축이 된 이 협회는 캐나다의 미디어 교육을 전국적으로 발전시키는 데 크게 공헌하였다. 특히 1995년 캐나다 방송위원회 CRTC에 텔레비전 프로그램에서의 폭력성에 대한 공청회를 열도록 제안했고, TV와 영화 프로그램의 등급체계 개발 과정에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김기태 외, 2007).

호주의 경우 역시 1980년 미디어 교육에 관심을 갖고 활동했던 현직 교사들이 주축이 되어 ‘호주미디어교사연합회(ATOM, Australian Teachers of Media)’가 결성되었고, 이 ATOM 연합회 활동은 1989년에 마침내 미디어 교육을 정규 교육과정에 포함시킬 수 있는 동력이 되었다(최창섭, 2000; 이영수, 2006). 특히 ATOM은 전 세계 미디어 교사들이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젝트를 개발하고 미디어 교육과 교수법을 위한 다양한 자료와 정보들을 교류하고 있다. 참여 회원들을 보면 미디어 교육 교사들 뿐 아니라 미디어에 관심을 갖는 학생과 학부모, 그리고 미디어 전문가와 다양한 교과목을 가르치고 있는 현직 교사들로 구성되어 있어서 개방적이고 유연한 운영을 가능케 한다.

덴마크의 경우 엘프(Elf, 2007)는 자국의 미디어교육 역사는 약 30여 년 전부터 시작되었다고 밝히고 있다. 실제로 덴마크는 1970년대부터 학교교육에서 미디어를 이용한 교육학습 보조교재 활용을 적극적으로 추진했다. 특

히 정규 교과과정을 보완하는 교육 자료로서 미디어를 활용했고, 다양한 도서와 신문, 잡지보급을 목적으로 학교도서관 콘텐츠 강화에 중점을 두었다. 또한 컴퓨터와 인터넷도입이후 학교교육의 전산화와 온라인화도 빠르게 진행되면서, 기존의 종이신문과 도서중심의 미디어 교육을 디지털미디어 중심으로 전환하고 있다. 최근에는 외국계이주민들의 사회통합을 목적으로 ‘읽기카페’(Lektie Café)를 도서관과 협회, 지역관공서 등에 설치하여 외국계 이주민들의 덴마크사회로의 통합을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읽기카페에는 성인을 위한 프로그램이외에도 학업성취도가 떨어지는 어린아이들을 위한 교실도 별도로 운영하고 있다. ‘읽기카페’는 단순히 외국인을 위한 게토가 아니라, 덴마크 정주민과 외국계 이주민이 함께 만날 수 있는 공간으로 미디어를 이용하여 서로 커뮤니케이션하고, 사회적 능력을 키우는 곳이다.

엘프는 덴마크 미디어교육의 특징을 덴마크어 모국어 교육이며, 미디어교육과 미디어활용능력 교육은 이러한 목표를 완수하기 위한 수단이라고 보았다(Elf, 2007, p.6). 특히 덴마크정부의 도서관재단을 통한 미디어지원정책에서도 알 수 있듯, 주로 신문 공동 유통과 배달을 통해서 미디어에 대한 접근권 보장에 중점을 두었고, 디지털미디어의 경우에도 접근권이 콘텐츠강화보다 우위에 있었다. 미디어는 철저하게 덴마크에 교육의 수단이자 기술적 도구였다. 덴마크정부는 덴마크어로 쓰인 모든 출판물을 전국에 있는 공공도서관 수자만큼 구매하여 보급하고 있으며, 덴마크어로 출판하는 도서에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지원금을 지급한다.

엘프는 영미식 미디어교육은 매우 제한된 범위에서 문화적 관점의 미디어교육 목표를 세우고 있다고 비판하고, 미디어를 이용하여 사회를 이해하는 교육이 중요하며, 특히 문화적 관점에서 커뮤니케이션과 교육목표를 설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 엘프는 이를 위해서 전체 커뮤니케이션 과정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며, 이는 인쇄매체뿐만 아니라 시청각매체까지 확산되어야 하고, 미디어를 사회적 정체성을 찾고 이러한 정체성의 의미를 파악하는 도구로 활용해야 한다고 보았다. 이는 덴마크어라는 기호적 도구를 통해 교육과정이 통합되어야 하며, 읽고 쓰는 교육도구로서 미디어가 활용될 수 있다고 보았다(Elf, 2007, p19-20). 이러한 관점은 안데센(Andersen)은 미디어를 덴마크 언어교육, 특히 읽기와 쓰기교육을 강화하기 위한 보조수단으로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으며, 미디어 컨버전스가 진행되면서 웹에서의 잘못된 언어생활을 바로잡기 위해서라도 미디어 리터러시는 언어교육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보수적인 입장을 대변한다(Andersen, 2007, p.8). 안데센

은 읽기교육을 효율적으로 하는 방법은 신문과 책읽기와 덴마크어로 글쓰기로 보았다. 엘프는 특히 덴마크정부가 학교교육에서 읽기교육과 쓰기교육을 강화한데는 PISA테스트에서 덴마크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자국어 읽기와 쓰기에서 매우 뒤쳐져 있다는 결과로부터 위기의식을 얻게 되었다고 보았다(Elf, 2006).

덴마크에서 신문을 활용한 교육(NIE)은 주로 읽기교육의 보조수단이며, 이러한 보조수단을 원활하게 유지하기 위해서 신문공배율을 100% 가깝게 유지시킨다. 방송과 뉴미디어를 이용한 미디어교육도 상황은 마찬가지다. 덴마크에서는 NIE든 미디어 리터러시를 통한 미디어 이해 능력 배양이든 모두 교육을 위한 보조수단에 불과하다. 그래서 1970년대부터 미디어 교육이 시작되었음에도 별도의 학과목이나 단독교재가 개발된 것은 없다.

그러나 분스가드(Bundsgaard)는 미디어교육의 질적인 전환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는 기존의 덴마크에 교육을 위한 읽기와 쓰기교육은 너무 평면적이어서 교육의 효과가 떨어진다는 주장이다. 그래서 기존의 미디어교육이 가지고 있는 평면적인 기술적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도서뿐만 아니라 인터넷과 모바일 등 다양한 뉴미디어를 적극 도입할 필요가 있으며, 이러한 디지털 미디어의 글쓰기에 맞는 읽기와 쓰기 교육을 연구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Bundsgaard, 2006, p.7). 분스가드는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디지털환경에서 읽기와 쓰기를 위해 다음의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첫째, 화상(Skærmen, screen)에 맞는 글쓰기를 가르치자. 이제 글쓰기의 주도적인 매체는 화상을 이용한 온라인과 모바일이다. 그렇기 때문에 화상 환경에서 글쓰기를 어떻게 진화시킬 것인가를 고민해야 한다.

둘째, 화상을 이용한 글쓰기는 시각적이어야 한다. 화상은 시각적 도구이며, 우리는 화상을 하나의 그림처럼 대한다. 그래서 기존의 문자와는 다른 기계적 특징이 있다.

셋째, 글은 이제 아름답게 보일 필요가 있다. 디지털시대 화상이라는 기계적 도구를 사용하는 환경에서 아름답지 않은 글은 악필보다 못하고, 수용자로부터 외면당한다. 인터넷이나 모바일, e-reader를 통해서 읽는 글은 그림과 같기 때문에 아름답지 않다면 읽히지 않는다.

넷째, 문장은 하나의 그림처럼 조직되어야 한다. 디지털시대의 글쓰기는 A4용지나 공책위에 쓰지 않고, 화상위에 쓴다. 그래서 글씨만 빼곡한 문장은 가독성이 떨어진다. 오히려 그림과 같이 제목과 본문의 배열, 띄어쓰기

와 끊어 쓰기 등이 달라져야 한다.

다섯째, 디지털 시대의 글쓰기는 사진이 많아야 한다. 화상에 있는 글은 책에 있는 글과 다르게 읽힌다. 디지털환경에서의 읽기의 조건은 종이시대의 읽기와 다르기 때문에 보다 많은 사진이 들어가야 한다(Bundsgaard, 2006, p. 15).

그러나 엘프(Elf)는 이러한 분스가드의 주장에 대해서 디지털시대의 미디어활용조건이 달라진 것은 사실이지만, 미디어교육의 근본적인 목적과 원칙은 변하지 않았다고 본다.

엘프는 미디어교육을 3단계로 나눈다. 첫 번째로 학생은 자신의 지식을 심화시키는 수단으로 미디어를 이용하며, 이를 통해 체계적이 학습을 할 수 있다. 두 번째는 이렇게 습득한 지식은 동료들과의 토론과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지성을 갖추게 된다. 마지막으로 학생은 나아가 고학년(또는 대학생)이 되면 자신의 고유한 관점과 사고로 발전시켜서 덴마크사회를 발전시키기 위한 사회적 협력의 기초로 발전시킨다.

이러한 교육목표를 위해 미디어는 도구로써 사용될 수 있고, 또한 이러한 도구를 통해 습득되고 생산되고 유통되는 전 과정을 알기위해 미디어활용 기술에 대한 교육이 중요하다. 미디어를 통해 전달되는 콘텐츠는 결국 미디어의 산물이기도 하지만, 효율적인 읽기와 쓰기교육을 통해 형성된 개인의 미디어능력에 해당한다(Elf, 2007, p.19-22).

국내외에서 미디어교육에 대한 연구는 주로 미디어교육의 목적과 목표, 사회문화적 특징과 역할에 대해 주로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반면 미디어교육에 필요한 교재개발은 언론사와 교재를 제작하는 출판사에 맡겨져 있고, 교육은 교사와 정부가 지원하는 미디어교육 네트워크가 중심이었다. 반면 우리나라에서는 필요성에 대한 논의와 주장은 많았지만, 구체적인 실천방안에 대한 논의는 부족했다. 또한 통합된 검정교재 개발보다는 오히려 교육학과 언론학계, 현업이 상호 견제하고 경쟁하는 구조였다.

(2) NIE (Newspaper in Education)

현재 NIE와 관련하여 국내에는 120여개의 석사논문이 나왔으며, 3개의 관련 박사논문도 나와 있다. 이러한 논문의 주제는 대부분 교육공학 및 교육방법에 대한 세부적인 기술에 머물고 있으며, 미디어학으로서의 NIE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는 극소수에 머물고 있다. 더욱이 NIE정책과 학제간 협

력을 위한 거버넌스 연구는 전무한 상황이다.

반면 주요 학술지와 전문잡지 등에 게재되는 기고문은 교육학계보다는 미디어학계에서 작성되는 것이 많으며, 연구를 주도하는 것도 주로 한국신문협회와 한국언론진흥재단 등 미디어관련 업계이다. 이는 필연적으로 불균형적인 연구와 학제간 영역이기주의가 심화되는 원인의 하나가 되고 있다. 신문사를 비롯한 민간분야에서의 연구는 중앙일보와 한겨레신문 등의 경우처럼 주로 논술교육의 일환으로 실시되고 있는데, 이는 NIE가 신문을 활용한 인지능력의 강화와 비판적인 미디어이해, 미디어를 활용한 교육 등 광범위한 방향에서 이루어지지 않고 상급학교 진학을 위한 수단으로 전략하는 현상까지 발생시키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NIE는 1980년대 초 시작되었으며 중앙일보의 주도로 신문 활용교육 사례가 소개되면서 이와 관련된 단행본과 연구들이 활발하게 출판되었다. 성종수(1980)는 신문을 활용한 국어 교육 지도방안에 대해 연구했고, 허단(1997)은 신문을 활용한 중학교 국어학습에 대해, 김강선(1997)은 신문을 활용한 글짓기 학습 프로그램을 제시했다. 김정일(2000)은 신문활용학습이 읽기 흥미도 향상에 미치는 영향 연구를 통해 신문의 활용을 통한 읽기 학습의 효과를 탐구했다. 연구결과 NIE가 학습의 효과를 높이는 역할을 하며, 특히 문화적 혜택을 덜 받고 있는 농어촌 지역의 아동에게 매우 효과적이며, 성적이 높은 아동의 사고력 증대에도 큰 자극을 줄 수 있는 방법임을 밝혀냈다.

이정화(2004)는 ‘신문을 활용한 과학과 수업이 중학생들의 과학 학습 태도에 미치는 효과’에서 중학교 과학교과서에서 NIE 활동이 교수와 학습의 차원에서 효과 있는지를 검증하고자 했다. 김순희(2001)는 ‘웹기반 NIE 교육이 과학탐구력 향상에 미친 영향에 관한 연구’에서 웹기반 NIE 환경이 초등학생 과학탐구 수행능력의 향상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했다. 정지영(2002)은 ‘신문자료 활용이 초등학교 슬기로운 생활교과학습에 미치는 효과’에서 슬기로운 생활과목에 신문자료를 활용하는 교육을 시행함으로써 지식, 탐구, 기능, 습관, 태도의 각 영역에서 교육적 효과가 높게 나타났다고 밝혔다. 신동희·이제선(2003)은 ‘고등학교 과학 환경단원수업에서의 NIE효과 연구’, 이수희(2004)는 ‘NIE를 통한 초등미술교육 지도방안 연구’ 등 학습 효과에 대한 검증이 이루어졌다(김기태·권혁남·김양은, 2007). 조혜강(2005)은 ‘소집단 활동을 통한 NIE 프로그램이 발표력과 쓰기능력에 미치는 효과연구’를 통해서 앞서 언급한 연구자들의 효과검증 측면보다는 커뮤니케

이션능력을 향상시키는 NIE에 대한 검증을 시도해 주목된다.

어린이에 대한 NIE의 경우, 이미 1950년대부터 발행된 우리나라 ‘어린이 신문’이 일정하게 미디어를 활용한 학교교육에 기여한 점도 있지만, 미국과 같이 미래 독자 확보를 위한 신문사의 상업적 이해관계를 대변해 왔고, 학교교육을 목적으로 하기 보다는 상업적인 이해관계에 더 많이 치중해 왔다는 지적도 있다. 비판적 NIE의 관점에서 어린이 신문을 분석한 김여옥(2009)은 연구 결과 첫째, 어린이 신문 기사에 실린 교육관련 기사 중 절반이 영어교육, 국제중학교 등 영재교육과 관련된 내용이었으며, 둘째, 어린이 신문에서 학력 위주의 교육관을 조장하고 있었으며, 셋째, 어린이 신문 속에는 하나의 사건에 대해 하나의 입장이 제시되어 논란의 여지가 없는 사실처럼 느끼게 한다는 점을 지적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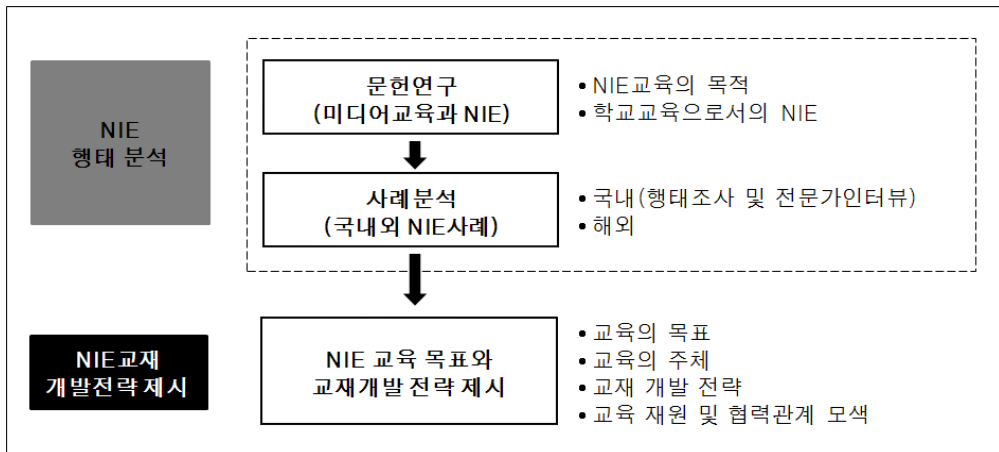
그러나 지금까지의 NIE에 대한 연구가 대부분 효과검증에 치우쳐서 NIE를 왜 해야 하며, 어떠한 목적에서 교육이 이루어져야 하는지에 대한 정책적, 교육철학적 대안이 제시되지 못했으며, 어떠한 교재를 누가 개발할 것인가에 대한 주체의 논의도 이루어지지 못한 한계가 있다. 따라서 이제 NIE를 새로운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 그것은 신문기업의 상업적 이해관계를 대변하는 차원의 교육을 넘어 학교 교육으로서의 미디어교육의 목적과 역할을 수립해야 할 때이다. 즉 지나치게 결과를 중요시하는 교육보다는 과정을 어떻게 설계하고, 현행 교육제도에 편입시키기 위한 방안이 무엇인지 고민할 필요가 있다. 신문을 이용하든, 영상과 인터넷을 이용하든 미디어교육의 궁극적인 목표는 사회 현상을 비판적으로 분석하고, 이러한 분석을 통해 얻은 인식을 자신의 생각과 글로 정리하고, 삶속에서 실천해 나갈 수 있을 때 비로소 NIE 교육의 의미가 있다고 하겠다.

2. 연구방법과 연구체계

이 연구는 다음의 3가지 내용으로 구성되었다.

〈그림 I-1〉

연구체계와 흐름



첫째, NIE란 무엇이며, 어떠한 목적에서 수행되는지를 알아보았다. 학교 교육과 사회교육의 차이에서 발생하는 NIE의 근본적인 목적의 차이와 이에 합당한 교재개발의 필요성을 주로 문헌연구와 선행연구 결과 검토를 통해서 알아보았다. 둘째, 이를 바탕으로 현행 우리나라 NIE의 행태를 살펴보았다. 현행 NIE의 주체와 교재, 재원에 대해서 살펴보고, 특히 NIE를 위한 전문 인력 양성 등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이를 위해 전문가와 인터뷰를 통해 현장의 상황을 면밀히 분석하였다. 이어서 해외 사례를 통해 한국에 주는 시사점을 찾아보았다. 셋째, 행태와 사례분석을 통해 교학교육으로서의 NIE의 미래전략에 대해 알아보았고, 바람직한 방향성을 모색했다. 실제로 피교육자들이 NIE의 취지대로 ‘신문매체’에 대한 태도나 인식을 변화시킴으로서 미래의 독자층으로 성장 가능한 프로그램인가에 대한 연구결과들도 제시되어있지 않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실제 현행 시행하는 교육프로그램들의 효과를 검증하였다. 또한 이를 위해 가장 합리적인 교재개발의 방안을 모색해 보았다.

이 연구는 문헌연구와 사례연구, 전문가인터뷰를 통해서 학교교육으로서의 NIE의 목표와 주체, 전략에 대해 살펴보았고, 행위자들의 합리적인 협력관계를 모색하였다.

II. NIE의 목적과 지향점

1. NIE의 개념 및 정의

가. 미디어 세계와 미디어 활용 능력

루만(Luhman, 1997)은 현대인이 인지하는 대다수의 사건은 미디어를 통해서 가능해진다고 본다. 글로츠(Glotz, 2001)는 이를 “우리의 세계는 곧 미디어세계”라고 정의한다. 구텐베르크에 의해 인쇄매체가 상용화되면서 새로운 은하계가 열렸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구텐베르크이후에도 기술적 진보에 따라 새롭게 등장하는 뉴미디어는 인간에게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준다. 특히 영상과 음성을 저장할 수 있게 되고, 이를 디지털신호를 통해 자유롭게 편집할 수 있게 되면서, 인간의 인지영역은 더욱 확장했다.

이러한 미디어를 통해 매개되는 세상은 인간이 개척한 문화적 공간이지만, 미디어를 통해 이를 인지하는 당사자에게는 간접적인 경험이다. 그러나 간접적인 경험임에도 불구하고 개개인의 삶에 큰 영향력을 행사한다. 나아가 개개인이 일상적으로 맞이하게 되는 자신의 생활공간에서 얻는 경험과 지식보다 비록 간접적이지만 미디어를 통해 얻는 정보가 더 많을 수도 있다. 즉 인간이 자신이 소속된 사회변화에 대해 인지하는 대다수의 정보는 직접적인 경험보다는 미디어가 반영하는 형태에 대한 이해를 통해서이다. 이조시대 추노꾼의 세계를 알기 위해 텔레비전과 인터넷을 뒤지게 되고, 최근에 개최된 남아공 축구월드컵의 경기와 뒷이야기를 찾기 위해 우리는 미디어를 찾게 된다. 우리가 찾는 미디어의 세계는 개개인이 경험한 세계보다 더 ‘인상적이고’ 영향력을 행사한다(Kracauer, 1939).

분명 인지와 인식의 세계는 다르다. 인간의 인지능력이 직접적인 경험에 기초한다면, 인간은 자신이 살아가는 세계를 간접적인 경험을 통해서도 충분히 올바르게 인식하고, 창의적인 적응을 할 수 있다. 인간이 미디어를 통한 간접적으로 환경을 인지함으로써, 창의적인 적응력을 만들어가는 과정을 바케(Baake)는 ‘미디어능력’이라고 부른다. 1970년대 이후 인간의 간접경험

을 통한 환경인식과 창의력 개발은 중요한 논의의 대상이 되어 왔다. 촘스키는 이를 ‘타고난 보편적 문법’으로서의 커뮤니케이션 능력으로 보았다(Chomsky, 1957).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 있는 능력은 ‘언어능력이란 권력으로부터 자유롭게 담론에 참여할 수 있는 기초조건’이다(Habermas, 1971). 그래서 바케는 미디어 능력은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커뮤니케이션을 가능케 한다. 커뮤니케이션 능력이란 하버마스가 말한 것처럼 인간이 언어와 다른 유사 표현기법을 이용하여 현실을 인지하고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을 말한다. 오늘날 미디어능력에 대한 새로운 관점이 있는데, 인쇄기술부터 TV수신기기에 이르기까지 기술수단이 발달하면서 새로운 커뮤니케이션 능력도 요구된다고 보았다(Baacke, vgl. Schell, Stolzenburg & Theunert, 1999).

이러한 미디어를 통한 간접경험은 최근 들어 디지털기술의 발달과 더불어 더욱 복잡하게 변화했다. 디지털화는 새로운 기술적 가능성뿐만 아니라 미디어중사와 수용자 모두에게 새로운 가능성과 역할을 부여한다. UCC와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등 다양한 분야에서 수용자는 곧 생산자로 기능한다. 또한 누구나 디지털기술에 대한 약간의 이해력과 능력만 갖추면 생산자로 역할 할 수 있다. 정보의 저장자와, 사용자, 생산자와 수용자, 소비를 위한 단말기와 생산을 위한 설비의 차이가 모호해진다. 이러한 변화는 인간의 인지능력과 미디어수용을 인쇄매체를 중심으로 한 구텐베르크문화계에서 디지털문화계로 이동하게 만든다. 신속성과 세계화, 다중적인 커뮤니케이션, 집단지성의 등장을 가능케 했다. 또한 개개인의 정보력은 점점 더 확장되었고, 정보의 홍수 속에 정보를 분류하고 자신의 지식으로 디자인하는 기술을 필요로 하는 미디어 환경으로 변화되고 있다. 이제 인간에게 필요한 것은 정보를 찾고 소비하는 게 아니라, 정보의 위치를 파악하고 수집하여 자신이 필요로 하는 지식으로 가공할 수 있는 능력을 필요로 한다(Bolz, 1997; Glotz, 2001). 이를 ‘복잡성 관리(Complexity Management)나 ‘커뮤니케이션 능력’이라고 부를 수 있다.

인간은 구텐베르크의 시대부터 자신이 처한 환경을 인지하고 이를 설명할 수 있는 인식능력을 필요로 했다. 이러한 능력은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 배가되는데, 커뮤니케이션의 기술과 방법을 가르치고 확대시키는 것이 곧 미디어교육이다. 그 이유는 루만이 지적하듯, 인간이 인지하는 대다수의 사회현상은 미디어를 통해서만 전달받고, 자신의 지식으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모저(Moser)는 미디어 교육의 목적을 ‘미디어능력’의 배양으로 보고 있다. 이러한 미디어 능력의 배양을 위해 모저는 세 가지가 중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1999, p. 64-67). 첫째로 미디어가 전달하는 정보를 취사선택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는 것으로, 미디어가 갖고 있는 언어적 코드를 이해하는 교육이 필요하다. 그러나 어떠한 정보를 취사선택해야 하며, 무엇이 진정한 미디어의 코드인가를 구분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은 과제이기 때문이며, 둘째로 미디어가 내세우는 입장(논의의 출발점)을 이해하고, 이를 뚜렷하게 인식할 수 있는 판단력을 배양하며, 셋째로 정보생산과 전달의 전략적 구조를 이해함으로써, 정보의 행간을 읽어낼 수 있는 능력을 가르친다. 모저는 미디어 교육은 미디어가 전달하는 정보에 대한 비판적 이해와 행간읽기를 통한 취사선택에 있다. 그는 이러한 교육은 학교교육에서부터 사회교육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하게 실시될 것을 주장하고 있다.

반면 본파델리는 미디어를 통한 교육은 지식교육을 위해 매우 효과적인 도구로 사용될 수 있지만, 동시에 인지능력을 떨어뜨려서 미디어가 전달하는 가상현실과 실존하는 현실을 명확하게 구분하지 못하는 비판적 능력의 저하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고 가정한다. 본파델리는 효율적인 미디어교육을 위해서는 직접경험하지 않고 간접적으로 인지하는 미디어의 현실을 수용자가 자신이 아직까지 직접 경험하지 못한 세계를 대체하는 오류를 범하지 않도록 비판능력과 현실인지능력을 갖추도록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한다(Bonfadelli 1994).

바케(Baake)는 ‘미디어능력’을 고양시키기 위한 미디어 교육을 네가지 차원에서 나누고 있는데, 첫째는 미디어비평으로 수용자들이 주체적으로 미디어가 전달하는 정보를 분석하고 활용하며 반응하도록 해야 하고, 둘째는 미디어를 활용하여 정보를 얻을 수 있는 도구와 수단으로서의 미디어활용 교육(예를 들어 인터넷을 검색하여 정보를 얻는 법 익히기)이 필요하며, 셋째로 미디어가 전달하는 정보를 수용하여 소비하고, 쌍방향적 커뮤니케이션을 시도하는 미디어 소비 교육이 필요하고, 넷째로는 혁신적이고 창조적인 미디어 콘텐츠 만들기 교육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1999, p.34). 마싱(Massing)은 여기에 덧붙여 미디어정치 시대에 시민들은 기본적 능력으로 정치현상과 사회를 이해하기 위해 ‘미디어이해능력’을 갖추어야 한다고 주장한다(2001, p.39). 이를 위해서는 자신이 필요로 하는 정보를 효과적으로 얻을 수 있는 미디어를 취사선택하고, 정보를 적극적으로 수용하며, 비판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도록 미디어교육이 수행되어야 한다(Massing, 2000,

p.37)고 주장한다. 사르치넬리(Sarcinelli)는 이러한 능력을 미디어에 대한 이해능력을 키우는 것은 미디어정치 시대에 시민들이 스스로 자발적인 판단력과 정치적 선택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도록 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2000, p.32-38).

그러나 이러한 정의에도 불구하고 미디어에 대한 이해능력을 키우기 위한 미디어교육의 목표는 간략하게 정의하기 어려운 문제를 안고 있다. 이는 미디어교육의 범위가 이미 정치교육이나 학교교육의 보조적 기능을 넘어서 매우 다양화되었으며, 기존의 학교교육과 사회교육에 복합적으로 융화되어 기능하고 있기 때문이다(Moser, 1999, p.214이하).

나. 미디어 활용 능력의 특징

미디어가 디지털환경과 더불어 다매체 다채널화 되지만, 감각적인 정보에 의존하는 시청각매체와 달리 신문은 원천적인 정보를 생산하고 있다. 신문이 생산하는 상품은 고품격 정보로 단순히 기존에 나와 있는 정보를 가공하거나 복제(copy)하는 것이 아니라 수용자가 정보를 수용함으로써, 사회적 생산력을 확대시킬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한다.

신문을 활용한 교육(News in Education)은 전체 미디어를 활용한 교육의 일부분이다. 신문을 활용한 교육, 즉 NIE는 읽기문화와 쓰기문화를 모두 강화시키는 역할을 한다. 사회가 분절화하고 세분화될수록 사회 전체를 바라볼 수 있는 망원경과 같은 정보창이 필요하다. 이 정보창을 제공하고 세상으로 연계시키는 역할을 미디어가 담당한다. 그 가운데 신문은 비주열한 디지털세계에서 사회를 이해하고 방향을 설정하기 위한 창조적인 인식의 틀을 제공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특히 사회가 분절화하고, 정보를 이해할 수 있는 이해력이 떨어지는 상황에서 NIE는 인성교육과 사회통합교육을 위한 중요한 수단이 될 수 있다.

다. NIE란 무엇인가?

NIE란 'Newspaper In Education'의 약자로서 신문을 매개로 하는 모든 교육적 활동을 지칭. 보통 NIE, 또는 '신문활용교육'이라 불리며, 국제 신문발행인 협회(FIFJ)는 신문 활용 교육을 '학교에 유용한 보조 교재와 교수 방법을 제공하는 수단이며, 동시에 미래의 신문 독자를 키우는 수단으로 이

해하는 것이 가장 공통적이다’ 라고 정의한다(김훈순, 1994). 1995년 중앙일보의 NIE를 ‘신문을 학습활동에 활용하여 신문을 친숙하게 하고 교육적 효과를 높이는 교육적 활동 프로그램’ 이라 정의하였으며, 허병두(1997)는 ‘신문을 친숙하게 하고 학습에 활용하여 교육적 효과를 높이는 프로그램’ 이라고 정의했다. 교육학의 범주에서 NIE는 수년마다 개정되는 교과서로는 빠르게 변하고 넘쳐나는 정보들을 담아내기가 어렵기 때문에 신문과 교과서 정보를 서로 보완하여 가르치자는 것으로 여기에서 신문은 단지 수단이고 객체로서 인식(정수정, 2009)하고 있다. 이처럼 NIE는 신문을 대하는 주체에 따라서 가치기준과 활용단계 및 방법을 다르게 해석할 수 있기 때문에 명확하게 규정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1990년대 중반부터 각 신문사들을 중심으로 NIE와 관련한 사업들이 활발하게 진행되어왔고, 대학입시나 논술과 연계된 다양한 NIE프로그램과 연구들이 진행되어 왔지만, 아직까지 국내에서의 NIE에 대한 개념은 확실하게 합의를 도출하지 못한 상태이다. 변경희(1999)는 NIE에 대한 합의된 정의가 없어 개별 실천자 나름의 조작적 정의가 있지만 다음과 같은 정의가 있다고 밝혔다. 그에 따르면 NIE는 첫째로 신문을 활용하여 교육적 효과를 높이기 위한 일련의 프로그램이며, 둘째로 학교에서 유용한 보조교재와 교수방법을 제공하는 수단이고, 셋째로 신문을 친숙하게 하고 학습에 활용하여 교육적 효과 배가하며, 넷째로 매체에 대한 균형 잡힌 비판의식, 사고의 자율성을 고무하는 매체교육이고, 다섯째로 학습목표 달성 및 학습의 효과를 높이기 위한 자료 활용의 방법이며, 여섯째는 신문사와 교사가 연계한 신문의 교육적 활용 프로그램이고, 일곱째로 미래의 신문 독자를 키우는 수단으로 이해하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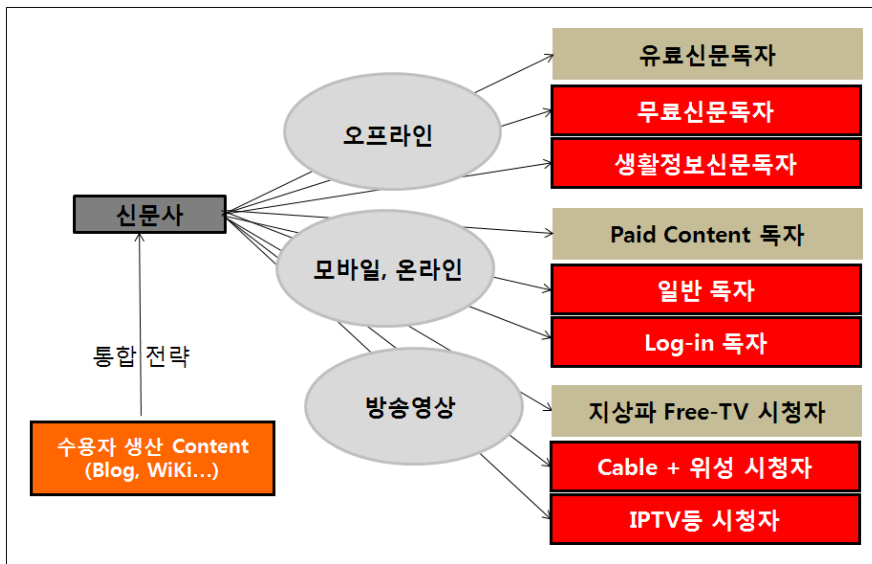
마현정(2009)은 신문의 기능 가운데사회 교육 기능과 문화 전승 기능 등은 신문의 교육적 기능에 해당하며, 참다운 교육은 학교 교육과 생활 교육의 조화, 관념 교육과 현실 교육의 조화를 실현하는 교육이기 때문에 신문이 보조 교과서로 높은 가치를 가진다고 주장하면서 그 이유로 학생 수준에 다른 다양한 내용을 담고 있고, 대중매체이기 때문에 가독성이 뛰어나며, 생활의 기록이고 현장의 기록이기 때문에 흥미성이 뛰어난 점들을 강조했다. 이러한 기존의 여러 이론들을 검토하여 보았을 때, NIE란 ‘신문을 창의성과 정보의 취사선택 및 활용능력을 높이는데 극대화 시킬 수 있도록 보조교재로 이용한 교육’ 이라고도 정의할 수 있다.

라. 디지털시대의 NIE

디지털 환경의 등장과 함께 NIE의 행태도 크게 달라지고 있다. NIE라는 용어가 처음 사용될 당시는 종이신문을 활용한 교육을 의미했다. 그러나 지금은 종이신문을 활용한 교육보다는 인터넷과 영상을 이용한 교육으로 확대되고 있다.

〈그림 II-1〉

디지털시대의 신문의 가치사슬변화



위의 〈그림II-1〉에서처럼 신문의 가치사슬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확대되고 있다. 신문기자가 기사를 작성하면 기사는 종이신문과 온라인신문, 동영상으로 제작되어 제공된다. 예를 들어 전국일간신문을 발행하는 한국일보, 서울경제, 스포츠한국, Korea Times, 소년한국일보를 발행하지만, 동시에 온라인사이트와 스마트폰에서 볼 수 있는 어플리케이션(App)으로도 제공한다. 학교의 NIE와 미디어교육은 이러한 종합적인 미디어 생태변화에 맞춰서 교과목이 개발되고 발전할 필요가 있다. 또한 최근 들어 신문사들이 독자 또는 생산자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제공하는 정보를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있다. 학생들의 SNS를 통한 정보 생산 활동도 교육의 한 부분으로 편입할 필요가 있다. 정보의 생산은 이제 신문기자뿐만 아니라 독자들도 참여할 수 있는 열린 구조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산된 정보는 오프라인과 온라인, 모바일 등을 통해서 다양하게 독자들에게

게 제공한다. 비판적이고 창의적인 수학능력 증대를 목적으로 했던 초창기 NIE가 지금은 방송영상물 제작과 비평에 이르기까지 미디어를 활용할 수 있는 능력으로 확대된다. 특히 대학입학에서 논술의 비중이 커지면서 NIE는 마치 논술대비 교육처럼 변질된 측면도 있다.

오늘날 세계 여러 나라에서 창의성 계발을 교육의 중요한 당면 과제로 삼고 있다. 비판적이고 창의적인 교육은 미래의 지속가능한 인류사회의 발전을 보장할 수 있는 인재교육의 근간이 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인재는 교과서의 단순암기나 수리적인 능력만으로는 불충분하기 때문에 자유로운 사고와 창의적인 열린 교육이 필요한 시점이다. 특히 디지털매체의 발달로 다양한 미디어를 이용하는 학생들이 스스로 비판적인 인식과 정보접근을 통해 자신이 취득한 정보를 지식으로 디자인할 수 있는 교육의 틀이 필요하다. 이러한 의미에서 미디어시대의 NIE는 교육현장에 맞는 새로운 방향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따라서 디지털 시대의 NIE는 정보화 시대의 모든 영역에서 유용한 정보를 신속하게 수집하여 비교 분석하고 새로운 정보를 창출하는 종합적이고 창의적인 정보 활용 능력과 냉철한 판단 능력을 기를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종이신문을 수업보조교재로 사용하는 교육에서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신문을 제작하고, 나아가 신문비평을 영상으로 제작하여 학교 홈페이지에 동영상으로 제공할 수 있는 능력까지 확대될 수 있어야 한다. 이에 따라 학교 곳곳에서는 기존의 획일적인 교육과 대학 입시 논리에 맞춰 논술교육이라는 경직된 교육에서 벗어날 필요가 있다. 디지털시대의 NIE는 신문제작, 미디어비평, 미디어이해, 영상제작, 온라인 홈페이지 운영 등에 걸쳐 폭넓은 미디어 이해와 활용능력 교육(Media Literacy)로 확대될 필요가 있다.

마. 소 결

NIE는 신문을 활용하여 사회현상을 설명하고, 학교교육의 부족한 현장감을 더해 주는 교육이다. 그러나 ‘미디어의 이해’처럼 NIE 혹은 미디어교육이 수단이 아니라 교육내용 자체가 될 수 도 있다.

미디어 교육의 목적을 ‘미디어 활용능력’의 배양이다. 학생들이 학교교육을 통해 미디어 활용 능력을 배양하는 것은 다음의 측면에서 중요하다. 첫째, 미디어가 전달하는 정보를 취사선택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는 것으로,

미디어가 갖고 있는 언어적 코드를 이해하는 교육이 필요하다. 둘째, 미디어가 내세우는 입장(논의의 출발점)을 이해하고, 이를 뚜렷하게 인식할 수 있는 판단력을 키워야 한다. 셋째, 정보생산과 전달의 전략적 구조를 이해함으로써, 정보의 행간을 읽어낼 수 있는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특히 신문을 활용한 교육은 다음과 같은 의미에서 학교교육에 필요하다. 첫째로 신문을 활용하여 교육적 효과를 높이기 위한 일련의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둘째로 학교에서 유용한 보조교재와 교수 방법을 제공하는 수단이 된다. 셋째로 신문을 친숙하게 하고 학습에 활용하여 교육적 효과를 높이는 프로그램이다. 넷째로 매체에 대한 균형 잡힌 비판의식, 사고의 자율성을 고무하는 미디어 교육이다. 다섯째로 학습목표 달성 및 학습의 효과를 높이기 위한 자료 활용의 방법이다. 여섯째로 신문사와 교사가 연계한 신문의 교육적 활용 프로그램이다. 일곱 번째로 ‘신문을 학교 수업의 자료로 이용하기 위한 수단이며, 동시에 미래의 신문 독자를 키우는 수단으로 이해하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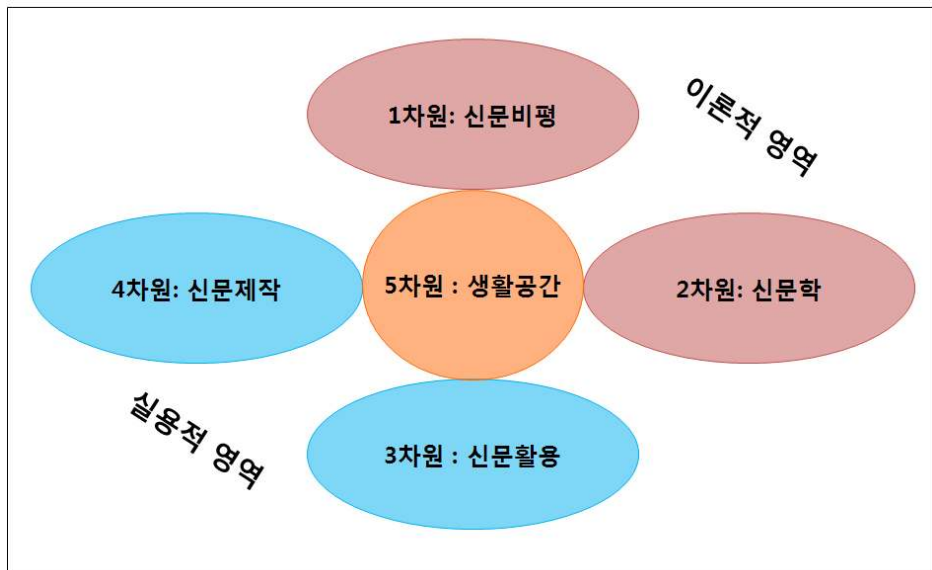
디지털 환경의 등장과 함께 NIE의 행태도 크게 달라지고 있다. NIE라는 용어가 처음 사용될 당시는 종이신문을 활용한 교육을 의미했다. 그러나 지금은 종이신문을 활용한 교육보다는 인터넷과 영상을 이용한 교육으로 확대되고 있다. 나아가 비판적이고 창의적인 수학능력 증대를 목적으로 했던 초창기 NIE가 지금은 방송영상물 제작과 비평에 이르기까지 미디어를 활용할 수 있는 능력으로 확대되고 있다. 그래서 종이신문을 수업보조교재로 사용하는 교육뿐만 아니라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신문을 제작하고, 나아가 신문비평을 영상으로 제작하여 학교홈페이지에 동영상으로 제공할 수 있는 능력까지 확대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최근에 청소년들 사이에서 확산되고 있는 모바일을 이용한 정보서비스에 맞춰, 스마트폰의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하는 영역에 까지 교육이 확대될 수 있다. 이에 따라 학교 곳곳에서는 기존의 획일적인 교육과 대학 입시 논리에 맞춰 논술교육이라는 경직된 교육에서 벗어날 필요가 있다. 디지털시대의 NIE는 신문제작, 미디어비평, 미디어 이해, 영상제작, 온라인 홈페이지 운영 등에 걸쳐 폭넓은 미디어 이해와 활용능력 교육(Media Literacy)로 확대될 필요가 있다.

2. NIE의 유형

NIE는 이론적 영역과 실용적 영역에 따라서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NIE는 미디어를 활용하는 교육으로 정보를 매개해 주고, 정보를 자신이 필요한 교육목적에 활용할 수 있도록 교육하는 목적 지향적 특징이 있다. 이러한 영역은 다시 목적에 따라서 미디어비평, 미디어의 이해, 미디어활용, 미디어제작 등 네 가지의 영역으로 나눌 수 있다.

〈그림 II-2〉

NIE의 목적별 유형



미디어활용 능력을 키우는 것은 두 가지 영역에서는 정보를 매개하는 과정을 이해하고, 신문이라는 매체의 특징을 살펴봄으로써, 이를 어떻게 교과목과 실생활에서 매개할 수 있을지 배우는 과정이다. 다른 하나는 이론을 통해 배운 정보매개과정을 목적에 맞게 활용하는 것이다. 이 영역에서는 신문을 활용하여 수업에 활용하고, 나아가 신문을 직접 제작함으로써 교과목에 따라 효율성을 최대화시킬 수 있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이러한 네 가지 영역에서의 NIE현황과 향후 교재 개발과 관련한 과제에 대해 살펴보았다.

가. 정보매개의 영역

정보매개의 영역에서는 신문이라는 미디어의 성격에 대해 이해하고, 이를 바탕으로 비판적이고 창의적인 시각을 갖도록 돕는 교육이다.

(1) 신문학 : 미디어의 이해

신문학은 신문에 대한 이해를 목적으로 한다. 정보적 차원에서는 신문기자의 취재방식, 일상, 저널리즘의 생산방식에 대한 이해를 하고, 신문이 무엇인지, 신문의 기능은 무엇이며, 어떠한 형태가 있는지에 대해 이해한다. 도구적인 차원에서는 신문광고와 신문기사의 기능과 역할을 살펴봄으로써 신문 산업에 대해 이해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종이신문과 온라인 신문 등 다양한 형태의 신문제작기술을 알아봄으로써, 신문을 비판적이고 창의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학생 개개인의 관점을 키워준다.

그러나 신문학은 독자적인 교육과정으로 수업하기는 어렵고, ‘미디어의 이해’와 같이 전체 매체를 아우르는 교과목을 통해서 수업을 진행할 필요가 있다. 디지털 컨버전스와 더불어 신문도 다른 미디어와 융합되면서 이제 신문만을 독자적으로 떼어서 하나의 교과목으로 수업할 수는 없다. 또한 신문 현상이 독자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님을 감안, 미디어 일반에 대한 교육의 하나로 신문이 포함되어야 한다.

(2) 신문비평 : 미디어 비평

신문비평은 신문기사의 행간이해라고 할 수 있으며, NIE의 근본목적이기도 하다. 분석적 차원에서 신문비평은 학교교육을 통해 배운 다양한 배경지식과 신문에 게재된 기사를 연계하여 행간의 의미를 파악함으로써, 사회를 보는 시각과 미래지향적인 창의적 사고를 할 수 있도록 돕는데 목적이 있다. 또한 분석적-상호소통적 차원에서는 지식을 개인적으로 분석하고, 삶 속에 적용하도록 능력 배양할 수 있는 민속학적-사회책임적 관점을 키우는 데 있다. 신문비평은 신문학과와의 연계를 통해서만 신문기사의 생산방식과 뉴스가 사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작동방식을 이해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다. 신문비평은 신문읽기교육이며, 읽기교육은 쓰기교육과 연계되어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

나. 목적지향의 영역

목적지향의 영역에서는 신문을 활용하여 기존의 일반과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 기능이 있다. 또한 스스로 신문을 제작하는 실습을 한다.

(1) 신문 활용

신문 활용은 신문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신문읽기와 신문만들기를 연계하여 구체적으로 신문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를 실용적으로 배우는 단계이다. 적극적인 의미에서 신문 활용은 신문기사에 대한 접근방법과 활용법 배우기이다. 여기서는 신문기사가 일상생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유용성 교육이라고 할 수 있다. 신문 기사를 단순히 학생들의 논술보조교재나 미래 독자 확보를 위한 수단이 아닌 미래의 창의적인 지성인 집단으로 양성하기 위해서는 신문을 올바르게 수용할 수 있는 신문 기사를 활용한 수업이 필요하다. 신문 활용 수업은 국어, 수학, 사회, 국사, 영어 등 다양한 수업에서 보조적인 수단으로 활용하는 교육이다.

(2) 신문제작

신문제작은 혁신적인 차원에서는 신문제작 등 자체적인 콘텐츠 제작을 시도하고, 기존의 미디어 콘텐츠를 모방하여 변형시키면서 학생들이 스스로 창의적인 신문을 제작할 수 있도록 교육시키는 것이다. 신문제작 교육은 종이신문뿐만 아니라 온라인신문 제작을 위한 동영상제작과 웹디자인 등 다양한 형태로 미디어 리터러시와 연계할 수 있다. 이를 위해 창의적이고 미적인 차원에서 학생들의 창의적인 신문기사 쓰기, 사진촬영, 편집법 교육, 웹디자인, 동영상촬영 등을 교육시키고, 기술적 차원에서는 신문 제작을 위한 기술교육을 한다.

다. 생활공간에서의 활용

제1단계에서 제4단계까지의 교육이 생활공간에서 활용될 수 있도록 사회 교육과 연계시키고, 가정에서도 학교에서 배운 NIE를 실천할 수 있도록 돕

는데 목적이 있다. 생활공간에서의 활용은 학생 개개인의 활동이지만 학교 교육과 연계된 NIE의 실용적 수용의 효과라고 할 수 있다.

라. 소 결

NIE는 미디어를 활용하는 교육으로 정보를 매개해 주고, 정보를 자신이 필요한 교육목적에 활용할 수 있도록 교육하는 목적 지향적 특징이 있다. 이러한 영역은 다시 목적에 따라서 미디어비평, 미디어의 이해, 미디어활용, 미디어제작 등 네 가지의 영역으로 나눌 수 있다.

정보매개의 영역에서는 신문이라는 미디어의 성격에 대해 이해하고, 이를 바탕으로 비판적이고 창의적인 시각을 갖도록 돕는 교육이다. 신문학은 신문에 대한 이해를 목적으로 한다. 정보적 차원에서는 신문기자의 취재방식, 일상, 저널리즘의 생산방식에 대한 이해를 하고, 신문이 무엇인지, 신문의 기능은 무엇이며, 어떠한 형태가 있는지에 대해 이해한다. 신문비평은 학교 교육을 통해 배운 다양한 배경지식과 신문에 게재된 기사를 연계하여 행간의 의미를 파악함으로써, 사회를 보는 시각과 미래지향적인 창의적 사고를 할 수 있도록 돕는데 목적이 있다.

목적지향의 영역에서는 신문을 활용하여 기존의 일반과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 기능이 있다. 또한 스스로 신문을 제작하는 실습도 할 수 있다. 신문 활용은 신문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신문읽기와 신문만들기를 연계하여 구체적으로 신문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를 실용적으로 배우는 단계이다. 적극적인 의미에서 신문 활용은 신문기사에 대한 접근방법과 활용법 배우기이다. 여기서는 신문기사가 일상생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유용성 교육이라고 할 수 있다.

신문만들기는 혁신적인 차원에서는 신문제작 등 자체적인 콘텐츠 제작을 시도하고, 기존의 미디어 콘텐츠를 모방하여 변형시키면서 학생들이 스스로 창의적인 신문을 제작할 수 있도록 교육시키는 것이다. 신문제작 교육은 종이신문뿐만 아니라 온라인신문 제작을 위한 동영상제작과 웹디자인 등 다양한 형태로 미디어 리터러시와 연계할 수 있다. 학교교육이 생활공간에서 활용될 수 있도록 사회교육과 연계시키고, 가정에서도 학교에서 배운 NIE를 실천할 수 있도록 돕는데 목적이 있다.

III. NIE 교재 현황과 사례 분석

1. 신문을 활용한 교육 현황

가. 신문을 이용한 수업 현황

(1) 어린이 신문을 이용한 NIE

우리나라 NIE의 시작은 1930년대 동아일보와 조선일보가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지면을 신설하면서 시작되었다. 어린이를 위한 NIE지면은 1940년대 말부터 1950년대 중반까지 정치적 사회적 요인으로 한때 중단되었지만, 다시 1950년대 말에 부활하고, 1960년대에 소년한국일보를 시작으로 소년조선일보, 소년동아일보, 소년중앙일보 등이 잇따라 창간되었다. 현재도 어린이를 대상으로 독자적인 신문을 발행하는 신문은 소년한국일보, 소년조선일보, 어린이동아, 어린이강원일보, 주니어헤럴드 등 5개이다.

(가) 일간 소년조선일보

소년조선일보는 1937년 1월 10일 조선일보사가 창간한 최초의 어린이 매체이다. 창간 당시에는 주 1회 타블로이드판형으로 4면씩 독립적인 제호를 발행했다. 조선일보는 사설을 통해 소년조선일보 창간의 의미를 “어린이 및 학생 중심의 문화 사업 및 관련 보도 확대의 일환이며 우리 사회의 진보를 위한 어린이 양육의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조선일보 1936. 1. 10일자).

소년조선일보가 일간지의 형태로 전환한 것은 1965년 2월 21일로, 소년한국일보에 이어 두 번째이다. 초기에는 창간을 표방하고 지령을 1호로 했으나, 이후 첫 창간 시점을 1937년 1월 10일로 수정했다. 소년조선일보의 주요 내용은 뉴스, 읽을거리, 학습지도 등이었으며, 브로드시트 판형 2면으로 발행한다. 소년조선일보는 1면 하단을 비롯해 모든 지면에 상업 광고가 포

함되며, 사진 기사를 비롯한 단신기사도 1면에 게재되는 경우가 많은 것이 특징이다.

현재 소년조선일보는 계열회사 조선에듀케이션 산하의 ‘맛있는 공부’섹션팀, ‘대입플러스’ 섹션팀, 출판팀, 마케팅팀과 함께 조직되어 있다. 조선에듀케이션은 조선일보 계열사 내 성장률이 1위를 차지하고 있다. 소년조선일보를 구성하는 인원은 편집실장과 정규기자 6명, 사진기자 1명, 편집기자 3명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교열기자는 아웃소싱으로 조달되고 있다. 제작 지면은 주 3일 8페이지, 주 2일 6페이지, 토요일 4페이지로 구성되어 있으며, 조선일보와 같은 크기의 브로드시트의 판형으로 제작되고 있다. 구독료는 월 5천원으로 80%가 가정독자로 이루어져 있다.

<그림 III-1>

소년조선일보, 소년한국일보 1면



(나) 일간 소년한국일보

우리나라에서 어린이를 위한 최초의 일간지는 1960년 7월 17일에 창간된 소년한국일보다. 소년한국일보는 장기영 한국일보 사장이 1954년 6월 9일 창간한 한국일보의 자매지로 평일에는 타블로이드판 4면, 일요일에는 대판 8면으로 발행했다. 한국일보사는 어린이 일간신문 발행의 의의에 대해 “어린이들에게 올바른 민주주의 사상과 민족주의를 키워주는 중시에 나날이 급변하는 국내외 소식을 신속 정확하게 이해시키고.... 학습과 취미의 지도 및 상식의 보급에 힘써서 높은 교양과 건전한 오락을 제공할 것”(한국일보 30년사 편찬위원회, 1984, 204)이라고 밝혔다.

현재 소년한국일보는 편집부 9명, 취재부 4명, 사진기자 1명 등 총 14명이 신문을 제작하고 있다. 소년한국일보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역사가 오래

된 신문답게 제작진의 전문성과 장기근무가 돋보인다. 그래서 기자들의 재직 연수가 높고 이직률이 낮은 편이다. 발행 지면은 주 3회 8면, 주 2~3일은 4면 발행하며, 매달 1, 3주는 주 6회 발행, 매달 2, 4주는 주 5회 발행한다. ‘엄마생각’이라는 학부모용 색션인 타블로이드판 8면을 격주로 발행한다. 소년한국일보도 소년조선일보와 마찬가지로 각 지면의 하단마다 상업광고가 게재되며, 3사의 신문사 중 성인신문의 판형과 가장 비슷한 형태를 보인다.

<그림 III-2>

어린이동아 1면



(다) 일간 어린이동아

동아일보사는 1959년 2월 22일 동아일보 문화면에 게재하던 ‘소년동아’란을 확대하여 주1회 타블로이드판 4면의 ‘소년동아’를 창간했다. 이에 앞서 동아일보사는 이미 1930년대에서 동아일보 본판에 ‘소년소녀’란을 만들어 어린이들에게 읽을거리를 제공했으나 해방 후에는 여건이 좋지 않아서 한동안 제공하지 않다가, 1955년 1월 1일부터 문화면에 다시 ‘소년동아’란을 꾸몄다. ‘소년동아’는 1959년 11월 22일자부터 한국 신문발행인 협회의 면수 조정으로 인해 다시 ‘동아일보’ 지면으로 합쳐졌다가 1960년 11월 6일자부터 다시 독립적으로 발행되었다. ‘소년동아’는 창간 한달 여 만에 발행부수가 10만부를 돌파하고 구독신청이 쇄도해 일간 ‘소년동아일보’ 발전했다.

소년동아일보는 소년한국일보, 소년조선일보에 이어 1965년 4월 1일 세

번째로 등장한 어린이 일간지로, 타블로이드 판 4면을 기본체제로 수요일과 토요일에는 8면으로 확대 발행되어 매주 총 32면을 발행했다. 그러나 2005년 어린이 신문의 체호를 ‘어린이 동아’로 바꾸고 타블로이드판으로 다시 전환해, 현재 어린이 신문 중 유일한 타블로이드 판형을 유지하고 있다.

어린이동아는 월요일과 수요일, 금요일에는 16페이지, 화요일과 목요일에는 12페이지를 발행하며, 토요일은 발행하지 않는다. 인력 현황을 보면, 취재기자 5명, 아트기자 포함한 편집기자 4명, 데스크 국장 1명, 사진기자 1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정기구독 부수가 대부분이며, 학교 배달이 다소 우세한 가운데 가정배달과 학교배달이 각각 절반 정도를 차지한다.

(라) 일간 어린이강원일보

강원일보사는 1996년 신문본판에 청소년을 위한 NIE지면을 신설했으며, 2000년10월5일부터 주간(매주 금요일)으로 24면을 발행하는 타블로이드판 ‘어린이강원’을 창간했다. 2004년4월16일에는 ‘어린이강원’을 주간이 아닌 일간 ‘어린이강원일보’로 확대하여 매일같이 타블로이드판 24면을 발행하고 있다.

<그림 III-3> 강원일보의 NIE면 창간호와 어린이강원일보 최근호(2010.11.19일자)



이미 신문창간부터 어린이신문을 발행한 경험이 있는 강원일보도 2000년 어린이강원 창간이후부터 꾸준히 NIE를 강화하고 있다. 2010년11월19일자 어린이강원일보의 지면구성을 살펴보면 1면은 종합면으로 NIE에 대한 기사를 게재하고, 2면부터 4면까지는 도내 각급 학교의 NIE에 대한 기사를 게재하고 있다. 대다수의 경우 NIE가 실시되는 초등학교에 대한 기사였다. 5면은 클레이아트면으로 친환경소재를 이용한 만들기를 소개하고 있다. 6면은 금주의 글짓기 우수작을 게재했고, 7-8면은 춘천, 9면은 원주, 10면은 홍천과 횡성, 11면은 강릉, 속초, 양양, 고성 지역 학생들의 글을 게재했다. 12면은 영어지면으로 영어로 된 기사를 게재했고, 13면은 지구촌소식(국제)을 게재했다. 14면부터는 다시 지역 학생들의 글을 게재했는데 14면은 동해 삼척 태백지역, 15면은 철원 화천 양구 인제, 16면은 영월 평창 정선 지역의 학생 글을 게재했다. 17면은 과학면이었으며, 18면은 특집면으로 이날은 편지에 대한 기사가 게재되었다. 19면은 실전NIE로 초등학교에서 NIE를 활용 방법에 대해 다루었고, 20면은 동화와 웃음, 21면은 교사들의 글을 신는 교육, 22면은 영어와 일본어 회화, 23면은 교육칼럼과 중국어회화, 24면은 퀴즈면으로 구성했다.

(마) 주간 주니어 헤럴드

영자신문사인 코리아 헤럴드가 2004년5월1일 창간한 주니어 헤럴드(Junior Herald)는 매주 수요일 발행되는 주간신문으로 본지 20면과 학습지 8면등 총 28면이 발행된다. 주요 지면은 Briefs, Hot Issue등 총 11개의 섹션으로 구성되어 있다. 주 독자층은 10세에서 16세사이의 초등, 중등, 고등 학생으로 신문은 인터넷사이트인 www.jherald.com과는 차별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주니어 헤럴드의 제작은 발행인 1명과 외국인 1명, 한국인 기자 2명, 관리직원 3명 등 총 7명이 편집진으로 구성되어 있고, 5명의 연구위원이 있다.

우리나라 어린이신문의 주 독자 층은 초등학생이다. 그래서 어린이신문을 초등학생을 위한 기사를 중심으로 게재한다. 전국종합일간신문 3개사와 지역종합일간신문사 1개사만이 어린이 신문을 꾸준히 발행하면서 미래의 독자에 대한 투자를 하고 있다. 반면 코리아헤럴드가 발행하는 주니어 헤럴드

는 초중고생을 대상으로 하지만, 영자신문이라는 한계와 더불어 주간신문으로 발행되고 있어서 제한된 영어NIE가 실시되고 있었다.

(2) 신문의 NIE

우리나라의 신문은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어린이신문이외에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NIE지면을 발행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조선일보와 중앙일보, 동아일보, 한겨레신문 등이 있다. 그러나 NIE지면 발행은 비교적 최근의 일이다. 1985년 한국신문협회는 신문협회보를 통해 NIE라는 용어를 처음 사용했으며, 이후 1995년 중앙일보에서 처음으로 NIE 지면 만들었다. 이후 중앙일보는 1995년 이후 교사 및 학부모 연수 실시, 다양한 NIE 교재 발간하고 전국 NIE 대축제 개최 등 NIE 발전에 앞장서고 있다. 그러나 중앙일보의 NIE는 이후 논술교육을 위한 교육 사업으로 성격이 바뀌었고, 전인교육을 목표로 하는 학교교육으로서의 NIE의 목적을 모두 충족시키기에는 한계가 있다. 중앙일보이후 대다수의 신문은 주1-2회 정도 NIE지면을 배정하고 있다. NIE는 주요한 독자층이 학부모와 청소년을 목표대상으로 하며, 전국종합일간신문부터 지역종합일간신문, 지역종합주간신문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신문사가 참여하고 있다.

비록 NIE가 도입된 역사는 짧지만 그동안 NIE와 관련하여 꾸준한 성과가 있었다. 한국신문협회가 2004년 9월에 전국 초중고 교사 2,24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NIE 실태조사에 따르면, 83.2%의 교사들이 NIE를 인지하고 있으며, 60.3%가 NIE를 활용해본 경험이 있고, NIE를 해보겠다는 의사를 밝힌 비율도 88.7%에 달했다. 이제 NIE는 반드시 필요한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정문성의, 2004).

그러나 실제로 신문 활용 교육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고, 충분한 교재와 내용이 제공되는지에 대한 실태조사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또한 신문 활용 교육의 학업성취도에 대한 효율적인 조사는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정문성의(2005)는 신문 활용 수업의 의의에 대해 “신문을 활용하여 수업하는 이유를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사회생활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35.9%)’가 가장 높게 나타났고, 다음으로 ‘생각하는 능력을 기르기 위해서(21.4%)’, ‘논술이나 글짓기 등을 잘하기 위해서(16.9%)’, ‘교과 내용을 이해하는데 도움을 주기 때문에(14.5%)’등으로 답하고 있다. 신문 활용 교육은 단순한 교과내용 이해를 위한 보조적 역할이 아니라 사회현상을 올바르게

게 이해하고 활용하기 위한 교육으로 이해된다. 이는 학생들을 창의적인 개인이자 민주사회의 성숙한 시민으로 양성하는데 목적이 있다.

2006년 한국언론재단에 조사한 『2006년 한국의 NIE』의 조사보고서에서 신문 활용 교육에 대한 인지도를 묻은 결과, 전체 응답자의 61.4%는 '어느 정도 또는 매우 잘 알고 있다'고 답했고, 27.4%는 '약간 아는 정도'라고 답해 전체의 89.8%가 NIE에 대해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전혀 모르거나 명칭만 들어본 정도'라는 답은 10.2%에 그쳤다. 학교 급별로 보면, 초등학교 교사들이 중학교나 고등학교 교사에 비해 NIE에 대한 인지도가 훨씬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5점 만점의 점수로 환산한 평균값을 보면, 초등학교 교사들은 4.08점을 보인 반면 중학교 교사들은 3.58, 고등학교 교사들은 3.54점을 나타냈다. 이에 대한 결과를 볼 때, 대다수가 NIE 교육에 대해서 인지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보고서에서 NIE 활용여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확인해 보면, 교사 자신이 수업에 신문을 활용하고 있는지를 질문한 결과, '활용한다'는 응답이 전체의 44.1%, '활용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55.9%로 나타났다. 이는 초·중·고별로 차이를 보이지만 초등학교 교사의 경우 80.9%가 신문을 수업에 활용하는 반면에 중학교는 40.5%, 고등학교는 38.8%에 그쳤다. 또한 연령이 높을수록 교직 경력이 많을수록 NIE의 활용도가 높을 것으로 조사되었다. 특히 NIE 활용여부측면을 확인해 볼 때, 현재 NIE를 실시하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서는 전체 응답자의 68.0%가 '하고 있다'고 답했고, 30.2%는 '하고 있지 않다'고 응답했다. 초등학교 교사들의 NIE 실시 비율이 76.3%로 중학교 66.9%, 고등학교 65.0%에 비해 다소 높게 나타났다.

NIE한국위원회(2010)는 NIE 운영자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수업용 신문자료와 수업방법 및 내용에 대한 정보를 수집해 수업에 활용하도록 제안하고 있다. 첫째, 신문 기사를 이용하는 방법이다. 글쓰기와 논술에 대비할 목적으로 사설이나 칼럼, 독자투고 등을 소재로 삼아 글쓰기나 논술을 해보는 경우다. 이 방법은 신문 기사를 읽고 정리하거나 흉내 내서 글쓰기를 하는 교육에 머물러 따분한 수업이 될 수 있으므로 초등 저학년보다 고학년 이상에서 부분적으로 시행될 수 있다.

둘째, 신문 자체를 교육 재료로 삼는 경우다. 신문 기사를 비롯해 사진, 만화, 그래프, 광고 등 신문 전체를 교재로 활용하는 방법이다. 교사나 학부모의 다양한 영역 개발과 시도가 가능하다. 하지만 내용이 방대하고 교육적 요소로 연결하는 데 애로가 많아 교사, 학부모의 세심한 준비가 요구된다.

셋째, 현행 교육과정에 맞춰 수업을 진행하는 방법이다. 일선 교사들이 교과 진도와 내용을 고려해 해당 학년, 교과와연계하여 관련된 신문의 요소를 도입한다. ‘제7차 교육과정’에도 ‘NIE’가 명시되어 있어 많은 학교들이 교육과정과 내용을 자체 개발하고 적용에 적극 나서고 있다.

넷째, 학습지 또는 워크북을 이용하는 방법이다. 시중에서 판매되고 있는 워크북을 사용하거나 직접 ‘NIE 학습지’를 만들어 사용하는 경우다. 이 방법은 내용이 다양하지 않아 학생의 수준 조절이 어렵고 시의성이 뒤떨어지는 단점이 있다. 처음 지도하는 사람이 아이디어를 얻기 위해 참고삼아 사용하면 좋다.

다섯째, 신문에 실린 ‘NIE 코너’의 조언을 받는 방법이다. 신문에서 보도하는 각종 교육 방법과 교육 정보, NIE 사례들을 이용하는 방법으로 NIE에 처음 접근할 때 유용하다.

1997년 12월에 고시되었던 제7차 국어과 교육과정이 2007년 2월 28일에 개정 고시 되었다. ‘국가수준 교육과정 총론 개정 연구’(박순경 외, 2006)에 따르면 제7차 국어과 교육과정은 국어과 교육과정을 넘어서는 외적인 요인과 국어과 교육과정 자체에서 비롯되는 내적인 요인에 의해 개정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고 지적한다. 교육과정 외적인 요인은 국제적 또는 국가적·사회적 변화로 인한 개정 필요성을 뜻하며, 교육과정 내적인 요인은 국어과 교육과정의 내적 체계나 일관성, 시행 과정의 문제점 등을 뜻한다. 이러한 국어과 교육과정 강화를 위한 수단의 하나로 NIE의 적극 활용을 명시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 NIE는 1994년 한국언론인협회가 주관한 ‘NIE 세미나’등을 들 수 있으며, 같은 해 ‘한국 신문 편집인 협회’에서 교육부 장관 앞으로 NIE 도입을 촉구하는 서한을 보내고, 대학 수학 능력 시험과 논술 시험의 도입 등과 같은 입시제도의 변화가 기존의 암기식, 주입식 학습에 대한 교육 주체들의 의식 변화를 촉진하면서 신문 활용 교육을 활성화 시켰으나(조성백, 2010), 국내의 NIE는 특정언론기관이나 교육기관 등 민간의 주도로 이루어지고 있다(이인표, 1997).

(3) 일간신문의 NIE 현황

우리나라의 일간신문사들은 2000년초까지 별도의 NIE부서를 두고 신문지면을 제작하고, 외부교육을 담당했으나 이제는 대부분 축소하는 추세이다.

동아일보와 조선일보, 중앙일보가 정기적으로 NIE지면을 제작하고 있으며, 경향신문, 서울신문, 한겨레신문 등 대다수의 전국종합일간신문도 교육면을 1주일에 1면씩 제작하였다.

한겨레신문은 ‘함께하는 교육’이라는 특집색션을 주1회 발행하며, 통상 지면의 수는 4면이다. 한겨레신문의 ‘함께하는 교육’은 일선학교교사와 한겨레신문의 교육센터가 공동으로 소재와 기사를 개발하고 있으며, 주독자 층은 초등학생부터 중학생, 고등학생 등 다양한 연령층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또한 학부모를 위한 자문면도 제작하고 있다.

<그림 III-4>

한겨레신문의 NIE지면



또한 부산일보, 대구매일신문, 강원일보 등 주요 지역종합일간신문도 NIE 지면을 만들고 있었다. 신문사에서 운영하는 교육의 경우, 대부분 미래의 신문구독자 확보를 위한 전략의 하나로 운영되며, 대학입학시험을 대비한 논술교육의 하나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례가 대부분이다. 매일신문은 지역종합일간신문 가운데 NIE를 특화시키고 있는데, 어린이기자들을 모집하여 별도의 신문제작실습을 지원한다. 현재 NIE를 위해 별도의 담당부서를 만들거나 담당자를 두고 있는 신문사는 다음과 같다.

- 경향신문, <http://nie.khan.co.kr>
- 동아일보 학예팀, <http://www.presseum.or.kr>
 - 어린이 동아, <http://kids.donga.com>
- 조선일보 NIE팀, <http://nie.chosun.com>
 - 소년 조선일보, <http://kid.chosun.com>
- 중앙일보 NIE팀, <http://www.jnie.co.kr>
- 한겨레신문 교육팀, <http://www.ahahan.co.kr>
- 소년 한국일보, <http://kids.hankooki.com/study/study.htm>
- 한국경제, <http://www.sgsg.com>
- 헤럴드 미디어 편성의 주니어헤럴드, <http://www.jherald.com>
- 경남신문, <http://www.knnews.co.kr/?cmd=main&idx=276&sortidx=8>
- 대전일보 교육섹션팀, <http://www.daejonilbo.com/index.asp>
- 매일신문 교육팀, <http://www.imaail.com>
- 영남일보 교육팀, <http://www.yeongnam.com/yeongnam/edu/>
- 전북도민일보 문화교육부, <http://www.domin.co.kr>
- 전북일보 교육부, <http://www.jjan.kr/nie>
- 한라일보 교육팀, <http://www.hallailbo.co.kr>
- 어린이 강원일보 NIE팀, <http://www.kidkangwon.co.kr>

<그림 III-5>

매일신문, 조선일보의 NIE 사이트면



우리나라 언론사의 NIE지면 발행을 살펴보면, 1995년3월 중앙일보가 NIE를 실시하겠다고 처음으로 선언하고 그해 4월6일 처음으로 NIE코너를 선보였다. 이어서 지역종합일간신문인 강원일보가 1996년10월31일 NIE지면을

최초로 독립지면으로 발행함으로써 본격적으로 NIE가 시작되었다.

<표 III-1>

일간신문의 NIE지면 특징

표	신문별 NIE 지면과 프로그램 현황
신문	지면 구성 및 관련 활동 내용
동아일보	- 매달 둘째 넷째 일요일 중고생을 위한 논술 섹션 '이지 논술'(8개면), 매주 화요일 교육섹션 '신나는 공부'(6개면), 매주 일요일 교육·건강 특화섹션 'Prime Town'(4개면) 발행 - 대부분은 학습법, 교육 관련 연재 및 정보성 기사 - 논술사이트 '이지 논술'(www.easynonsul.com) 운영
어린이동아	- 매주 목요일 NIE 1개면: 짧은 기사 자료와 관련 문제 4개 정도 제시하고 NIE 활동문제 출제 - 매주 목요일 통합논술 2개면: 신문기사를 제시하고 문제 풀고 글 쓰게 함
매일경제	- 매주 NIE면(2개면/수요일 또는 목요일) - '경제신문 읽는 법' '헤럴드인 다시보기', NIE의 관련기사 - 격주로 된 매일경제(타블로이드/24개면) 발행, 'NIE 경제교실' 연재
서울신문	- 매주 화요일 교육&NIE면 발행(1~3개면) - 대부분은 학습법, 교육 관련 연재 및 정보성 기사(4.1~5.15 중 NIE 관련기사 없음)
전자신문	- '신문보내기 캠페인' 매주 목요일 1개면 - '이제는 학교다' 시의성 있는 IT나 과학관련 정보를 문답식으로 쉽게 제시 - IT교육 자원 컨퍼런스, NIE 우수사례 발표, 정보과학분야 우수학생 장학금 지급, 우수학교 시상 등
조선일보	- '맛있는 공부' 매주 일요일(6개면) - '신문으로 배워요' 매주 수요일(1~2개면): NIE의 효과, 필요성 강조 'NIE 이렇게 해봐요' 방법론 제시 - 목요일 '맛있는 대답'(8개면)은 맛있는 공부+로 변경 - 사이트 nie.chosun.com - 교원직무연수, 지도자양성과정, 전국NIE대회 등 운영 - '재미있는 NIE' '신문 읽기 땀' NIE 119 '재미있는 신문놀이' '신문으로 논술잡기' 등 발행
소년조선	- 월: '즐거움 NIE 신문아 놀자' 1개면, 기사 2개 주고 문제풀기 - 목: '사술형 평가 NIE 글쓰기' 기사 읽고 과제 제시, 지도방법 등 소개 - 금: '통합교과 NIE 신문아랑 공부해요' 기사 주고 문제 풀기
중앙일보	- 매주 금요일 NIE면 발행(1개면), 기사와 관련된 문제 등 과제 제시 - 매주 수요일 교육섹션 '열려라공부' 발행(8개면) - 기자가 일선 학교 방문해 NIE 소개(신형학교) - NIE 실시 학교 중 희망학교에 무료로 신문 보급 - 중앙일보 NIE연구소 운영(www.jnie.co.kr) - 논술 전문 기자들이 직접 참여한 '이슈논술 2009' 발행 - 교사 NIE 직무연수, NIE 논술지도사 과정, 전국NIE대축제 등 운영
한국경제	- 생글생글 발행, 중고교, 도서관, 학원 등 총 1500곳에 매주 34만부 배포 - 생글생글(생각하기와 글쓰기) 사이트(www.sgagi.com) 운영
한국일보	- 매주 수요일 교육면 발행(2개면)
소년한국일보	- 매주 수요일 2개의 주제(최신, 시사)를 주고 문제 제출, 기사를 힌트로 제공
강원일보	- 매주 화요일 교육NIE면(1개면) 발행 - 공부법, NIE 관련 소식(생각을 키우는 NIE), 기사+문제 풀기(실전 NIE) - 교육 관련 내용도 상당부분 - 강원NIE대회 개최(2007년 시작) - 지도자과정(7기과정 개설 중) - 찾아가는 NIE교실 등 운영
어린이강원일보	- 매주 NIE 2면 발행
경남신문	- 매주 수요일 배움마당 발행(4개면 중 1개면은 논술마당으로 운영) -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NIE 지도사 양성교육 프로그램 실시(08년 5월~7월)
경북매일	- 매주 수요일 NIE 교육면 발행(1개면) - 교육정보, 봉사활동 체험기 등에 '생각하는 NIE' 포함, 글을 주고 문제출제
매일신문	- 매주 화요일 교육섹션 '하이스터디' 발행(4개면) - 학교 요청시 일일교사 프로그램 운영
부산일보	- 매주 화요일 교육면 '헬로-공부아' 발행(4개면), 1개면은 '함께하는 NIE'면으로, 통합논술 1개 면 등 발행 - '오려두고 해보세요' 학생들의 스크랩 특려
전북도민	- 매주 금요일 NIE면 발행(1~2개면), 1개면은 초등 (1개학교를 지정해 토론수업 내용을 지면에 반영), 1개면은 중등(방과후 수업관련 내용 소개)지면 운영 - '신문으로 공부해요' NIE 수업 실제 사례를 매주 게재, 학생과 선생님의 후기 수록
전북신문	- 매주 화요일 NIE면 발행(1개면), 생라카우기, 학생글 등 소개
충부일보	- 매주 토요일 교육면 발행(1개면) - 비정기적으로 일일교사 프로그램 운영

출처 : 이상현, 2009.

이후 중앙일보(1997), 소년한국일보(1997), 소년조선일보(1998), 소년동아일보(1998), 경향신문(2000), 매일경제(2003), 한국경제의 고교생 경제 논술신문 '생글생글'(2005), 헤럴드미디어 주니어헤럴드(2005), 경남신문(2005), 전북도민일보(2005), 중앙일보의 초등·고등 논술 월간지 퍼니와 엔비 창간

(2006), 경북매일(2006), 전북일보(2006), 중앙일보의 중등 논술 월간지 엔비(2007), 한겨레의 NIE 논술 아하!한겨레(2007), 서울신문의 교육&NIE(2007), 대전일보(2007), 대전일보의 교육섹션 에듀캣(2007), 조선일보의 NIE 사이트 개설과 ‘신문으로 배워요’ NIE 지면 발행(2007), 한라일보의 ‘생각을 춤추게 하는 NIE’ 지면(2009)이 각각 신설되었다.

한국언론진흥재단이 발행하는 신문과 방송이 2009년6월 조사한 바에 따르면, 현재 우리나라의 일간신문 가운데 NIE지면을 발행하는 신문사는 16개 신문사였으며, 이 가운데 4개 신문사는 NIE지면뿐만 아니라 어린이신문도 별도로 제작하고 있었다(이상헌, 2009). 그러나 동 조사에서 누락된 한겨레신문의 교육면과 헤럴드경제의 주니어헤럴드, 한라일보의 NIE지면을 포함하면 우리나라 일간신문의 NIE지면은 총 19개사 24종으로 집계할 수 있다.

그러나 신문과 방송의 기자가 언급하듯 지면의 내용은 신문사별로 천차만별이다. NIE면의 내용을 분류해보면 ▲기사를 제시하고 기사와 관련된 문제를 풀게하는 교재형 ▲NIE의 필요성, 현장사례, NIE 교습법 등의 정보를 제시하는 홍보형 ▲신문에 등장하는 기사나 용어를 학생들 눈높이에 맞게 설명해주는 해설형 등이 있었다. 교재형 NIE면의 대표적인 사례로 중앙일보, 강원일보, 경북매일신문, 부산일보 등이 속했다. 교재형 지면은 신문 기사를 보여주고 기사와 관련한 질문을 함께 제시하는데, 이는 신문사가 직접 교육현장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는 교안을 제공하는 데 중점을 둬으로써 NIE지면이 곧 교재로 활용될 수 있도록 했다. 한겨레신문의 ‘함께하는 교육’면도 이와 유사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

반면 조선일보를 비롯하여 전북도민일보는 홍보형에 가깝다. 홍보형의 경우 NIE가 무엇인지 왜 유익한지 알리는 데 목적이 있다. 따라서 교재형과 달리 기자가 NIE 관련 현장이나 전문가를 취재한 기사가 지면에 배치된다. 또한 NIE 활용사례, 활용방법, 전문가의 추천, 교사나 학생의 후기 등이 주로 실리면 NIE의 보급에 주안점을 두었다. 해설형 기사는 주로 경제신문이나 특수신문에서 발견할 수 있다. 매일경제신문의 NIE면인 ‘경제신문 읽는 법’, 전자신문 교육면의 ‘이제는 학교다’가 해설형이다. 매일경제는 경제용어를, 전자신문은 IT 용어를 학생들의 시각에서 각각 쉽게 설명해 어린 독자들의 이해를 높이고 있다.

신문사들은 NIE지면을 운영하면서 직접 교사들을 교육위원으로 임명하여 NIE정보를 축적하거나 일선 현장에 NIE교사를 파견하여 교육을 지원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중앙일보의 중앙일보 본지와 교육섹션 ‘열려라 공부’를 일선 학교에 무료로 보급하고 있다. 또한 중앙일보에서 제작한 ‘생각N논리’가 방과후 수업용 교재로 현재 판매중이다. 중앙일보는 현직교사를 ‘NIE 연구위원’으로 임명해 NIE 관련 정보를 제공한다. 자연스럽게 연구위원들은 교육현장에서 NIE를 활용하고 전파하는 역할을 한다. 조선일보 2005년 이후부터는 NIE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2007년부터 ‘조선일보 주최 NIE 대회’를 개최하고 있으며, 교사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원연수,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한 NIE 지도자양성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지역일간신문 중에서는 강원일보가 NIE에 선구적이다. 강원일보는 NIE면을 꾸준히 유지하며 관련 사업 역시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다. 최근에는 총상금액이 1,000만 원에 이르는 ‘강원 NIE대회’를 개최하였으며, 매년 가족신문 만들기, 신문일기 쓰기, 신문스크랩, NIE 우수 사례 등을 선발해 시상하고 있다. 강원일보는 강원NIE연구소 주관으로 초등교사를 대상으로 논술지도사과정, 방학특강 어린이 NIE논술교실, 찾아가는 NIE 등의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이상헌, 2009).

(4) 사례1 : 조선일보의 NIE

조선일보는 동아일보, 중앙일보와 마찬가지로 어린이신문을 발행하면서, 동시에 일간신문에 NIE지면을 발행하고 있다. 일간신문의 NIE지면은 대부분 논문교육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데, 조선일보의 경우에는 어린이를 위한 ‘신문은 선생님’과 청소년을 위한 ‘맛있는 공부’를 동시에 발행하고 있다.

‘맛있는 공부’는 교육섹션으로 2007년부터 매주 월요일 20면씩 발행한다. 그러나 실제 지면은 10면에 불과하고, 10면은 광고이다. ‘맛있는 공부’ 섹션은 진로지도, 책읽기 프로젝트, 교육관련 기사, 영어연수 등 교육관련 기사를 중심으로 지면이 구성되어 있다. ‘맛있는 교육’은 엄밀한 의미에서 NIE 지면으로 보기는 어려우며, 교육기사면으로 볼 수 있다. 반면 ‘신문은 선생님’은 본격적인 NIE지면으로 2010년11월부터 그동안 요일별로 특화되어 있던 지면을 하나로 통합하였다.

‘신문은 선생님’은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1개 지면씩 발행된다. ‘신문은 선생님’은 주 독자층은 어린이이다. 소년조선일보의 내용을 압축적으로 1개 지면에 만들어 놓았다고 볼 수 있지만, 요일별로 특화된 내용을 게재하고 있어서 파급력은 더 크다고 할 수 있다.

‘신문은 선생님’은 인터넷·TV 등 영상 매체에 익숙한 아이들을 위하여 활자를 3차원적으로 느낄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다.

<그림 III-6>

조선일보의 NIE지면



출처 : <http://morningplus.chosun.com/>

요일별로는 월요일에 재미있는 과학, 상식쑥쑥 역사이야기를 게재하고 있다. 재미있는 과학이야기는 최근 뉴스의 초점이 되고 있는 과학관련 기사를 쉽게 설명해주는데, 11월30일자에서는 최근 백두산의 활발한 화산활동과 관련하여 화산폭발이 왜 발생하는지 자세하게 다루고 있다. 또한 상식쑥쑥 역사상식에서는 제주도의 역사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과학기사는 어린이들이 많이 읽는 과학전문책자인 ‘Why’를 저술한 저자가 직접 썼으며, 역사상식은 어린이 역사교육 전문가가 작성했다.

화요일은 동화작가가 들려주는 책이야기로 읽기문화 진흥을 위해 동화작자가 매주 한권의 책을 선정하여 소개하고 있다. 또한 도전! 창의력 퀴즈왕을 연재한다. 월요일과 달리 화요일은 저학년을 위해 구성되었습니다.

수요일은 NIE지면으로 조선일보에 게재된 시사적인 사건관련 기사를 어린이가 읽고 이해할 수 있도록 쉽게 만들었다. 예를 들어 11월10일자 신문에서는 프랑스국립도서관에 소장되어 있는 직지심체요절을 비롯한 한국 외규장각 도서가 프랑스로 가게 된 경위와 이를 돌려받으려는 우리 정부의 노력에 대해 쉽게 설명하고 있다. 또한 12월1일자 신문에서는 세계문화유산이 무엇이며, 왜 보존해야 하는지에 대해 쉽게 설명하고 있다. 이러한 기사의 특징은 시사적인 사건을 다루고 있을 뿐만 아니라 역사적인 배경지식, 화려한 사진과 그래픽을 통해서 내용을 보완해 주고 있다는 특징이 있다. NIE

와 더불어 수요일에는 시사상식 속의 역사이야기를 연재하고 있다. 시사상식 속의 역사이야기도 최근 조선일보를 통해 보도된 기사 가운데 역사적인 사건과 연계된 것을 찾아서 설명해주는 내용이다. 수요일자 NIE지면은 신문을 활용한 교육의 효과를 높이는 방법이지만, 매일같이 지면을 통해 이러한 기사를 게재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그것은 비록 1개의 지면이지만 내용을 연구하고 짜임새 있게 구성하려면 많은 인력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취재인력과 제작인력을 고용하고 있는 조선일보에서도 시사정보를 어린이를 위한 NIE기사로 구성하는 능력이 1주일 1회밖에 되지 않을 정도로 많은 투자가 필요함을 알 수 있다.

‘신문은 선생님’은 목요일마다 떠나요! 체험학습란으로 꾸미고 있다. 체험학습란은 학교교육에 도움이 되는 역사적인 장소나 자연경관 등을 소개하여 수업과 병행할 수 있는 현장학습장을 소개하고, 자세하게 해설해주고 있다. 또한 고학년을 위한 ‘도전! 창의퀴즈왕’란이 있다.

금요일은 ‘이미지로 생각해요’로 그림을 통한 교육이다. 또한 매일같이 포켓몬 한자왕과 둘리 과학여행, 영어명작동화 등을 연재한다. 조선일보의 특징은 과학동화 ‘Why’와 같이 우리나라에서 초등학생들에게 가장 많이 읽히는 책자나 도서의 저자와 ‘포켓몬 한자왕’처럼 학습효과가 높은 것으로 검증된 도서의 콘텐츠를 NIE지면에 활용하고 있는 것이다. 교육의 지나친 상업화로 볼 수도 있지만, 동시에 가장 좋은 콘텐츠로 인정받고 이는 내용을 하나의 지면에 함축하고 있다.

조선일보는 학부모들이 NIE지면의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조선일보닷컴에 ‘모닝플러스(<http://morningplus.chosun.com/>)’ 사이트를 개설하여 내용을 보완하고 있다. 모닝플러스는 ‘신문은 선생님’ 지면을 인터넷에 옮겨 놓고 있으며, ‘신문원 선생님’에 연재되는 한자와 영어단어를 별도로 분리하여 게재한다.

또한 매일같이 웹진을 발행하여 학부모들이 어린이와 함께 신문을 이용하여 공부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NIE지면은 무료로 제공되지만, 웹진은 조선일보 모닝플러스회원 가입해야 이용할 수 있다.

<그림 III-7>

조선일보 Webzine과 어학활용교육사이트



출처 : <http://morningplus.chosun.com/>

어학활용교육사이트는 초·중·고등학생과 일반인을 대상으로 영어와 중국어, 일본어를 다양한 교육방법을 이용하여 공부할 수 있도록 개설해 놓고 있다. 조선일보의 초기 NIE는 별도의 인터넷사이트(<http://nie.chosun.com/>)가 중심이었지만, 모닝플러스로 통합되고 있다. 또한 뉴욕타임즈를 비롯한 세계 주요 일간신문과 같이 NIE를 신문독자 확보를 위한 구독신청과 연계함으로써 NIE의 궁극적인 목적인 읽기문화증진과 신문독자확보를 동시에 추진하고 있다.

(5) 사례2 : 한겨레신문의 NIE

한겨레신문은 조선일보와 마찬가지로 2007년부터 NIE를 목적으로 한 신문지면을 발행하고 있다. 한겨레신문은 매주 월요일 발행하는 교육섹션인 ‘함께하는 교육’을 통해 NIE를 실시하고 있다. 한겨레신문의 교육섹션 ‘함께하는 교육’은 총 6면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조선일보의 교육섹션과 달리 전면광고지면이 1면뿐이며, 전체 분량은 조선일보의 2/3정도였다.

‘함께하는 교육’의 주 독자층은 중·고등학생이다. 그래서 초등학생을 위한 지면은 없다. ‘함께하는 교육’의 1면은 항상 인터뷰 지면이다. 함께하는 교육을 실천하는 교사와 학생들이 나와서 교육현안과 올바른 진로지도교육에 대한 고민을 함께 나누는 이야기를 담고 있다. 11월29일자에서는 3인의 현직교사가 나와서 진로 고민을 하는 중학생과 상담하는 이야기가 실렸다.

‘함께하는 교육’ 2면은 각종 교육소식이 게재되고, 3면은 커버스토리로 교육관련 기획 기사를 게재한다.



4면부터 5면까지 연재되는 우리말논술교육은 한겨레신문에 게재된 기사 가운데 주요내용을 추려서 대학입학시험이나 각종 학교논술시험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교육 자료로 제공하고 있다. 학생들이 쓴 글이 게재되기도 하며, 논술교육 전문강사와 학교교사들이 참여하여 논술교재를 개발하고 있다. 조선일보의 보수적 시각의 논술교육에 대한 진보적 시각의 논술교육이라고 할 수 있다.

6면과 7면은 진로와 진학 등에 대한 상담지면으로 구성한다. 한겨레신문도 교육섹션 사이트(<http://themen.hani.co.kr/kisa/section-service/education/home01.html>)를 운영하고 있지만, 조선일보와 달리 교육섹션을 신문읽기증진이나 신문구독자 배가를 위한 방법으로 활용하지는 못하고 있다.

(6) 사례3 : 한라일보의 NIE

한라일보는 창간 20주년을 맞이하여 2009년3월9일 ‘생각을 춤추게 하는 NIE’지면을 신설했다. 한라일보는 제주NIE학회와 공동으로 창간이후 매주 화요일 NIE지면 1개면을 발행하고 있다. 제주지역 신문으로는 유일하게 운영되는 NIE지면은 도내 교육현장에서 직접적으로 활용 가능한 보조교재로 공급되고 있으며, 특히 NIE를 연구하고 개발하는 10여명의 교사들이 자문위원으로 신문제작과정에 참여함으로써 효과를 극대화시키고 있다. 한라일

보는 주1회 NIE 지면 연재를 위해 한라일보 기자(NIE 지도자)와 제주NIE 학회가 공동으로 주1회 연구모임을 운영하면서 초등학교 재학 중인 어린이들이 직접 활용할 수 있도록 지면을 꾸민다. 특히 한라일보를 중심으로 신문에서 기사·사진·광고·기타 자료 등이 정해지면 자료를 활용한 학습목표 세우기-학습전개-활동지 소개-분석 등을 통해 독자들이 실제 해 볼 수 있도록 구성한다.

<그림 III-9>

한라일보의 NIE지면



2010년에는 연재물로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후원으로 어린이들이 제주국제자유도시의 미래상을 함께 고민하고 펼쳐나가는 장도 별도로 마련했다. 2010년의 연재목표는 ‘신문 활용을 통한 창의적 논술’. 이를 위해 상반기에는 ‘창의적으로 생각하기’에 중점을 두고 하반기에는 ‘창의적으로 글쓰기’에 대한 내용을 연재하고 있다. 상반기 ‘창의적으로 생각하기’를 위한 ▷관찰하기 ▷상상하기 ▷추론하기 ▷논리찾기 ▷비판하기 순서로 진행하고 하반기에는 ‘창의적으로 글쓰기’로 확장해 ▷읽기 ▷요약하기 ▷의견찾기 ▷논리적 글쓰기 ▷원인과 결과 드러나게 글쓰기 ▷대안이 들어가게 글쓰기 등으로 진행된다. 하반기에는 ‘읽기와 쓰기’에 초점을 두고 연재하고 있다. 특히 ‘논술은 재미없다’는 선입견을 NIE를 통해 깨고 NIE를 활용한 사고력과 논리력을 높이기 위한 전략을 채택했다(한라일보 2010.3.10일자

참조).

한라일보의 NIE지면을 담당하는 이현숙 기자가 별도의 인터넷카페를 만들어 제주NIE학회와 공동으로 지면개발과 학습교재개발, 현장학습교육을 직접 지원하고 있다. 이 기자가 카페운영자인 인터넷상의 ‘한라NIE카페’(<http://cafe.daum.net/halla-nie>)’는 NIE에 관심 있는 교사·학생·학부모라면 모두가 참여할 수 있도록 개방해 두고 있다. 또한 2010년에는 ‘제1회 생각을 춤추게 하는 NIE 전시회’를 연초에 개최했으며, 제주도에서는 처음으로 ‘제1회 한라NIE 공모전’을 마련했다.

<그림 III-10>

한라일보 기사를 토대로 학생들이 제작한 ‘굿’소재 신문



출처 : <http://cafe.daum.net/halla-nie>

제주NIE학회 소속의 교사들은 한라일보의 NIE지면뿐만 아니라 한라일보에 게재된 기사를 소재로 학생들과 신문만들기 수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 2009년10월1일자에 게재된 제주칠머리당영동굿에 대한 기사를 소재로 초등학교 학생들이 신문을 제작하는 실습을 했다. NIE는 별도의 지면뿐만 아니라 신문 기사를 읽고 학생들이 이해하여 자신들의 창의적인 작업으로 연계할 수 있을 때 효율적임을 보여주는 사례이다. 한라일보와 제주NIE학회는 효율적인 NIE을 위해 다양한 공모전과 창의적인 수업교안을 개발하고 있다.

(7) 연구기관과 시민단체의 NIE

우리나라에서 NIE교재개발은 교육기관보다는 주로 미디어와 관련된 유관기관을 중심으로 이루어진다. 가장 적극적으로 NIE교재를 개발하는 기관은 한국신문협회가 주축이 되고 있다. 한국신문협회는 정기적으로 NIE교재를 개발하여 교사용과 학생용을 각 급 학교에 보급하고 있으며, 정기적으로 해외의 우수한 NIE사례를 연구하고 있다. 한국신문협회는 한국신문발행인협회가 주축이 되어 설립했으며, 전체 한국일간신문의 이해관계를 대변하는 자율기구이다.

한국신문협회와 더불어 주요한 교재개발 주체는 한국언론진흥재단이다. 문화체육관광부의 산하기관인 한국언론진흥재단은 신문 산업 진흥과 신문 읽기, 쓰기문화의 보급을 목적으로 2000년대 초부터 NIE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1차적으로 2003년에 초중고생을 위한 교재를 개발하였으며, 이후 이 교재를 이용하여 수업을 진행하는 교사들을 위한 연수와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2010년부터 2003년에 개발한 NIE교재를 새롭게 개정하여 출판하고 있는데, 고등학생을 위한 사회교과목 교재로 『미디어와 사회』를 출판했다. 이밖에도 한국언론진흥재단은 서울사무소를 비롯하여 부산, 대구, 광주, 대전 등 지역사무소에서 직접 NIE 전문강사를 각 급 학교에 파견하여 NIE를 실시하고 있으며, 일선 교사를 대상으로 하는 강좌를 상설 운영하고 있다.

이밖에 신문비평을 목적으로 하는 피비우스, 여성민우회, 민주언론시민연합, YWCA, 언론인권센터 등 언론유관 기관에서도 NIE와 관련한 모임과 평가단을 운영하고 있다. NIE교재의 발행주체가 대다수 언론관련 유관단체라면, 교과서 집필을 담당하는 사람은 대부분 교육학을 전공한 사람과 미디어학자들이 공동 작업을 하고 있다. 이는 학교교육에 사용되는 교재는 교육 목표를 수행할 수 있는 내용을 담아야 하기 때문이다.

나. NIE교재개발 현황

(1) 국내 NIE교재 현황

NIE를 위한 교재는 주로 초등교육을 위한 교재를 중심으로 제작되었으며, 종합적인 NIE활용교육 교재보다는 논술을 위한 보조교재에 머무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선학교에서 NIE를 실시하는 교사들을 중심으로 바람직한 NIE교재 개발을 위한 연구가 지속되고 있다.

NIE교재 개발을 위해서 한국신문협회와 한국언론진흥재단이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특히 한국언론진흥재단은 지역별로 NIE를 위한 전문교사를 파견하고 있다. 또한 한국언론진흥재단은 국내 연구기관 가운데 유일하게 교사들을 대상으로 NIE를 위한 상설 전문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한국신문협회는 산하에 한국NIE위원회를 만들어서 NIE를 위한 교재개발에 앞장서고 있다. 한국신문협회의 NIE위원회에는 NIE전문교육학자, 미디어학자, 신문사전문기자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참여하며, NIE발전을 위한 장기적인 전략과 교재개발에 앞장서고 있다.

신문사 가운데는 조선일보 미디어랩에서 가장 활발하게 NIE교재 개발에 나서고 있는데, 최근 방송진출을 앞두고 미디어랩에 대한 전반적인 구조조정을 추진하고 있어서, NIE교재개발과 지원사업의 지속여부는 불분명한 상황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이미 1960년대부터 소년한국일보, 소년조선일보, 소년동아일보, 소년중앙일보 등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신문이 발행되었고, 이러한 신문은 NIE교재로 활용되었다. 전반적으로 NIE의 또 다른 주체인 신문사의 교재개발과 연구지원은 매우 제한적이고 축소지향적인 상황이다. 중앙일보의 경우, 1990년대에 NIE 전문강사를 채용하고 교재개발에 적극적이었으나 최근 들어 자회사로 NIE 부분을 분리하였으며, 이 자회사마저도 논문교육을 위한 교재개발회사로 특화된 상황이다. 현재 나와 있는 NIE를 위한 주요 교재는 다음과 같다.

<표 III-2>

NIE 주요 교재 개요

교재명	저자	발행처	발행연도
신문소프트 500% 신문활용술	강성기	도서출판정보성	1991
신문이 쪽쪽 신문이 쉬워졌어요	허 단	어진소리 민	1997
가정에서의 NIE 영조랑 진영이랑	홍정숙	교육과학사	1998

토론이 된다 논술이 된다 기초편	정선심	사계절출판사	1999
토론이 된다 논술이 된다 원리편	정선심	사계절출판사	1999
바로 적용하는 신문 활용 교육	영남일보교사NIE연구회	대일	1999
NIE 지도전략	오주석, 최상희	대일	1999
사회과 교사를 위한 NIE 신문활용교육	방희원	언문출판사	1999
신문 살아있는 교과서	고승연	중앙M&B	1999
신문으로 공부하자	이정균	도서출판 민	1999
신문으로 공부하는 박세리 성공학	서정득	민미디어	1999
초등학생을 위한 30일간의 신문여행	우동희	민미디어	2000
창의로 가는 유아 NIE 활동	오연주, 이명희, 이수남	다음세대	2000
신문가지고 놀기	공규택	나라말	2000
유아NIE의 이론과 실제	조해숙	양서원	2000
NIE탐구공동체	조성민	교육과학사	2000
신문을 활용한 교과지도 수행평가	권영부	중앙M&B	2000
신문지 창작 환경구성	오미경	양서원	2000
우리가족신문	곽정란	차림	2000
가족신문 만들기	유지은외	창술	2000
유아의 신문활용교육	변종임, 한진숙	정민사	2001
우리 애들 어떻게지요?	황희선	세상의 창	2001
가족환경신문만들기	대한YWCA	창술	2002
신나는 토론 즐거운 논술	정선심	미래 M&B	2002
학습자 중심의 신문활용교육	김두임, 노성향	양서원	2002
신문이 보약이다 1,2	이태중	김영사	2002
신문을 활용한 통합교육의 길라잡이	성태모	도서출판 뽀렐	2003
신문을 이용한 창의성 교육	전경원, 서봉	창지사	2003
인성교육 NIE길머리	이규철	즐거운 학교	2003
희한한 수업	개미동	좋은교사출판사	2003
신문읽기, 세상읽기	이태중	대한교과서	2003
미디어교육길잡이 교사용 4종	한국언론재단	한국언론재단	2003
미디어교육길잡이 초중교용 34종	한국언론재단	한국언론재단	2003
미디어교육교재 3종	한국언론재단	한국언론재단	2003
쉽게 배우는 영상 초중교용 3종	한국언론재단	한국언론재단	2003
신문알기-신문만들기 초중교용 3종	한국언론재단	한국언론재단	2003
신문의 언어문화와 미디어교육	우한용외	서울대 출판부	2003
NIE 이해와 활용	최상희	커뮤니케이션북스	2004
NIE가이드북	한국신문협회	한국신문협회	2004
NIE를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	강석우	커뮤니케이션북스	2004
신문으로 논술 구술 끝내기	매일경제NIE연구회	매일경제신문사	2004
NIE가이드북	한국신문협회	한국신문협회	2004
논문진법 NIE	주장환	일진사	2005
교사 학생을 위한 NIE 기초이론	최종식	니누리	2005
신문활용교육과 논술	정영주	태일사	2006
신문스크랩기술	최상희	넥서스Books	2006
NIE 원론1, 2	이태중	통키	2006
한국의 NIE	한국언론재단	한국언론재단	2006
NIE새롭고 재미있는 창의력 학습	김영미	하우	2006

자신만만 NIE통합논술세트	초등논술아카데미	중앙박스	2007
경제기사와 놀면 논술이 보인다	매일경제NIE팀	매일경제신문사	2007
편편 NIE초등 저학년용, 고학년용	행복한논술 편집부	NIE논술연구소	2008
학부모용 NIE 워크북	한국신문협회	한국신문협회	2008
사회과 교수 학습법	정문성외	교육과학사	2008
교육과정에서 수업까지	최용규외	교육과학사	2008
책 좋아하는 아이 만들기	임성관	시간의 물레	2008
홈스쿨NIE학습법	정문성	파인앤굿	2009
신문을 읽으면 공부가 즐겁다	박상하	스마트 비즈니스	2009
사회과 교수 학습법	정문성외	교육과학사	2009
초등학교 신문활용교육의 실제	김영순외	한국문화사	2010
신문활용교육의 이해와 실천 교사용	한국신문협회	한국신문협회	2010
대학생용 글쓰기 가이드	한국신문협회	한국신문협회	2010
미디어와 사회 - 고등학교용	김영순외	한국언론진흥재단	2010

〈표III-2〉에서와 같이 대다수의 NIE교재는 논술교재가 중심이 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2000년 이후에 나온 교재들은 대학 입학시험에서 논술의 비중이 커지면서 교재의 수도 갑자기 늘어났다. 논술을 대비하여 한국언론진흥재단에서 NIE 교재를 2003년에 집중적으로 발간했고, 신문사 가운데는 중앙일보가 논술을 대비한 교재를 발간했다. 표에서는 집계되지 않았지만, 조선일보도 이때 유치원을 비롯하여 초중고에서 사용할 수 있는 NIE 교재를 다수 출간하여 무료로 지원했다.

한국신문협회가 2000년 이후 발간된 NIE교재를 조사한 결과, 유아를 위한 교재는 8종, 초등학생을 위한 교재는 16종, 중고생을 위한 교재는 14종이었으며, 기타 NIE를 위한 참고교재는 20종이었다. 이 가운데 일부 교재는 지역별로 검정교재로 지정되기도 했지만 정부검정교재를 출판하는 대한교과서 주식회사에서 직접 교재로 발간한 책자는 없었다.

(2) 국내 NIE교재 사례

NIE관련 교재 가운데 정기적으로 내용이 개정된 책자는 한국신문협회에서 발행한 NIE교재와 한국언론진흥재단에서 발간한 미디어교육용 교재이다. 한국신문협회는 협회의 성격상 NIE를 중심으로 교재를 발간했으나, 한국언론진흥재단은 미디어교육 일반에 대한 전체적인 밑그림을 그릴 수 있도록 미디어 이해를 중심으로 교재를 발간했다. 현재 한국언론진흥재단이 출간한 교재는 고등학교용으로 2010년에 발간되었고, 앞으로 초등학교용, 중학교용 교재가 지속적으로 발간될 예정이다.



한국신문협회가 2010년에 새롭게 개정하여 발간한 『신문활용교육의 이해와 실천 - 교사용 NIE가이드』는 NIE한국위원회가 발간주체이며, 집필진으로는 오랫동안 현장에서 NIE를 연구해온 최상희, 구정화, 심옥령 교사가 참여했다.

교재의 내용은 크게 4부로 나뉘어있다. 제1부에서는 NIE가 무엇인지에 대해 이해할 수 있도록 NIE의 의미와 목적, NIE의 필요성에 대해 설명했으며, 이어서 NIE의 효과와 NIE의 유형과 운영방법, 교육과정에서 NIE는 어떻게 강조할 수 있는지, NIE는 다른 수업모형과 어떻게 다른지, 그리고 다른 수업모형과 NIE는 같이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일종의 개론부분은 비교적 쉽게 설명되어 있고, 일선 학교에서 교사들이 직접 활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졌다. 제2부에서는 학습 자료로서 신문에 대한 이해를 수록했다. 신문이란 무엇이며, 신문지면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신문은 어떤 과정으로 나오는지, 뉴스가치는 누가 정하며, 신문 기자는 누구인지, 신문 기사란 무엇이며, 시각적 신문요소란 무엇인지에 대해 논하고 있다.

제3부에서는 NIE수업을 위한 준비과정으로 학습 자료로서 신문을 선정하는 기준과 수업에 사용할 신문 자료를 학생들에게 어떻게 준비시킬 수 있는지, 신문 기사를 준비할 때 반드시 참고해야 할 사항, NIE를 하고 난 후 평가는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신문활용교육의 이해와 실천 - 교사용 NIE가이드』의 일부

(3) 사실과 의견 구별하여 신문 읽기

보도 기사(스트레이트 기사)는 사실 중심으로 작성된다. 사실이나 호재나연과 같은 기사는 사실을 토대로 의견을 밝히는 글이다. 기사 속에서 어느 것이 사실이고 어느 것이 의견인지 구별하여 읽으면 비평적으로 글을 읽게 되어 내용을 파악이 더욱 정확해진다.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의견을 읽으면서 나의 생각을 더욱 확고하게 정할 수 있게 된다.

‘사실과 의견을 구별하는 기사 읽기’를 할 때에는 다음과 같은 단계를 밟아 시도하면 효과적이다.

단계 1 : 학생들이 사실과 허간의 차이점을 알 수 있도록 지도한다.

① 고사는 사실과 재간에 대한 글을 하나씩 읽어준다.

가장 낯선 이웃을 돕는 축구이다

- 한국인 성인 남자 1,000명을 대상으로 7월 중아하는 운동경기¹에 대하여 조사한 결과 축구가 42%로 가장 많았

고, 바꾸가 38%로 나타났다.

② 학생들에게 어느 글이 사실이고 어느 글이 허구인지 물어본다.

● 학생과 교사가 함께 토의한 결과는 사실과 의견의 차이를 잘 표출 정리한다

	사 항	과 건
특징	1.인위적 변화가 없는 자연경관이다	1.경관미적 선명성이 높기때문이다
	2.대부분의 조경은 인공적으로 조성된 것이다	2.대부분의 조경은 인공적으로 조성된 것이다
	3.수변의 경관미적 선명성이 높기때문이다	3.수변의 경관미적 선명성이 높기때문이다
	4.경관미적 선명성이 높기때문이다	4.경관미적 선명성이 높기때문이다

(5) 여러 가지 예시 문장을 통하여 사실인지 의견인지 구별하는 연습을 해본다.

中国 30 年来的发展 ● 中国 30 年来的发展

가. 우리나라는 미스마의 속해 있다.

나. 일본은 우리보다도 노벨상을 한 사람이 더 많다.

다. 무궁화가 국화인 까닭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꽃이기 때문이다.

리. 난쟁이는 숨어 있어서 여름 휴가지로

미 종이의 색은 노랑, 파랑, 빨강 등 여러 가지이지만 사람들이 가장 선호하는 종이의 색은 빨강이다.

⑤ 연습한 결과를 가지고 이 글이 왜 사실이며 의견인지 모든 보기를 통하여 다시 한 번 사실과 의견을 확실하게 구별한다.

지 항목별로 사실이라고 생각하는 이유 또는 그렇지 않은 이유를 위의 표를 참고로 사실과 미진함을 확실하게 구별해 본다.

● 사실 : 가, 나 (구체적이지도 않고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없음)

○ **특정** : 다, 각, 이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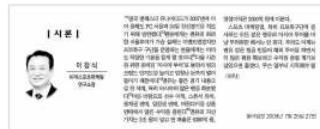
단계 2 : 사실과 의견을 확인하여 구별할 수 있는 기사를 찾아 학생들에게 나누어주고 사실과 의견을 구별하여 읽게 한다.

(1) 2명씩 조를 편성한다.

② 교사가 나누어준 가사를 읽고 사실인 문장은 해당색으로 밑줄을 긋고, 의견인 문장은 빨간색으로 밑줄을 긋게 한다.

⑤ 책자함에 자각의 문헌을 세 '사람' 또는 '이름' 이라고 생각하면 그 이름을 아래 빈칸에 쓰게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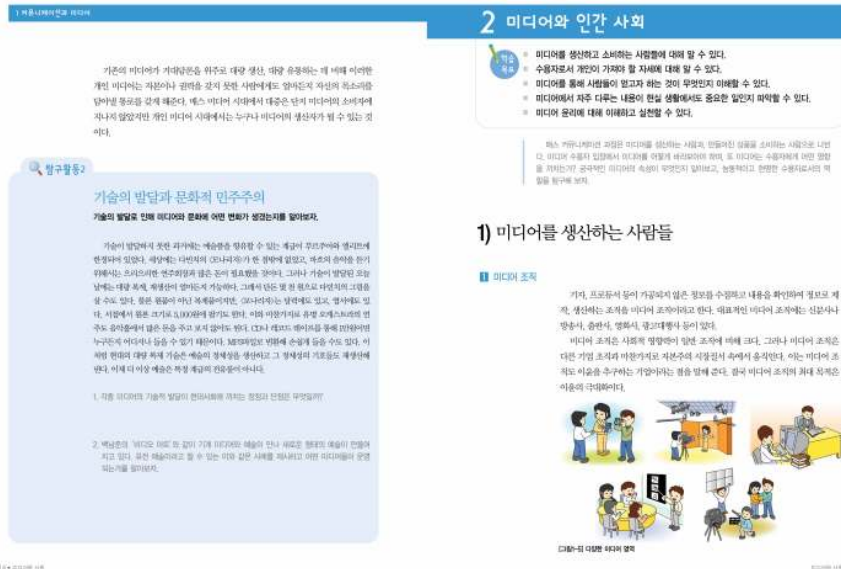
다음 기사를 한 신문과 (사설·칼럼)에 실린 것이다. 사상이나 관념에는 이렇듯 사실을 바탕으로, 자신의 생각
을 쓴다. (1)~(6)까지의 문장 중 사실과 의견을 구별하고 왜 그렇게 생각했는지 적어 보아라. 내용을 쓰지 않는다.



마지막으로 제4부에서는 실제로 NIE를 어떻게 수행해야 하는지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NIE에서 필요로 하는 신문의 이해, 신문 활용을 위한 교재로서 짜임새 있게 구성되었다. 그러나 한국신문협회에서 제작한 교재의 특징은 신문의 비판적인 읽기, 즉 신문비평에 대한 부분이 누락되어 있다. NIE의 4가지 주요 유형에서 신문제작은 별도의 제작가이드를 통해 충분히 습득할 수 있지만, 신문에 대한 비판적인 읽기는 신문교육의 중요한 목적이지만 한국신문협회에서 제작된 교재에는 이러한 부분이 약한 편이다.

〈그림 III-12〉에서와 같이 한국신문협회의 교재의 내용은 주로 종이신문을 가지고 수업시간에 신문읽기와 비평하기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토론교육과 신문제작 등을 할 수 있도록 제작되었다.

반면 한국언론진흥재단이 발간한 『고등학교용 - 미디어와 사회』는 NIE 교재가 아닌 미디어이해를 위한 교재이다. 교재에서는 커뮤니케이션과 미디어의 관계를 설명한 제1장을 제외하고 나머지 6개장은 신문, 사진과 광고, 만화와 애니메이션, 인터넷, 방송, 영화와 대중음악 등 대중매체의 다양한 유형별로 미디어를 이해하고 비판적인 시각에서 인지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다. 언론진흥재단의 교재는 미디어학을 이해할 수 있는 교재로 만들어졌다.



교재의 내용을 살펴보면, 제1장에서 커뮤니케이션과 미디어의 관계를 설명하기 위한 미디어학의 기초적인 지식을 설명하고 있고, 중간 중간 ‘탐구 활동’이라는 별도의 장을 만들어 해당 장의 내용을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신문기사 등 자료를 첨부하고 연구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또한 고등 학생을 대상으로 한 교재라서 각종 삽화와 사진자료를 통해서 내용을 보강했다. 제2장에서는 신문 산업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고, 제3장에서는 사진과 광고 산업에 대해서 다루고 있다. 제4장은 만화와 애니메이션산업을 다루고, 제5장은 인터넷, 제6장은 방송영상산업, 제7장은 영화와 대중음악에 대해 다루었다.

2010년에 출판된 NIE교재는 교육학전공자가 책임 집필을 맡았으며, 공동 필진으로는 미디어학자와 교육학자, 전·현직 교사가 참여했다. 이번에 출판된 『고등학교용 - 미디어와 사회』는 2003년에 한국언론진흥재단이 내놓은 교육교재와 다른 질적이 차이도 있다. 2003년에 발간된 자료들은 대부분 신문을 활용하여 수업하기 위한 보조수단이었다면, 2010년부터 발행되는 교재는 미디어를 독자적인 과목으로 수업할 수 있도록 제작된 특징이 있다. 이번에 발간된 교재는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하고 있지만, 대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입문서로 사용해도 손색이 없을 만큼 잘 짜인 구조와 내용을 담고 있다.

다. 소 결

우리나라 NIE의 시작은 1930년대 동아일보와 조선일보가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지면을 신설하면서 시작되었으며, 1950년대에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신문이 발행되었다. 현재도 소년조선일보, 소년한국일보, 어린이동아, 어린이강원일보, 주니어헤럴드 등 5개가 발간되고 있다. 그러나 본격적인 의미에서 NIE가 시작된 것은 비교적 최근의 일이다. 1985년 한국신문협회는 신문협회보를 통해 NIE라는 용어를 처음 사용했으며, 이후 1995년 중앙일보에서 처음으로 NIE 지면 만들었다. 현재는 대다수의 전국종합일간신문부터 지역종합일간신문, 지역종합주간신문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신문사가 NIE지면을 발행하고 있다. 비록 NIE가 도입된 역사는 짧지만 그동안 NIE와 관련하여 꾸준한 성과가 있었다. 한국신문협회가 2004년 9월에 전국 초·중고 교사 2,24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NIE 실태조사에 따르면, 83.2%의 교사들이 NIE를 인지하고 있으며, 60.3%가 NIE를 활용해본 경험이 있고, NIE를 해보겠다는 의사를 밝힌 비율도 88.7%에 달했다(정문성외, 2004).

이제 NIE는 반드시 필요한 것으로 인식했다.우리나라에서 NIE교재개발은 교육기관보다는 주로 미디어와 관련된 유관기관을 중심으로 이루어진다. 한국신문협회는 정기적으로 NIE교재를 개발하여 교사용과 학생용을 각 급 학교에 보급하고 있으며, 정기적으로 해외의 우수한 NIE사례를 연구하고 있다. 한국신문협회는 한국신문발행인협회가 주축이 되어 설립했으며, 전체 한국일간신문의 이해관계를 대변하는 자율기구이다. 한국신문협회와 더불어 주요한 교재개발 주체는 한국언론진흥재단이다. 문화체육관광부의 산하기관인 한국언론진흥재단은 신문 산업 진흥과 신문읽기, 쓰기문화의 보급을 목적으로 2000년대 초부터 NIE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1차적으로 2003년에 초·중고생을 위한 교재를 개발하였으며, 이후 이 교재를 이용하여 수업을 진행하는 교사들을 위한 연수와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NIE관련 교재 가운데 정기적으로 내용이 개정된 책자는 한국신문협회에서 발행한 NIE교재와 한국언론진흥재단에서 발간한 미디어교육용 교재이다. 한국신문협회는 협회의 성격상 NIE를 중심으로 교재를 발간했으나, 한국언론진흥재단은 미디어교육 일반에 대한 전체적인 밑그림을 그릴 수 있도록 미디어 이해를 중심으로 교재를 발간했다. 현재 한국언론진흥재단이 출간한 교재는 고등학교용으로 2010년에 발간되었고, 앞으로 초등학교용, 중학교용 교재가 지속적으로 발간될 예정이다.

NIE를 위한 교재는 주로 초등교육을 위한 교재를 중심으로 제작되었으며, 종합적인 NIE활용교육 교재보다는 논술을 위한 보조교재에 머무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선학교에서 NIE를 실시하는 교사들을 중심으로 바람직한 NIE교재 개발을 위한 연구가 지속되고 있다. NIE교재 개발을 위해서 한국신문협회와 한국언론진흥재단이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특히 한국언론진흥재단은 지역별로 NIE를 위한 전문교사를 파견하고 있다. 또한 한국언론진흥재단은 국내 연구기관 가운데 유일하게 교사들을 대상으로 NIE를 위한 상설 전문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한국신문협회가 2000년 이후 발간된 NIE교재를 조사한 결과, 유아를 위한 교재는 8종, 초등학생을 위한 교재는 16종, 중고생을 위한 교재는 14종이었으며, 기타 NIE를 위한 참고교재는 20종이었다. 이 가운데 일부 교재는 지역별로 검정교재로 지정되기도 했지만 교과용도서를 출판하는 발행사에서 직접 교재로 발간한 책자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2. NIE 교육전문가 인터뷰

NIE교재개발을 위해 NIE 교육현장에서 활동하는 전문가 5인과 인터뷰를 했다. 인터뷰에 응해준 전문가들의 프로필은 다음과 같다.

- o A씨 : 교육학 석사로 일간신문의 NIE 교육부서에서 근무하다가 현재는 NIE 전문강사로 활동 중이다. 교육경력은 15년이다.
- o B씨 : 언론학석사로 교과서 출판 관련 정부기관에서 근무하고 있다. 근무 경력은 30년이다.
- o C씨 : 언론학석사로 연구기관에서 NIE를 담당하는 실무책임자로 근무하고 있다. 근무경력은 25년이다.
- o D씨 : 언론학박사로 미디어교육 전문가이다. 교육경력은 10년이다.
- o E씨 : 주부로 대학졸업이후 교사로 잠시 근무했고, 현재는 초등학교 학부 모대표로 활동하면서 학생신문제작을 지도하고 있다.

전문가인터뷰는 1:1 형식으로 실시하였고, 불가피한 경우에만 자기기입식으로 작성하여 추후 전자통신을 통해 수령하였다. 이 경우에도 설문조사 응답자가 직접 작성하였는지를 알기 위해, 유선 또는 방문을 통해 응답여부를 확인하였다. 전문가인터뷰는 2010년10월4일부터 10월15일 사이에 실시했다. 인터뷰시간은 한 사람당 1~2시간정도가 소요되었다. 심층인터뷰는 설문조사 결과를 분석한 결과, 부족했던 행태적 특징을 파악하기 위해서 준비된 설문문항을 제시하고, 상대방이 자유롭게 답변하고 추가 질문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가. NIE를 통한 학교교육과 사회교육에서의 차이점

NIE를 활용하여 실시하는 학교교육과 사회교육의 차이점에 대해서 응답자들은 학교교육의 목표는 인성교육과 지성교육을 모두 실시하며, 이러한 의미에서 일반적인 언론사의 NIE지면이나 어린이신문, 사회단체의 NIE비판교육과는 차별되어야 한다고 응답했다. 학교에서 실시하는 NIE는 크게 일반교과목의 신문 활용 교육, 미디어이해와 비평, 신문제작교육 등으로 분류할 수 있지만, 가장 집중해야 할 부분은 역시 미디어에 대한 이해라는 의견

이었다.

“학교교육으로서 NIE가 가장 먼저 집중돼야 할 분야는 미디어 이해와 비평 부분이다. 미디어 이해와 비평 교육은 현재 미디어 홍수 속에 빠져있는 학생들에게 가장 시급하고 필요한 교육이다. NIE의 다른 분야인 신문 활용 교육이나 신문제작측면에서도 미디어의 하나인 신문을 교재로 사용하는 만큼 교재의 특성을 제대로 파악하고 바로 보는 것을 가르치는 것이 무엇보다 우선되어야 한다(A씨).”

“우리나라 학교교육에서 NIE는 사실은 큰 비중을 차지하지 않는다. 학교에서는 부담스러워한다. 학교에서 NIE를 실시하는 이유는 비판적인 시각을 키우기 위해서이다. 그런데 적당한 교재를 찾기가 어렵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교육당국과 언론계, 그리고 언론연구기관이 공조할 필요가 있다(D씨).”

“아이들과 함께 어린이지역신문을 만들지만, 학교에서 미디어를 이해할 수 있는 교육을 담당하는 전담교사가 없다. 선생님들도 최선을 다하지만 학교교육은 입시교육에 무게를 두고 있어서 학부모들이 직접 나서게 되었다. 그래서 지역신문과 공동으로 이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하지만 학교에서 비판적인 미디어이해를 가르친다면 더 큰 효과가 있을 것이다(E씨).”

응답자들은 미디어교육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비판교육이며, 이러한 비판교육은 학교교육의 중추적 역할을 하는 교사를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았다.

나. 현행 NIE의 제도적 문제점

국내 NIE는 주로 신문 활용 교육에 중심을 두고 있다. 신문지원정책의 하나로 언급되고 있는 신문구독료지원도 학교교육의 질적인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경영위기에 있는 신문사를 지원하기 위한 경제적 목적이 더 크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미디어이해와 비평은 신문 활용 교육을 통해 부가적으로 교육하는 정도이다. NIE를 하는 주체는 일선 교사인데, 최

근에는 신문사에서 직접 교재를 개발하여 지원하기도 한다. 그러나 신문사의 NIE교재는 신문관측을 목적으로 입시와 과외를 보완하거나 지원하는 수준에 머물러 있다. 신문 활용 교육이 학교교육에서 현실적으로 도움이 되는지에 대해서 NIE나 미디어교육은 도움이 되지만, 교사를 통해 제대로 수행되지는 못하고 있다는 응답이 있었다.

“NIE의 교육적 효과에 대해서는 여러 방면에서 입증된 바 있다. 실제 NIE가 수업에 활력을 불어넣고, 교과내용을 심화하는데 도움이 되며 진로 등의 특정 목표를 갖고 진행하는 경우 다른 방식의 교육에 비해 그 교육적 효과가 높다는 평가가 많다. 그러나 현장에서의 NIE는 학교나 담당 교사에 따라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많은 학교에서 NIE가 연구결과처럼 그렇게 효과적으로 진행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내가 본 NIE의 학교교육 기여도는 미비한 수준이다. 그 효과도 일부 특정 교사를 제외하고는 인지할 수준이 되지 못한다. NIE라고는 하나 학교 교과과정에서 시행되는 수준은 교과와 관련된 신문 기사를 제공하는 정도에 그치는 경우가 많다. 논술이나 글쓰기·재량활동 등으로 활용되는 경우(한국언론진흥재단 지원 수업 포함) 이보다 더 높은 수준의 NIE가 이뤄지고는 있으나 일부 특정 학생들만을 대상으로 한 경우가 많고 수업 특성이나 학생 수준에 맞춘 적당한 교재가 없어 체계화된 수업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오래전부터 사회과 교사들을 중심으로 NIE프로그램을 만들고, 수행평가 등에 NIE수업을 이용하는 움직임이 일고 있기는 하지만 이 또한 NIE를 하는 교사들의 NIE 이해도나 활용능력에서 많은 차이가 있어 적용 효과에서도 큰 격차를 보이고 있다. 또한 현실적으로 NIE를 위한 신문 확보가 어렵고, 자체 교재 개발이 어려우며, 학교 수업이 교과 과정에 맞춰 진행되기 때문에 그때그때 시의적인 주제를 활용할 수 없고, 적절한 평가방법이 없어 지속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이 불가능한 것도 학교에서의 NIE가 학교교육에 제대로 시행되지 못하는 이유이다(A씨).”

“NIE는 일정하게 효과를 발휘하고 있다. NIE수업을 받은 학생들의 글쓰기와 이해능력은 분명 높게 나타난다. 그러나 현재 여러 기관에서 NIE를 지원하고 있고, 특히 한국언론진흥재단은 전국 주요 대도시에 있는 지역사무소에서 NIE강사를 일선 학교에 직접 파견하고 있지만,

강사의 수준이 낮은 게 문제다. 제대로 된 검정교과서도 없고, NIE강사 섭외를 전문정보다는 전직언론인에 대한 예우차원에서 하는 경우도 많다. 최선을 다해서 가르치는 젊은 NIE강사들이 있는가하면, 자기의 신문사경험만 늘어놓는 전직 언론인들도 있다. 예전에 논의되었던 전문 미디어교육사가 도입될 필요가 있다. 학교교육의 특징은 전인교육 아닌가? 전문적인 교사로 미디어교육사를 배출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들이 사용할 교재도 개발되어야 한다(B씨).”

학교에서의 NIE는 실용적이지만, 교육을 담당하는 강사들의 수준이 큰 차이가 있고, 전문성이 부족한 경우가 있었다는 지적이다. 교육주체로서 전문교사와 NIE강사의 양성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다. NIE교재의 필요성

NIE수업에서 사용되는 교재와 관련하여 응답자들은 한국신문협회, 한국언론진흥재단, 각 신문사, 독서 및 논술 관련 업체들, NIE 교사연구회를 포함한 각종 NIE 단체에서 수십 종의 NIE교재를 발행하고 있고, 새로운 교재도 등장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검정교과서로 사용하기에는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대다수의 교재가 일관된 체계 없이 특정 주제 활용 사례나 일반적인 워크북 형태로 구성돼 있다. 활용된 기사가 오래된 경우가 많아 학생들에게 흥미를 불러일으키지 못하고, NIE의 장점인 시의성도 살리지 못하며 그 주제와 내용면에서도 한정돼있어 현장에서의 다양한 요구를 수용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형편이다. 산발적인 구성도 문제이다. 특히 미디어 이해 및 비평 부분에 대해서는 거의 전무한 상태이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실질적이고 체계적이며 지속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교재개발과 NIE전문가로서의 교사교육이 필요하다. 현재 분산돼 있는 NIE 교육기관들과 교육전문가, 교육현장을 반영할 수 있는 현직 교사-NIE전문가 등의 연합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이 네트워크를 통한 교육현장에서 교육계와 현장 교사들의 요구를 정확히 반영한 교재개발이 필요하다. 교육현장에서의 원활한 활용을 위해 NIE관련 교사 연수도 좀 더 전문화되고 구체화되어야 한다. 현재는 전문가가 만족하는

NIE교사교육이 더 많다(A씨).”

“신문사에서 제공하는 교재는 자사를 알리는데 더 큰 목적이 있는 듯하다. 그리고 일선학교의 교사들은 신문사에서 제공한 NIE교재가 조금이라도 정치적으로 편향되었다고 판단되면 아예 사용하지 않고 있다. 어린이신문 구독률도 최근 들어 급격히 떨어지고 있지 않은가? 좀 더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교재 발간이 필요하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는 교과서검증을 담당하는 기관이 인적네트워크를 구축하여, 교재를 개발할 필요가 있다(C씨).”

“미국이나 유럽에서도 NIE교재는 이제 미디어 리터러시의 일부분이 되었다. 종이신문만으로는 안 된다. 동영상과 인터넷이 같이 갈 수 있도록 교재가 개발되어야 한다. 학생들은 이미 모바일세대로 편입되고 있는데, 교재는 여전히 진부한 수준을 넘어서지 못하면 효율적인 교육이 될 수 없다. NIE교재는 ‘미디어의 이해’와 같은 원론적인 부분을 제외하면, 지속적으로 내용보완이 필요하다. 검정교과서 가운데 사회과목의 경우에도 매년 조금씩 내용이 바뀌지 않는가? 그런데 왜 사회과목보다 더 시의성을 띄는 신문을 다루는 NIE교재는 7년, 10년 전 것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는지 모르겠다. 현재와 같이 여러 기관이 경쟁하는 관계가 아니라 협력하여 네트워크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B씨).”

“신문사에서 발행되는 교재는 검정교육용으로 부적절한 부분이 많다. 특정 신문사 기사 위주로 구성돼 있어 학생들이 미디어에 대한 폭넓은 시각을 갖게 하는데 문제가 많기 때문이다. 각 신문사마다 신문사의 색깔이 분명하고, NIE에 관여하는 전문가 층이 한정돼 있어 교재에서 집중하거나 다루는 방식이 특정화돼 있는 것도 문제이다. 그래서 교육당국과 언론연구기관, 신문협회가 공동의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학교교육에 적당한 교재를 개발할 필요가 있다(D씨).”

현행 NIE교재에 대해서 응답자의 대다수는 문제가 있다고 보았다. 특히 체계성이나 중립성 전문성이 떨어진다는 의견이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관련 교육당국, 언론관련 연구기관, 신문협회, 교사단체 등이 협력하여 학교교육에 적당한 교재개발 네트워크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 또한 지속적으로 개정되어야 하는 NIE교재 개발을 위한 연구와 발간도 필요하다는 입장이었다.

라. 검정교과서로서의 NIE교재의 내용

만일 NIE수업에 사용될 교재를 검정교과서로 제작한다면, 어떠한 내용을 담아야하는지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응답이 있었다.

“NIE교재는 단계별로 개발되어야 한다. 우선 첫 단계는 미디어 이해와 비평에 관한 내용을 중심으로 한 교재이다. 신문매체의 특성 및 구성요소별 특징, 제작과정의 이해, 비판적으로 신문 읽기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두 번째 단계는 NIE활용 관련 교재이다. 주제별로 나눠 사회 이해 교육, 진로와 창의성, 바른 사회 만들기 등의 내용이 포함되었으면 좋겠다. 현장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의견을 제시한다면 NIE는 기사를 삽입한 워크지 형태보다는 학생들이 신문을 직접 탐색하면서 하는 활동이 훨씬 효과적이다. 주제 중심으로 진행하는 경우는 어렵더라도 미디어 이해나 비평 부분에서는 직접 ON-OFF line 신문을 활용할 수 있도록 구성되었으면 좋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신문사와 신문 관련 단체(한국신문협회와 한국언론진흥재단, 한국교과서연구재단)의 지원이 필요하다(A씨).”

“현재 언론진흥재단에서는 미디어교육에 대해 별도의 연구팀을 운영 중이다. 중점적인 운영방안은 신문읽기와 창의적 글쓰기 이다. 이미 교사용 지도안과 학생용 교재를 개발했다. 모든 교재는 인터넷사이트 www.forme.or.kr에서 직접 내려 받을 수 있다. 이 사이트에는 미디어교육이 처음 시작되었을 때부터 현재까지의 모든 교재와 수업교안을 올려 놓았다. 앞으로 온라인으로 이러한 교재문제를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B씨).”

“NIE교재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 미디어의 이해, NIE활용교육, 신문만들기 등이다. 이 세 가지는 단순히 신문에 대한 이해에 한정할 필요는 없다. 더 적극적으로 온라인과 오프라인, 글과 영상이 함께 제공되는 교육이 가능하도록 교재가 개발되었으면 한다. 현재는 제한된 의미에

서만 NIE교재가 제공되고 있다(D씨).”

NIE교재의 경우 미디어의 이해, NIE활용교육, 신문제작을 종이신문과 온라인신문으로 할 수 있도록 교재를 개발할 필요가 있고, 이러한 교재개발을 위해신문사와 관련연구재단의 협력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았다. 특히 일선에서 NIE수업을 담당하는 교사들은 종이신문을 구하는데 어려움을 겪는데, 온라인 접속을 통해서 PDF신문을 이용하려고 해도 비용이 문제가 된다는 입장이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신문사를 대표하는 한국신문협회와 연구기관들이 공동으로 협력하여 NIE교재개발과 교사를 위한 온라인신문 접근권 보장 등의 지원 장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었다.

마. 신문만들기 교육

NIE의 일환으로 실시되는 신문제작교육의 효율성에 대해서 필요성은 있지만 잘 안 된다는 입장이었다. 학교에서 주로 제작하는 신문은 우리 가족 신문 만들기와 같은 간단한 방식이 대부분이 이고, 전문적인 신문제작은 드물다고 했다. 대표적으로 경기도 평택시 포승읍의 ‘푸른바다 포승신문’ 어린이기자단과 경기도 시흥시의 ‘마을신문 자연’의 어린이기자단과 같이 지역주간신문의 지원을 받아서 어린이기자단이 직접 신문을 제작하는 경우는 드물었다. 과거의 NIE신문제작이 일간신문사의 어린이신문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면, 이제는 학생들이 직접 만드는 어린이&청소년신문으로 전환되고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활성화는 되지 않고 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응답자들은 다음과 같은 의견을 제시했다.

“신문제작은 많은 시간과 비용,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 작업이다. 그런 면에서 어린이/청소년 신문제작이 활성화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이를 적극적으로 주도할 전문 단체와 프로그램이 없기 때문이다. 신문사에서 운영하는 어린이 기자단조차도 전문적인 교육이나 진행 프로그램 없이 학생들이 보낸 기사를 편집해서 어린이 신문 지면의 일부에 게재하는 수준이다. 한국언론진흥재단에서 지원하는 신문제작교육도 학교 교지 제작이나 체험활동 수준으로만 운영되고 있다. 신문제작교육이 이렇게 운영되는 이유에는 신문을 보는 계층이 축소되고 모든 교육이 입시 위주로 이뤄지는 현 교육 환경에도 그 원인이 있다. 사회

전체적으로 신문에 대한 관심이 줄어들고 방송과 인터넷의 발달로 학생들이 신문을 접할 기회가 감소하면서 실제 신문사나 신문 관련 업체들도 어린이/청소년 신문제작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이로 인해 막대한 비용과 시간이 드는 이 일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있다. 개인적으로 어린이/청소년 신문제작은 교육당국이 주도하고 신문사와 관련 단체가 기술 및 장비, 교육 등을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생각한다(A씨).”

“우리 지역에서는 초등학생들이 어린이기자단을 만들어서 신문을 제작하고 있다. 지역주간신문이 적극적으로 도와주고 있지만, 편집과 제작을 도와주고 있다. 가능하다면 지역별로 신문사가 기사쓰기교육, 편집과 제작을 도와준다면 어린이기자단의 활동이 매우 적극적일 것이다. 또한 종이신문뿐만 아니라 온라인 신문 제작도 도와준다면 더 활성화될 것으로 보인다. 현실적으로 비용의 문제가 발생한다. 이러한 문제는 한국언론진흥재단이나 교육당국에서 지원할 수 있지 않을까 한다. 우리지역의 어린이신문도 처음 출발이 어려웠지 지금은 매우 활성화되어 있다(E씨).”

신문제작은 학생들이 NIE를 통해 배운 내용을 직접 실현할 수 있는 교육이지만 현실적으로 많은 제약이 있었다. 그래서 신문제작교육은 신문사의 적극적인 편집기술 및 제작지원과 교육당국의 예산지원이 필요한 사항이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의 신문사와 지원기관의 교육지원은 부족한 상황이었다.

“현재 신문사에서 신문제작교육을 직접 지원하는 경우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 미리 예약한 소수 인원(30명 내외)을 대상으로 신문사 견학프로그램 정도만을 시행하고 있다. 평일이나 학교 안가는 토요일에 4시간~8시간의 일회성 프로그램으로 진행되며 신문에 대한 대략적 이해와 제작과정에 따른 신문사 견학 정도로 운영된다. 동아일보와 조선일보는 자체 체험학습관인 신문박물관과 미디어랩을 중심으로 이뤄지며 중앙일보의 신문사 편집 프로그램을 이용한 신문지면 만들기 체험도 가능하다. 모든 프로그램이 신문에 대한 이해와 호기심을 증대시키는 데는 도움이 되지만 구체적으로 신문제작의 전문적 내용을 습득하기에는 시간과 내

용 모든 면에서 부족한 점이 많다. 또 중앙일보와 동아일보, 조선일보 모두 어린이 또는 학생 기자단을 운영하고는 있지만 기사 작성이나 취재, 편집 등의 신문제작 실무에 대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교육은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다. online과 offline으로 제작 이론을 제공하는 정도이고 취재 지원도 거의 이뤄지지 않는다. 지역 신문사의 경우는 더 열악한 상황이다. 한국언론진흥재단에서는 1년 프로그램으로 미디어 강사가 직접 학교에 파견되어 학교 교지 제작을 지원하는 신문제작지원 사업과 학교의 참여 신청을 받아 20~40명가량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신문지면 편집 프로그램을 이용한 일일 신문제작 체험 교육을 시행하고 있다. 프로그램은 학생들이 실제 당일 취재와 기사작성, 편집과 인쇄의 모든 과정을 거쳐 1~2개 지면을 만들어볼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다. 과거에는 신문제작체험 교육을 신청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제작체험교육 참가 전에 신문제작관련 다양한 기사 쓰기 등을 학습할 수 있는 온라인 학습을 제공했으나 현재는 중지된 상태이다.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하다(A씨).”

“중앙일간지는 자체적으로 어린이신문을 발행하고 있어서 신문제작실습교육이나 지속적인 지원에 관심이 없다. 오히려 학부모를 상대로 독자배가를 희망하는 지역신문의 지원이 더 활발한 편이다. 지역신문의 역우에 열정도 더 있는 편이다. 지금까지의 경험으로 봐서 지역신문발전기금과 같은 정부지원프로그램에 어린이신문 제작을 위한 지원제도를 도입하면 좋을듯하다. 그것도 전국일간지의 어린이신문 판매수익을 올려주는 수단이 아니라 지역별로 어린이신문실습을 지원하는 신문사에 지원하는 제도를 도입하면 좋겠다(E씨).”

학교에서 신문제작교육이 원활히 이루어지기 위해 신문사, 교육당국, 기타 지원기관이 해야 할 과제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의견이 있었다.

“신문제작교육이 원활히 이뤄지기 위해서는 신문사, 교육당국, 기타 지원기관 사이의 유기적인 협조체제가 이뤄져야 한다. 신문제작교육의 경우 교육과 제작으로 양분화 돼 이뤄지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라 생각한다. 이런 관점에서 신문사와 교육당국을 연결할 수 있는 지원기관이 어린이/청소년 신문제작을 위한 체계적인 신문제작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해야 한다. 교육당국은 신문제작에 학교와 학생들의 참여를 적극 유도하고 학교

에서 지역으로 신문제작이 확산될 수 있도록 학교 내에서의 교지 제작 등을 적극 지원하며 그를 위한 충분한 예산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 신문사는 실제 신문제작에 필요한 기술과 장비 지원을 적극적으로 검토, 시행해야 한다(A씨).”

“한국의 NIE방향성을 제시한다면 중요한 정책적 방향성이 적다는 것이다. 과연 NIE에서 'N'이 초점인지, 'E'가 초점인지 명확하지 않다. 사실 학교교육으로서의 NIE는 인성교육 중심이기 때문에 'E'중심이 맞다. 그러나 아직까지 이러한 중심과제에 대한 인식이 제대로 정착되어 있지 못하다. 신문이 교육적 소재인데, 이 소재를 학습 보조 자료로 쓸 것인가 아니면 확장시켜서 학생들의 창의적 시각을 글쓰기로 연결할 것인가가 중요하다. 미국은 'N'중심으로 학생들에게 교육을 한다. 예를 들어 서평 쓰기의 경우, 학생에게 “내가 읽은 책을 소개하고, 친구가 읽게 되면 관심을 끌 수 있도록 써보라”고 요구한다. 그리고 서평의 구성요소, 이 요소에 맞춰서 써야할 Keyword등을 제시한다. 비슷한 방식으로 자사의 칼럼이나 문화면 기사를 따라 쓰거나 배우게 만들어서 미래의 독자로 육성하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는 주로 보조 자료로만 사용한다. NIE가 곧 신문의 새로운 독자로 연계되지는 않는다는 것이다(B씨).”

“교육당국과 신문협회, 연구기관 혹은 지원기관의 상호 협력이 필요하다. 지금까지는 이러한 네트워크가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C씨).”

응답자들이 NIE의 3가지 축으로 표현한 미디어의 이해와 신문 활용 교육, 신문 만들기가 원활히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관련기관과 단체의 협력네트워크가 반드시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바. NIE를 위한 협력네트워크

NIE의 주체는 ‘학교-신문사-정부’이다. 학교는 학생들에게 직접적으로 NIE를 활용한 교육을 하는 기관이고, 신문사는 미래의 독자를 확보하기 위해 투자해야할 업계의 당사자이고, 정부는 신문 산업 진흥과 학교교육을 모두 진흥하고 육성해야할 정책주체이다. 이들이 말아야 할 각자의 역할에 대해서 응답자들은 다음과 같은 의견을 제시했다.

“학교의 경우 학교나 교사 나름대로 교육방향에 맞춘 자체 NIE프로그램을 진행하고는 있으나 미흡한 수준이다. NIE에 관심은 많으나 정보 부족으로 시행하지 못하는 학교나 교사도 많다. NIE에 대한 교사의 전문성 확보와 체계적인 프로그램 마련이 시급하다. 신문사의 경우는 미래의 독자 확보를 위해 투자해야할 당사자이기는 하지만 신문업계의 열악한 환경과 학교와의 연계 방법 부재, NIE에 대한 이해 부족 등으로 인해 적극적인 투자가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정부는 정책주체로서 소외계층 신문구독료 지원, NIE 수업 지원, 신문 제작 체험 교육, 미디어교육 관련 교사연수 등의 사업을 진행하고 있지만 예산의 범위가 좁아 제한된 대상에게만 교육혜택을 주고 있어 NIE활성화에는 역부족이다. 또한 현행 NIE의 가장 큰 문제점 가운데 하나는 학교와 신문사, 정부사이에 유기적인 협력관계가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데 있다. NIE의 저변 확대를 위해 정부는 학교와 신문사, 정부 지원기관 사이의 유기적 네트워크 구축과 신문사와 학교를 대상으로 한 NIE이해교육 프로그램 운영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A씨).”

“우리나라에서 NIE가 시작된 것은 불과 20년 정도이다. 그런데 이제는 NIE보다는 미디어 리터러시에 대해 더 많은 관심을 갖는다. 특히 신문기업에 구체적으로 도움을 주는 방향에서 NIE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논리가 많다. 그러나 NIE는 어쩌면 미디어 리터러시가 성공하기 위한 기초일지도 모른다. NIE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서는 협력 거버넌스가 필요하다. 문제는 누가 주도권을 쥐느냐를 두고 또 경쟁할 수 밖에 없는 구조가 아닌가 한다(D씨).”

효율적인 NIE와 교재개발을 위해서는 교육의 당사자인 학교와 정부, 연구기관이 상호 공조할 수 있는 네트워크가 필요하며, 이러한 네트워크를 통해서 NIE를 정규 학교교육의 일부로 발전시킬 수 있을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특히 NIE에서 ‘E(교육)’보다는 ‘N(신문)’에 무게중심을 둔 신문협회와 신문사들의 정치적 경제적 이해관계로부터 독립한 학교교육을 위한 교육목표도 반드시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사. 소 결

현장에서 활동하는 NIE전문가 인터뷰 결과 다음과 같은 NIE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이 제시되었다.

첫째, 학교교육으로서 NIE가 가장 먼저 집중돼야 할 분야는 미디어 이해와 비평 부분이다. NIE의 다른 분야인 신문 활용 교육이나 신문제작측면에서도 미디어의 하나인 신문을 교재로 사용하는 만큼 교재의 특성을 제대로 파악하고 바로 보는 것을 가르치는 것이 무엇보다 우선되어야 한다.

둘째, NIE를 실시하는 주체인 교육당국의 교육목표와 방향성이 부재하다. NIE에 대한 관심은 많지만 효율적인 지원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각 급 학교의 NIE의 수준은 교과와 관련된 신문 기사를 제공하는 정도이다. 논술이나 글쓰기·재량활동 등으로 NIE가 변질된 경우도 있었다.

셋째, NIE교재는 대다수가 일관된 체계 없이 특정 주제 활용 사례나 일반적인 워크북 형태로 구성돼 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실질적이고 체계적이며 지속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교재개발과 NIE전문가로서의 교사교육이 필요하다.

넷째, NIE수업에 사용될 교재를 검정교과서를 제작한다면 미디어 이해와 비평, NIE활용 교재가 필요하고, 현장에서 online과 offline에서 신문을 제작할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NIE의 일환으로 실시되는 신문제작교육은 많은 시간과 비용, 전문성이 필요하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학교교육에서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 신문제작교육이 원활히 이뤄지기 위해서는 신문사, 교육당국, 기타 지원기관 사이의 유기적인 협조체제가 이뤄져야 한다. 교육당국은 신문제작에 학교와 학생들의 참여를 적극 유도하고 학교에서 지역으로 신문제작이 확산될 수 있도록 학교 내에서의 교지 제작 등을 적극 지원하며 그를 위한 충분한 예산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

여섯째, 한국의 NIE에서 'N'이 초점인지, 'E'가 초점인지 명확하지 않다. 학교교육으로서의 NIE는 인성교육 중심이기 때문에 'E'중심이 맞다. 그러나 아직까지 이러한 중심과제에 대한 인식이 제대로 정착되어 있지 못하다.

일곱째, NIE의 주체는 '학교-신문사-정부'이다. 학교는 학생들에게 직접적으로 NIE를 활용한 교육을 하는 기관이고, 신문사는 미래의 독자를 확보하기 위해 투자해야 할 업계의 당사자이고, 정부는 신문 산업 진흥과 학교교육을 모두 진흥하고 육성해야 한다.

3. 해외의 NIE

가. 미국의 NIE

미국은 NIE운동의 발상지로 1930년대 뉴욕타임스(www.nytimes.com)가 교실에 신문을 정기적으로 배포하면서 신문을 활용한 교육이 시작되었다. 뉴욕타임스가 학교에 신문을 배포한 것은 당시 뉴욕시 학교의 사회과 교사들이 시사 교육에 활용하기 위해 신문을 요청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NIE운동이 미국 곳곳으로 확산된 것은 1955년부터였다.

아이오와주의 지방 신문인 데모인 레지스터(www.desmoinesregister.com)에서 중·고교생 5,500명을 대상으로 ‘문자 접촉 빈도 조사’를 했는데, 조사대상자의 40%가 “교실 밖에서는 전혀 문자를 접하지 않는다.”는 충격적인 결과가 나왔다. 그만큼 NIE가 학생들에게 얼마나 많은 영향을 끼치는지를 대변한다. 이에 레지스터는 미국교육협회와 공동으로 NIC(Newspaper In Classroom) 운동을 펼쳤다. 1950년대 후반부터는 미국 전역의 교육단체들이 동참했으며, 1960년대에는 NIC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신문들의 수가 급증했다. 데모인레지스터가 미국교육협회와 공동으로 시작한 NIC는 NIE의 전신이다.

미국신문발행인협회의 적극적인 후원에 힘입어 NIC 프로그램은 1960년대 전국에 걸쳐 계속해서 채택되어 일선 교육관계자들의 많은 호응을 얻었다. 이후 NIC는 1976년부터 NIE(신문 활용 교육)로 한 걸음 더 나아갔다. 신문을 활용한 교육프로그램에 'NIE' 이라는 새로운 명칭을 붙여 준 것은 캐나다 일간신문발행인협회였다. 신문의 교육적인 활용방법이 전통적인 학교교육의 범주를 넘어서 일반 사회단체나 연구기관에 까지 폭넓게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는 필요성을 인식한 것이다. 미국신문발행인협회(ANPA) 재단에서도 1976년부터 이를 그대로 따라 'NIE' 라는 명칭을 사용하게 되었다.

미국은 현재 전국 1,500개 신문사 가운데 700개사가 NIE를 추진하고 있으며 초·중·고등학교를 합쳐 67,000개의 학교가 NIE 수업을 실시하고 있다. 미국신문협회(NAA)는 교사를 대상으로 하는 전국 규모의 NIE연수회를 개최하고 있으며, 신문사들은 협회가 제공하는 NIE 매뉴얼을 기초로 독자적으로 NIE용 교재를 제작해 각 급 학교에 배포하고 있다.

NIE를 실시하고 있는 700개사에는 적어도 1~2명, 주요 신문사의 경우는 10명 이상의 NIE 코디네이터가 있다. 코디네이터는 전직 교사나 고등학교

교사 자격을 갖고 있으며 정기적으로 신문사가 소재한 지역의 초·중·고를 방문한다. 코디네이터는 NIE 담당교사를 지도하기도 하고 때로는 신문을 교재로 아이들을 직접 지도하기도 한다. NIE 담당교사들은 의욕적으로 NIE를 시행하고 있으며, 어떤 교사들은 국어(영어), 산수, 사회, 미술 등 13개 교과 전부를 신문 기사를 기초로 가르칠 정도로 활용도가 높다.

코디네이터는 학교를 방문할 때, '어떤 보조 교재가 필요한가'를 타진한 후 학교 측 요구에 맞춰 특집판을 따로 제작, 배달하고 있다. 올림픽, 우주개발, 대통령제, 그 지역 출신 위인들의 전기, 합중국 50개주나 세계 각국의 지리 등 다양한 테마로 구성돼 있으며 그 가운데에는 일반인에게도 배포, 통용되는 특집판도 있다(<http://www.presskorea.or.kr/>).

나. 일본의 NIE

일본신문협회는 학생들의 문자이탈현상과 독서기피현상에 제동을 걸고 활자 문화에 익숙해지도록 하기 위해 미국과 유럽 여러 나라에서 시행하고 있는 NIE 운동을 도입했다. 일본신문협회는 1986년부터 1988년에 걸친 해외 NIE 시찰을 통해 NIE 운동의 교육 효과가 높은 것을 확인하고 1992년 2월 NIE 위원회를 신설했다.

일본의 NIE위원회는 도쿄 내의 초등학교 1개교, 중학교 2개교를 대상으로 NIE 파일럿 계획을 시작했다. 이러한 흐름에 맞춰 47개 지역에서 NIE 추진 조직이 잇따라 결성됐다. 각 지역 추진 조직은 그 지역 내 희망학교를 모집해 NIE 위원회의 인정을 받아 실천학교를 결정, 신문을 제공하는 사업이 활발히 진행되었다.

이후 일본신문협회는 'NIE 기금'을 발족시키고 그 운용 이익으로 '신문 제공 사업'과 '연구·PR사업'을 적극적으로 전개했다. NIE 기금 발족에 의해 NIE 실천 학교가 1개지역 3개교 지정제(파일럿 계획)에서 1개 지역 초·중·고교 1% 지정제로 확대됐다. 이에 따라 NIE 실천학교는 112개교(95년), 218개교(96년), 262개교(97년), 296개교(98년), 324개교(99년), 343개교(2000년), 348개교(2001년), 368개교(2002년)로 해를 거듭할수록 증가하고 있다.

2000년 가을, 일본신문박물관(뉴스 파크)이 일본 신문 발상지인 요코하마에서 문을 열었다. 박물관과 더불어 신문도서관과 NIE 전국센터가 개설됐으며 이 센터에서는 NIE 관련 자료 외에도 아동·학생들의 학습 작품 전

시, 모의 수업, 세미나를 개최하는 등 NIE 운동 지원 센터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 이러한 일본신문박물관, 신문 라이브러리, NIE 전국 센터는 일본신문교육문화재단에 의해 운영되고 있으며 일본신문교육문화재단은 언론, 표현의 자유 보급, 사회성이 풍부한 청소년의 육성, 신문 문화의 발전과 전승을 목적으로 1988년 3월, 일본신문협회가 설립했다.

일본 NIE의 특징은 △교육계와 신문계가 손잡고 신문계가 일정기간 신문을 학교나 아동·학생의 가정에 부담을 주지 않고 교실에 제공하며 △교육계와 신문계가 각 지역단위의 NIE 조직을 결성해 운동을 추진한다는 것이다(<http://www.presskorea.or.kr/>).

다. 핀란드의 NIE

핀란드 NIE 운동은 핀란드신문협회가 1964년에 사회과목(History & Civics)교사 연합회의 첫 번째 프레스 세미나를 개최한 것으로부터 시작되었다. 현실감이 떨어지는 교과서의 대안으로 신문을 활용하자는 취지에서였다. 이 후 NIE가 학교에 널리 보급되자 1970년대 들어 교육부는 커리큘럼에 NIE를 명시했고, 1974년엔 NIE 특별위원회를 설치하기에 이르렀다. 한편 신문협회는 1985년에 각 주별 NIE 추진체를 조직했으며, 지방신문들은 지역 내 교사들에게 NIE훈련을 실시했다.

1990년대 초 경제 불황에 따른 신문 이탈현상을 타개하고자 신문업계는 NIE의 강화와 함께 젊은 세대의 눈높이에 맞는 새로운 콘텐츠 개발에 주력했다. 그 결과 1999년과 2001년 사이의 청소년 독자 조사 결과에서 근소하지만 독자가 늘어나는 고무적인 결과가 나타났다. 흥미로운 것은 핀란드 청소년들은 95%가 웹 서핑을 하지만 서핑을 많이 하는 청소년일수록 신문도 많이 읽는다는 점이다.

핀란드의 NIE는 학교와 신문업계, 그리고 교육부가 일체감을 가지고 오랜 동안 교육현장에 적용한 결과 사회적인 운동으로 승화하게 되었다. NIE가 성공할 수 있었던 요인으로는 먼저 신문을 교육재료로서 '재활용'하고 이를 실천하려는 국민들의 실용정신과 읽기를 즐기는 민족성에 있었다. 또한 신문들이 공정하고 정확한 보도를 위해 끊임없이 노력한다는 점을 들 수 있다. 한편, 핀란드의 NIE는 세계의 NIE 운동 확산에도 큰 영향을 주었으며, NIE에 대한 각국의 정보요청이 늘어남에 따라 세계신문협회(WAN)는 1991년에 청소년독자 위원회(Young Reader Committee)를 창설, NIE 보

급에 적극 나서고 있다. 신문협회의 의뢰에 따라 미디어 전문가나 경험 많은 교육학자들에 의해 지침서가 저술되었다. 학년별 교재개발로 학습효과를 증진시키고 소정의 NIE과정을 마친 학생들에게는 '크로코다일 패스포트', '프로그 패스포트'등의 이름을 붙인 수료증을 수여하기도 한다 (<http://www.presskorea.or.kr/>).

라. 캐나다의 NIE

캐나다는 전국적으로 미디어교육을 실시하고 있지만, 통일된 미디어교육 체계는 없다. 캐나다의 각 주정부는 서로 다른 독특한 교육체계를 가지고 있고, 미디어교육의 목표나 실천 지침 등의 공식적 입장에서도 각기 차이를 보이고 있다. 특히 미디어교육을 장려하고 있는 곳은 브리티시컬럼비아 주, 앨버타 주, 서스캐처원 주, 매니토바 주, 퀘벡 주등이다. 한편 온타리오 주는 북미 지역에서 유일하게 미디어교육을 정규 교육과정으로 제도화 시켰다.

이러한 제도화 과정은 미디어교육법의 수준이 아니라 온타리오 주교육부의 가이드라인 발표를 통해 의무화된 것이다. 온타리오 주의 미디어교육 과정이 정규 교과과정에 포함된 것은 1987년 이후의 일이다. 온타리오 주 교육부는 정규 국어교과 과정에 미디어교육을 편입시키는 새로운 지침을 공표하였고, 이에 따라 주 차원의 미디어교육이 활성화되기 시작하였다. 미디어교육 지침은 크게 다음 세 가지 사항을 근간으로 삼고 있다.

우선, 각 국어교과과정의 최소 3분의 1을 미디어교육에 할당해야 한다. 둘째, 7~8학년(12~13세)의 연령층에서는 수업 시간의 10%를 미디어교육에 할애해야 한다. 셋째, 중·고등학교 과정을 마치기 위해 미디어교육을 선택 과목으로 이수하거나 국어 교육 과정의 5개 분야 중 하나로 선택할 수 있다.

온타리오주는 국어와 언어 과목에 미디어교육 커리큘럼을 포함시키고 있고, 1-12학년까지의 학생들을 세 단계(1-8, 9-10, 11-12학년)로 나누어 난이도에 따라 교육과정을 세분화했다. 이 교육과정에는 각 학년별 학습 목표와 학습 내용을 명확히 제시했고, 교사들이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수업교안도 주제별로 풍부하고 상세하게 제공한다. 온타리오주 미디어교육의 특징은 미디어교육 커리큘럼이 전 과목 차원에 편재되어 있는 게 아니라 국어, 언어 과목에만 제한적으로 편성되어 있는 것이다(김기태 외, 2007).

마. 덴마크의 NIE

덴마크의 미디어교육의 특징을 정리하면 학교교육이 중심이 되고 있다. 교육의 목표는 덴마크어 능력향상을 위해 읽기와 쓰기교육에 중심을 두고 있다. 신문을 비롯하여 방송, 인터넷, 모바일 등은 이러한 교육을 수행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될 뿐이며, 학생들이 쉽게 미디어에 접근할 수 있도록 접근성을 보장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그러나 분스가드를 비롯한 일부학자들은 새로운 교육법의 개발이 필요하며, 특히 디지털환경에서의 글쓰기와 읽기교육을 위한 방법론을 개발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림 III-14>

덴마크 왕립도서관의 ‘읽기카페(Lektie Caféer)’



* 출처 : Dansk Biblioteksforskning, 2010a, 2010b.

덴마크도서관 재단이 교육부와 문화부로부터 위임받아 운영하는 ‘읽기카페’는 덴마크인의 미디어활용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시민교육 공간으로 활용하고 있다. 성인을 위한 ‘읽기카페’는 주로 외국인이주민들이 읽기와 쓰기를 할 수 있는 공간이자 신문과 인터넷을 비롯한 미디어를 활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된다. 지역도서관과 협회사무실, 지방자치단체 관공서 건물 등에 설치되는 ‘읽기카페’는 일차적으로 공부할 수 있는 독서실이자 IT기술을 배울 수 있는 교육공간이다. 동시에 덴마크어를 가르치는 어학교실로 기능하고, 신문을 읽고 신문에 게재된 시사적인 내용에 대해 토론하고 배우는 NIE교실도 운영한다. 또한 새로운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고용상담을 하는 공간이기도 하다. 이 공간을 이용하는 사람의 상당수가 외국인이주민인데, 이들과 덴마크 정주민들과의 소통과 이해의 공간으로도 활용된다. 정리하면 ‘읽기카페’는 일종의 시민대학과 같은 교양교육기능, 일자리 찾기와 사회적 갈등에 대한 개인고민을 상담할 수 있는 상담기능 그리고 가장 중요한 덴마크 언어교육기능을 담당한다.

반면 어린이와 청소년을 위한 ‘읽기카페’는 주로 학교와 지역도서관에 부설된 공간으로 인터넷과 인쇄매체를 이용하여 부족한 학업실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된다. 특히 담당교사를 배치하여 부모인 외국인이주민 1세대들이 도와줄 수 없는 학과공부를 돕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이 공간은 단순히 외국인이주민 2세들을 위한 공간이 아니라 덴마크계 어린이들에게도 개방되는 공간으로 정주민과 이주민이 서로를 이해하고 함께 공존하는 사회적 통합을 실현하는 시범공간으로 활용되기도 한다.

덴마크 교육부는 덴마크 어린이의 15%정도가 여러 가지 원인에서 수학능력이 떨어지고 교육과정에도 잘 적응하지 못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는 높은 외국인이주민 비율뿐만 아니라 덴마크계 정주민들의 낮은 출산율과 높은 외국인어린이 입양비율을 고려하면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볼 수 있다. 또한 부모의 경제적 능력이 부족해서 어린이들이 사회적으로 불이익을 받는 경우도 존재한다. ‘읽기카페’에 설치된 시설은 인터넷 이용 공간, 일자리상담소, 언어교육과 교양교육을 위한 강의실, 신문 및 잡지 읽기를 위한 정기간행물실, 어린이 및 청소년들의 학습보강을 위한 교실과 토론장 등이다.

덴마크의 미디어교육은 학교교육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는데, 주로 덴마크어 교육을 위한 읽기와 쓰기 능력향상을 위한 보조도구로 활용되었다. 덴마크의 미디어교육은 이미 1970년대부터 시작되었으나, 미디어교육의 주체는

언론기업이 아닌 덴마크 정부의 교육당국과 학교였다. 학교교육으로서의 미디어교육이 중심이 되다보니 신문을 활용한 교육(NIE)는 주로 다양한 신문 보급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덴마크정부는 2004년부터 덴마크어로 쓰인 모든 출판물을 대량으로 구매하여 전국에 있는 도서관과 학교에 보급하여 도태위기에 있는 자국 언어를 전승하고 발전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그래서 미디어교육의 근간을 언어교육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러한 효과적인 문화적 다양성 보호를 위한 지원은 에스토니아(Estonia)와 노르웨이(Norway)에서도 학습되면서 새로운 신문지원정책의 모형으로 평가받는다.

바. 소 결

미국은 NIE운동의 발상지이다. 미국의 NIE는 주로 신문이 주도하고 있다. 미국신문발행인협회의 적극적인 후원을 받는 NIE는 신문의 교육적인 활용방법이 전통적인 학교교육의 범주를 넘어서 일반 사회단체나 연구기관에 까지 확대되고 있다. 미국은 현재 전국 1,500개 신문사 가운데 700개사가 NIE를 추진하고 있으며 초·중·고등학교를 합쳐 67,000개의 학교가 NIE 수업을 실시하고 있다. 미국신문협회(NAA)는 교사를 대상으로 하는 전국 규모의 NIE연수회를 개최하고 있으며, 신문사들은 협회가 제공하는 NIE 매뉴얼을 기초로 독자적으로 NIE용 교재를 제작해 각 급 학교에 배포하고 있다. NIE를 실시하고 있는 700개사에는 적어도 1~2명, 주요 신문사의 경우는 10명 이상의 NIE 코디네이터가 있다. 코디네이터는 전직 교사나 고등학교 교사 자격을 갖고 있으며 정기적으로 신문사가 소재한 지역의 초·중·고를 방문한다. 코디네이터는 NIE 담당교사를 지도하기도 하고 때로는 신문을 교재로 아이들을 직접 지도하기도 한다. NIE 담당교사들은 의욕적으로 NIE를 시행하고 있으며, 어떤 교사들은 국어(영어), 산수, 사회, 미술 등 13개 교과 전부를 신문 기사를 기초로 가르칠 정도로 활용도가 높다.

일본신문협회는 학생들의 문자이탈현상과 독서기피현상에 제동을 걸고 활자 문화에 익숙해지도록 하기 위해 미국과 유럽 여러 나라에서 시행하고 있는 NIE 운동을 도입했다. 일본신문협회는 1986년부터 1988년에 걸친 해외 NIE 시찰을 통해 NIE 운동의 교육 효과가 높은 것을 확인하고 1992년 2월 NIE 위원회를 신설했다. 일본신문협회는 'NIE 기금'을 발족시키고 그 운용 이익으로 '신문 제공 사업'과 '연구·PR사업'을 적극적으로 전개했

다. NIE 기금 발족에 의해 NIE 실천 학교가 1개 지역 3개교 지정제(파일럿 계획)에서 1개 지역 초·중·고교 1% 지정제로 확대됐다. 이에 따라 NIE 실천학교는 112개교(95년), 218개교(96년), 262개교(97년), 296개교(98년), 324개교(99년), 343개교(2000년), 348개교(2001년), 368개교(2002년)로 해를 거듭할수록 증가하고 있다. 일본 NIE의 특징은 △교육계와 신문계가 손잡고 신문계가 일정기간 신문을 학교나 아동·학생의 가정에 부담을 주지 않고 교실에 제공하며 △교육계와 신문계가 각 지역단위의 NIE 조직을 결성해 운동을 추진하는 것이다.

핀란드 NIE 운동은 핀란드신문협회가 1964년에 사회과목(History & Civics)교사 연합회의 첫 번째 프레스 세미나를 개최한 것으로부터 시작되었다. 현실감이 떨어지는 교과서의 대안으로 신문을 활용하자는 취지에서였다. 이 후 NIE가 학교에 널리 보급되자 1970년대 들어 교육부는 커리큘럼에 NIE를 명시했고, 1974년엔 NIE 특별위원회를 설치하기에 이르렀다. 한편 신문협회는 1985년에 각 주별 NIE 추진체를 조직했으며, 지방신문들은 지역내 교사들에게 NIE훈련을 실시했다. 핀란드의 NIE는 학교와 신문업계, 그리고 교육부가 일체감을 가지고 오랜 동안 교육현장에 적용한 결과 사회적인 운동으로 승화하게 되었다. NIE가 성공할 수 있었던 요인으로는 먼저 신문을 교육재료로서 '재활용'하고 이를 실천하려는 국민들의 실용정신과 읽기를 즐기는 민족성에 있습니다. 또한 신문들이 공정하고 정확한 보도를 위해 끊임없이 노력한다는 점을 들 수 있다. 한편, 핀란드의 NIE는 세계의 NIE 운동 확산에도 큰 영향을 주었으며, NIE에 대한 각국의 정보요청이 늘어남에 따라 세계신문협회(WAN)는 1991년에 청소년독자 위원회(Young Reader Committee)를 창설, NIE 보급에 적극 나서고 있다. 신문협회의 의뢰에 따라 미디어 전문가나 경험 많은 교육학자들에 의해 지침서가 저술되었다.

캐나다는 전국적으로 미디어교육을 실시하고 있지만, 통일된 미디어교육 체계는 없다. 캐나다의 각 주정부는 서로 다른 독특한 교육체계를 가지고 있고, 미디어교육의 목표나 실천 지침 등의 공식적 입장에서조차 각기 차이를 보이고 있다. 특히 미디어교육을 장려하고 있는 곳은 브리티시컬럼비아 주, 앨버타 주, 서스캐처원 주, 매니토바 주, 퀘벡 주등이다. 한편 온타리오 주는 북미 지역에서 유일하게 미디어교육을 정규 교육과정으로 제도화 시켰다.

이러한 제도화 과정은 미디어교육법의 수준이 아니라 온타리오 주교육부

의 가이드라인 발표를 통해 의무화된 것이다. 온타리오 주의 미디어교육 과정이 정규 교과과정에 포함된 것은 1987년 이후의 일이다. 온타리오 주 교육부는 정규 국어교과 과정에 미디어교육을 편입시키는 새로운 지침을 공표하였고, 이에 따라 주 차원의 미디어교육이 활성화되기 시작하였다. 미디어교육 지침은 크게 다음 세 가지 사항을 근간으로 삼고 있다.

우선, 각 국어교과과정의 최소 3분의 1을 미디어교육에 할당해야 한다. 둘째, 7~8학년(12~13세)의 연령층에서는 수업 시간의 10%를 미디어교육에 할애해야 한다. 셋째, 중·고등학교 과정을 마치기 위해 미디어교육을 선택 과목으로 이수하거나 국어 교육 과정의 5개 분야 중 하나로 선택할 수 있다.

덴마크의 미디어교육의 특징을 정리하면 학교교육이 중심이 되고 있다. 교육의 목표는 덴마크어 능력향상을 위해 읽기와 쓰기교육에 중점을 두고 있다. 신문을 비롯하여 방송, 인터넷, 모바일 등은 이러한 교육을 수행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될 뿐이며, 학생들이 쉽게 미디어에 접근할 수 있도록 접근성을 보장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덴마크도서관 재단이 교육부와 문화부로부터 위임받아 운영하는 ‘읽기카페’는 덴마크인의 미디어활용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시민교육 공간으로 활용하고 있다. 성인을 위한 ‘읽기카페’는 주로 외국인이주민들이 읽기와 쓰기를 할 수 있는 공간이자 신문과 인터넷을 비롯한 미디어를 활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된다. 지역도서관과 협회사무실, 지방자치단체 관공서 건물 등에 설치되는 ‘읽기카페’는 일차적으로 공부할 수 있는 독서실이자 IT기술을 배울 수 있는 교육공간이다. 또한 덴마크어를 가르치는 어학교실로 기능하고, 신문을 읽고 신문에 게재된 시사적인 내용에 대해 토론하고 배우는 NIE교실도 운영한다. 또한 새로운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고용상담을 하는 공간이기도 하다. 덴마크정부는 2004년부터 덴마크어로 쓰인 모든 출판물을 대량으로 구매하여 전국에 있는 도서관과 학교에 보급하여 도태위기에 있는 자국 언어를 전승하고 발전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그래서 미디어교육의 근간을 언어교육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러한 효과적인 문화적 다양성 보호를 위한 지원은 에스토니아(Estonia)와 노르웨이(Norway)에서도 학습되면서 새로운 신문지원정책의 모형으로 평가받는다.

IV. NIE 교재개발

1. NIE 교육의 주체

가. NIE 교육의 주체

학교에서의 NIE는 교사가 학교수업을 위한 부교재로 주교재의 평면성을 보완하기 위해 미디어를 보조교재로 활용하는 교육과 미디어에 대한 비판적인 이해와 미디어제작 교육으로 나눌 수 있다. 교사는 NIE교재를 활용하여 수업을 진행할 수 있는 활용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바이세노(Weissenö)의 주장처럼 ‘좋은 미디어는 스스로 좋은 수업’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교사가 좋은 교재를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2001, p. 21). 이를 위해서는 교사는 이미 17세기에 글과 그림을 통해 효과적인 수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재교육을 받았던 것처럼, 다매체 다채널 시대에서는 멀티미디어를 활용한 교육을 위한 재교육과 자격검정을 위한 교육이 필요하다. 성공적인 미디어활용 교육을 위해서는 좋은 교재를 선택하는 것이 일차적이며, 이어 이러한 교재를 활용하여 구체적으로 어떻게 교육할 것인가 하는 교육 목표와 교육과정을 고민하게 될 것이다.

우리나라에서 NIE와 관련하여 제도적으로 연계된 집단은

- 정책당국(교육과학기술부와 문화체육관광부)
- 연구 및 지원기관(한국교과서연구재단과 한국언론진흥재단, 한국언론학회와 한국미디어교육학회, 미디어교육학회)
- 행위자집단(교사 및 신문사)
- 이익집단(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학부모단체, 한국신문협회 등)
- 경제집단(교재 출판사, 신문사 논술교재 개발부서, 논술학원 등)

등으로 나눌 수 있다. 그러나 이들은 상호간에 서로 다른 이해관계를 갖

는다.

〈그림 IV-1〉

NIE의 주요 이해관계자



(1) 정책기관

NIE와 관련하여 정책주체는 교육과학기술부와 문화체육관광부가 있다. 두 정부부처는 각각 업무의 영역이 다르다. 교육과학기술부는 학교교육을 책임지며, 인성교육과 지성교육을 통합한 전인교육을 위해 교재를 개발한다. 반면 문화관광체육부는 엄밀한 의미에서 학교교재를 개발하는 부서는 아니다.

그러나 신문 산업에 대한 이해를 목적으로 학습보조교재를 보급하는 사업을 하고 있다. 이는 학생들이 미디어에 대한 창의적인 이해와 활용능력을 배움으로써, 미래의 수용자를 교육하고, 산업적 기반을 강화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교육과학기술부는 전인교육을 목적으로 NIE에 참여하며, 문화관광체육부는 산업지원정책과 소비자교육의 일환으로 NIE를 실시한다.

교육과학기술부의 경우에 인성교육과 지성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학교교육에서 신문을 비롯한 미디어는 수단에 불과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래서

NIE와 미디어에 대한 이해를 정규교과목으로 생각하기 보다는 정규교과목을 보완할 수 있는 보조교재정도로 생각한다. 반면 신문 산업 진흥을 목적으로 하는 문화체육관광부는 학생들이 신문읽기와 쓰기에 열중할 수 있도록 신문소비에 이해관계를 갖고 있다.

(2) 연구기관

이러한 두 기관의 이해관계를 대변하는 연구기관이자 지원기관인 한국교과서연구재단과 한국언론진흥재단은 학교교육에 대한 진흥과 산업진흥을 위한 NIE에 대해 서로 다른 이해관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 특히 한국교과서연구재단은 학교교육의 교육목적에 맞는 교재를 개발하여 일선 학교에 보급할 필요가 있다. 반면 한국언론진흥재단은 신문 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신문 활용 교육을 중점적으로 지원하고 있는데, 그 대표적인 사례로 소외계층 및 산간지역 신문구독지원, 우편료지원, 신문읽기 및 쓰기교육 등의 지원이 있다. 이러한 두 기관의 이해관계를 대변하는 대표적인 학회로 교육학회와 언론학회가 있는데, 최근 미디어교육학회가 두 학회의 서로 다른 연구목적과 대상을 통합하여 체계적인 연구를 목적으로 활동하고 있다. 한국언론진흥재단이 지원하여 발간된 고등학생을 위한 『미디어와 사회』 교재는 교육학회와 언론학회 소속의 학자들이 상호 협력하여 만들어낸 대표적인 성과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표면적으로는 상호 협력 관계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보이지만, 실질적으로 교육계와 언론계는 상호 경쟁관계에 있으며, 구체적인 협력관계가 공식적으로 존재하지 않고, 오히려 경쟁적인 관계를 갖고 있다. 또한 오랫동안 학교에서 사용되는 교재제작의 독점권을 갖고 있던 교육계는 언론계의 발 빠른 NIE를 비롯한 미디어 관련 교재개발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갖고 있지만, 동시에 특별한 대책이나 대안을 제시하지는 못하고 있다. 제7차 교육과정에서도 NIE를 비롯한 미디어교육의 강화를 명시한 만큼 한국교과서연구재단의 적극적인 연구 참여가 필요하다.

(3) 행위자집단

NIE의 행위자집단으로는 교사와 학생, 학부모가 일차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한다. 학교에서의 NIE는 근본적으로 교사의 재량이 가장 큰 역할을 한

다. 그러나 대다수의 교사가 개별 학과목과 학생교육의 연구방법은 배웠지만, 미디어에 대한 이해를 배웠거나 미디어를 활용한 수업을 진행하는 능력을 배운 것은 아니다. NIE의 경우에 미디어의 이해와 미디어를 활용한 교육, 미디어제작교육을 모두 수행하려면 교사들의 지속적인 미디어활용능력 교육이 1차적으로 선행되어야 한다. 또한 전문적인 교과목이라고 할 수 있는 미디어의 이해의 경우에 교재개발에 직접 교사들이 참여하기가 어렵겠지만, 미디어를 활용한 교육을 위한 교재나 보조교재 개발에는 직접적으로 수업을 담당하는 교사의 참여가 필요하다. 또한 실질적으로 NIE를 활발하게 수행하고 있는 일선 교육현상의 도움을 받을 필요가 있다.

NIE의 또 다른 주체는 신문기자이다. 신문기자들이 NIE를 위한 교재를 공급하고, 학교교육을 지원할 수 있어야만 효과적일 수 있다. 이러한 협력관계는 최근 일간신문의 NIE제작부서와 교사들의 NIE연구모임이 공동으로 참여하면서 효율적인 교육을 하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로 제주도의 경우에 한라일보와 제주NIE학회가 공동으로 교재개발과 신문지면개발에 협력하고 있고, 강원도의 경우에 강원일보와 강원NIE연구소, 강원도 내 각 급 학교 교사들의 모임이 공동으로 교재개발과 신문지면개발에 협력하고 있다. 중앙언론사의 경우에도 조선일보와 중앙일보, 한겨레신문 등이 신문사의 NIE부서와 학부모, 교사들이 공동으로 참여하여 NIE교재개발과 신문지면개발에 협력하고 있다. 그러나 지역일간신문과 전국일간신문의 차이는 지역일간신문이 좀 더 학교교육 중심으로 NIE를 연구한다면, 전국일간신문은 논술교육과 신문사의 독자확보차원의 전략이 더 강조되는 측면이 있다.

마지막으로 행위자 가운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대상이 NIE강사이다. 우리나라 NIE강사는 대부분 전직 신문기자들이 많다. 중앙일보와 강원일보, 한국언론진흥재단에서 전문적인 NIE강사를 배출하기도 했지만, 대부분은 여전히 신문기자출신이 많다. 신문기자출신의 NIE강사는 신문의 속성이나 신문제작교육에는 큰 역할을 할 수 있다. 그러나 학교교육으로서의 NIE를 할 수 있는 교육자로서의 능력과 학습법에는 익숙하지 않다. 그래서 NIE강사의 전문화와 교육당국이 인정할 수 있는 미디어교육사 제도의 필요하다. NIE강사들은 교재개발에 있어서도 실질적으로 주도적 역할을 할 수 있는 집단이다. 아직까지 전문적인 능력을 갖춘 NIE강사가 많지 않다는 한계가 있다. 이러한 한계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출간된 NIE교재개발에 가장 많이 참여한 집단은 역시 NIE강사와 학교교사였다. 앞으로도 이들의 역할은 더 중요하게 될 것이다.

(4) 이익집단

NIE의 이익집단으로는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한국교총)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과 학부모연합이 교육계 쪽의 이익단체가 되며, 언론계에서는 대표적으로 한국신문협회가 있다. 교육계를 대표하는 한국교총과 전교조, 학부모단체의 이해관계는 서로 다르다. 전문가인터뷰에서도 나왔듯, 일선 학교에서의 NIE는 학교장과 교사의 재량권이 크기 때문에, 교원단체에서 어떠한 이해관계를 대변하느냐에 따라서 NIE의 실시여부가 결정된다. 특히 비교적 NIE가 잘 이루어지는 초등학교보다 상급학교 진학에 많은 시간을 투자하는 중학교와 고등학교의 경우에는 NIE가 어려운 게 현실이다. 특히 중학교와 고등학교의 경우에 예상문제집을 풀거나 논술준비에 도움이 안 된다면 현실적으로 NIE를 실시하는 게 어렵다. 학부모단체의 반발도 예상외로 큰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교육을 담당하는 교사들도 가입단체에 따라서 NIE활용이 다르게 나타날 수도 있다.

반면 한국신문협회는 NIE를 신문 산업의 미래를 좌우할 수 있는 중요한 사업의 하나로 간주하고 있다. 한국신문협회가 별도의 인터넷사이트(<http://www.pressnie.or.kr/>)를 개설하여 NIE를 강조하는 것도 이와 관련 있다. 또 다른 지원기관인 한국언론진흥재단도 최근에 NIE를 위한 별도의 사이트(<http://www.forme.or.kr/>)를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사이트는 NIE를 위해 특화된 것이 아니라 미디어교육 전반에 걸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한국신문협회가 독자적인 예산을 투자하여 NIE를 강화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개별 언론사의 NIE사업을 지원하는 차원이다.

실질적으로 교사들은 추가적인 노동에 대한 부담을 안고 있고, 상급학교 진학이 교육의 성과로 받아들여지는 현실에서 NIE를 실시하는데 한계가 있다. 또한 NIE가 교육성과평가에 반영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NIE를 활용하는 교사는 많지 않다. 학부모의 경우에는 NIE보다는 대학입학 시험에서 좋은 성적을 내기 위한 교육에 더 많은 투자를 하기 때문에 NIE가 직접적으로 성적향상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되면 교육자체를 반대할 가능성이 더 많다. 한국신문협회는 장기적인 차원의 NIE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이익단체이지만, 한국신문협회가 교육단체가 아니라 신문기업의 이익을 대변하는 이익집단이기 때문에 신문사의 구체적인 수익증대와 독자 배가에 대한 이해가 더 많음을 알 수 있다. 결국 이익집단은 교사를 중심으

로 한 단체가 직접적으로 교육의 품질 향상을 위해 NIE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다면 성공할 수 있는 가능성이 낮음을 알 수 있다. 그래서 이익집단 가운데 교원단체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5) 경제집단

마지막으로 NIE와 관련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집단은 경제 집단이다. 초등학교를 제외한 중고등학교에서 NIE는 논술교육으로 자리 잡은 지 오래다. 특히 대학입학시험이 자기소개서 작성과 논술시험의 비중이 커지면서 교재출판사와 신문사, 논술학원 등은 NIE를 논술교재와 동일시하는 경향이 있다. 이는 교육방송인 EBS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인데, 학교교육을 위한 미디어활용교재를 대학입학시험을 위한 논술 교육 교재화하고 있다.

이러한 경제 집단의 이해관계는 당연히 교재출판을 통한 수익증대에 있다. 그래서 NIE를 쓰기교육의 하나로만 이해한다. 그러나 앞서서도 살펴보았듯 NIE는 신문(미디어)에 대한 이해와 신문비평, 신문을 활용한 교육, 신문제작으로 연계되어야 하는데, 이러한 통합교육은 기대하기 어려워진다. 이러한 현상은 비단 초중고에서만 나타나지 않고, 대학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대다수의 대학에서 학보사 기사를 채용하지 못하거나, 연중 수시로 결원을 충원하기 위해 광고를 내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신문제작이 초중고뿐만 아니라 대학에서마저도 교육의 일부라기보다는 귀찮고 자기시간을 빼앗기는 소모적인 노동으로 인식되는 추세이다.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 때문에 경제 집단의 논술교육으로서의 NIE는 신문의 NIE지면뿐만 아니라 NIE교재개발에도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다.

나. NIE 교육기관과 전문강사 인증

앞에서도 기술했듯이 NIE는 대상에 따라 학교교육과 사회교육으로 나눌 수 있다. 학교교육과 사회교육은 교육의 목적에 따라 신문에 대한 비판적 수용과 신문에 대한 이해, 신문 활용 교육과 신문제작으로 나눌 수 있다. 그러나 교육대상에 따라서는 인성교육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학교교육과 시민교육이자 소비자교육, 미디어의 수용자 교육을 중심으로 하는 사회교육으로 나눌 수 있다. 사회교육은 학교교육뿐만 아니라 인간의 삶의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장기적인 교육학습이라는 의미에서 평생교육이라고 볼 수 있다.

특히 자본주의적 시장경제사회에서 NIE는 사회구성원 개개인이 정보사회에서 커뮤니케이션수단으로서의 새로운 정보기술과 미디어장비를 다룰 수 있는 능력과 미디어 내용을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을 평생 동안 가르침으로써, 사회가 필요로 하는 노동력을 재교육시키고, ‘미디어 능력’을 갖춘 소비자를 확보한다는 측면에서도 의미가 있다(Haefner 1990, p.18). 그래서 사회교육의 핵심은 소비자교육에 가깝다고 할 수 있다. 반면 학교교육은 미래의 사회주역인 학생들에게 전인교육을 제공하고, 스스로 창의적이고 비판적으로 미디어를 이해하는 능력과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가르치는데 있다.

미디어능력은 첫째로 미디어가 전달하는 정보를 취사선택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는 것으로, 미디어가 갖고 있는 언어적 코드를 이해하는 교육이다. 그러나 어떠한 정보를 취사선택해야 하며, 무엇이 진정한 미디어의 코드인가를 구분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은 과제이다. 그래서 둘째로 미디어가 내세우는 입장(논의의 출발점)을 이해하고, 이를 뚜렷하게 인식할 수 있는 비판력을 배양해야 한다. 셋째로 정보생산과 전달의 전략적 구조를 이해함으로써, 정보의 행간을 읽어낼 수 있는 능력을 갖추도록 하는 것이다(Moser, 1999, p. 64-67). 즉 미디어 교육은 미디어가 전달하는 정보에 대한 비판적 이해와 행간읽기를 통한 취사선택에 있다. 이러한 교육은 학교교육에서부터 사회교육에 이르기까지 평생 동안 실시되어야 한다. 특히 5년을 주기로 새로운 미디어 기술이 도입되는 현재의 추세를 감안할 때 학교교육과 사회교육은 평생교육으로 연계되어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이러한 미디어능력의 배양을 위해서는 첫째는 미디어비평으로 수용자들이 주체적으로 미디어가 전달하는 정보를 분석하고 활용하며 반응하도록 해야 하고, 둘째는 미디어를 활용하여 정보를 얻을 수 있는 도구와 수단으로서의 미디어활용 교육(예를 들어 신문을 통해 정보를 얻는 법 익히기)이 필요하며, 셋째로 미디어가 전달하는 정보를 수용하여 소비하고, 쌍방향적 커뮤니케이션을 시도하는 미디어 소비 교육이 필요하고, 넷째로는 혁신적이고 창조적인 미디어 콘텐츠 만들기 교육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Baacke 1999, p 34). 다섯째로는 미디어정치 시대에 시민들은 기본적 능력으로 정치현상과 사회를 이행하기 위해 ‘미디어이해능력’을 갖추어야 한다(Massing, 2001, p. 39). 미디어 정치시대의 미디어에 대한 이해능력을 키우는 것은 시민들이 스스로 자발적인 판단력과 정치적 선택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도록 하는 것이다(Sarcinelli, 2000, p. 32-38).

그러나 이러한 정의에도 불구하고 미디어에 대한 이해능력을 키우기 위

한 미디어교육의 목표는 간략하게 정의하기 어려운 문제를 안고 있다. 이는 미디어교육의 범위가 이미 정치교육이나 학교교육의 보조적 기능을 넘어서 매우 다양화되었으며, 기존의 학교교육과 사회교육에 복합적으로 융화되어 기능하고 있다(Moser, 1999, p. 214이하). 이러한 복합화되어 나타나는 미디어 교육의 정책적 목표설정의 과제와 문제점에 대해 인성교육을 중심으로 하는 정규교육과정인 학교교육은 다음과 이루어진다.

학교교육은 교육기본권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아래 운영되는 공적교육이다. 학교교육의 정책추진 주체는 교육인적자원부와 지방교육청이 된다. 학교교육은 헌법에서 보호하고 있는 국민의 권리이자 의무이다. 이러한 학교교육의 특성상 학교에서의 NIE는 정책추진 주체인 교육과학기술부를 중심으로 NIE의 실무를 담당하게 될 문화체육관광부간의 협력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교육시설 지원과 교육재원 마련을 위해서 행정자치부와 기획예산처, 한국신문협회, 한국언론진흥재단 등 관련기관과의 상호협력을 필요로 한다. 학교교육은 신문을 활용해서 학교교육에 사용되는 주교재의 평면성을 보완하는 보조수단으로 사용하는 신문 활용 교육과 미디어현상에 대한 비판적인 수용을 위한 신문비평교육, 학생들이 직접 신문을 제작하거나 홈페이지 구축, 디지털영상장비를 활용한 콘텐츠를 제작하는 제작능력 교육 등으로 나눌 수 있다.

학교에서의 NIE는 전통적 의미의 미디어라고 부를 수 있는 수업보조매체인 칠판, 지도, 라디오, 텔레비전, 영화, 참고서, 컴퓨터 활용 교육, 방송수업, 스케치를 위한 모델, 비디오카메라, 만화, 대자보, 신문, 잡지 등 다양한 형태가 포함 된다. 그러나 오늘날 대중매체에 의해 생산된 신문, 잡지, 비디오와 DVD등 영상자료를 활용한 수업이 일반화되어 가고 있다. 예를 들어 초등학생들에게 트라이아스기와 쥐라기, 백악기 시대의 공룡들의 삶에 대한 교육을 교과서를 이용한 평면교육에 의존한다면 외우기 위한 암기교육에만 머물게 되지만, 방송사가 제작한 입체영상화면과 모형 등을 활용하면 더 효율적인 교육이 될 뿐만 아니라, 이해도도 쉽게 할 수 있다.

미디어를 활용한 수업 가운데 대중매체를 통해 전달되는 사회현상에 대한 비판적인 교육은 미디어 내용에 대한 비평교육이다. 이러한 교육은 국어, 국사, 영어, 정치경제와 사회과목, 수학, 물리학, 화학, 음악 등 모든 수업과정에서 진행되지만, 주로 정치경제나 사회과목에서 많은 부분을 진행하게 된다.

또한 피교육자들이 직접 신문을 제작하거나 디지털카메라를 이용하여 방

송영상물을 제작하는 미디어 제작 능력을 길러주는 교육도 수행되어야 한다. 이러한 교육을 위해서는 전문적인 장비와 더불어 교육을 담당할 수 있는 전문교사를 필요로 하게 된다.

주교재의 평면성을 보완하는 미디어활용 교육 능력은 ‘좋은 미디어는 스스로 좋은 수업(Weissen, 2001, p. 21)’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교사가 좋은 교재를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 교사는 이미 17세기에 글과 그림을 통해 효과적인 수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재교육을 받았던 것처럼, 다매체 다채널 시대에서는 멀티미디어를 활용한 교육을 위한 재교육과 NIE를 자격검정을 위한 보수교육이 필요하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신문사, 사설협회(한국NIE협회 등), 한국언론진흥재단 등에서 자체적으로 교육시켜 NIE강사나 미디어교육사 자격을 부여하지만 이는 학교교육을 담당하는 교육과학기술부가 인정하는 교사자격은 아니다. 일종의 사설자격인 NIE강사나 미디어교육사는 학교에서 NIE나 미디어교육을 위한 임시로 특강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이라는 증명에 불과하다.

그렇다면 이러한 학교교육에서의 NIE와 미디어 리터러시를 위해 해결해야 할 교육당국의 과제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NIE에서 사용될 교재는 누가 제작할 것인가? 모든 인쇄매체와 영상매체가 생산하는 미디어상품이 모두 학교에서 교육보조교재로 사용될 수는 없다. 학교에서 공교육에 사용되기 위해서는 다른 일반 교과서와 마찬가지로 교과서 검정이라는 심의과정을 거쳐야만 한다. 그렇다면 누가 이러한 검정과정에 참여하고, 교육교재 제작에 참여할 것인가라는 문제가 제기된다. 교재개발은 교육과학기술부가 단독으로 수행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물리교과서나 화학교과서, 기술교과서를 물리학과와 물리학자, 화학과와 화학자, 기술학과와 관련학자들이 참여하여 제작하듯, NIE와 미디어교육을 위한 교재개발에는 교육학과와 언론학계가 공동으로 참여할 필요가 있다.

둘째, NIE를 담당할 교사의 교육은 누가할 것인가? 현재 교육현장에서 활동하고 있는 교사들이 NIE나 미디어교육을 하려면 재교육이 필요하다. NIE를 담당할 교사들은 각 과목을 담당하는 교사들이다. 예를 들어 국어교사, 과학교사, 체육교사, 국사교사 등. 그러나 이들에게 미디어를 활용하는 방법과 미디어교육교재의 적절한 활용법을 가르치고, 또 새롭게 발전하는 뉴미디어를 이용할 수 있는 교육을 담당할 재교육이 필요하고, 이러한 재교육을 담당할 교육기관이 필요하다. 이러한 기관은 우리나라 공교육의 목표

와 미디어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갖고 있는 기관이 되어야 한다.

셋째, NIE활용과 미디어의 이해를 가르칠 NIE강사와 미디어교육사의 인 증은 누가할 것인가? NIE는 정교사가 담당할 수 있지만, 신문제작이나 새 로운 뉴미디어기술을 활용한 홈페이지구성, 학교모바일 어플리케이션개발 등은 전문강사가 담당해야 한다. 또한 미디어를 통해 전달되는 사회현상을 가르치기 위해, 미디어를 어떻게 볼 것인가라는 미디어 내용에 대한 비판적 인 수용방법을 가르칠 교사가 필요하다. 이들은 일반 다른 과목의 교사들과 는 달리 미디어 현상을 스스로 판단하여 교육을 진행할 수 있는 ‘미디어교 육사’여야 한다. NIE강사와 미디어교육사는 미디어현상에 대한 비판적인 교 육과 더불어 미디어 제작능력을 학생들에게 키워줄 수 있는 실습능력도 갖 추어야 한다. 그렇다면 미디어교육사는 어떻게 양성할 것이며, 이들은 어떠 한 교육과정을 거쳐 배출할 것인가라는 문제가 제기된다. 교육과학기술부와 문화관광체육부, 방송통신위원회가 NIE강사와 미디어교육사에 대한 인증기 준을 마련하기 위한 협의가 필요하고, 최종적으로 교육에 참여하는 미디어 교육사의 인증업무는 교육과학기술부내에 관련부서를 지정할 필요가 있다.

넷째, 미디어교육사를 일선 학교에 배치한다면, 그들은 학교교육의 연장 선상이라고 할 수 있는 가정교육을 위해 학부모들에게 인터넷을 비롯한 뉴 미디어를 활용한 가정교육이 가능하도록 교육과정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 다. 이를 위해 학부모들이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학부모를 위한 교 육교재와 교육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 이러한 학교교육은 교육과학기술 부와 미디어교육을 지원하게 될 문화체육관광부, 방송통신위원회 등 관련부 서들이 교육기본법의 취지에 맞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다. 소 결

‘좋은 미디어는 스스로 좋은 수업’이라고 한다. 17세기에 학교교육에서 글 과 그림을 통해 효과적인 수업을 진행했듯, 21세기에는 멀티미디어를 활용 한 수업이다. 그러나 이러한 교육을 담당하고 교재를 개발하는 주체와 관련 하여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있다. 우리나라에서 NIE와 관련하여 제도적으 로 연계된 집단은 정책당국(교육과학기술부와 문화체육관광부), 연구 및 지 원기관(한국교과서연구재단과 한국언론진흥재단, 한국언론학회와 한국미디 어교육학회, 미디어교육학회), 행위자집단(교사 및 신문사), 이익집단(한국교 원단체총연합회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학부모단체, 한국신문협회 등), 경제

집단(교재 출판사, 신문사 논술교재 개발부서, 논술학원 등)등이 있다. 이들은 서로 다른 이해관계를 대변하며, 자신이 대변하는 이해관계에 따라 교육 목표와 교육방법, 교재개발에 대해서도 다른 견해를 가지고 있다.

NIE와 미디어교육은 교육대상에 따라 학교교육과 사회교육으로 나눌 수 있다. 학교교육과 사회교육은 교육의 목적에 따라 신문에 대한 비판적 수용과 신문에 대한 이해, 신문 활용 교육과 신문제작으로 나눌 수 있다. 사회교육이 정규학교교육뿐만 아니라 인간의 삶의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장기적인 교육학습이라는 의미에서 평생교육이라면, 학교교육은 아직까지 가치관과 판단능력이 서있지 않은 학생들에게 비판적이고 창의적인 능력개발을 목적으로 한다. 학교교육은 교육기본권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아래 운영되는 공적교육이다. 학교교육의 정책추진 주체는 교육인적자원부와 지방교육청이 된다. 학교교육은 헌법에서 보호하고 있는 국민의 권리이자 의무이다. 이러한 학교교육의 특성상 학교에서의 NIE는 정책추진 주체인 교육과학기술부를 중심으로 NIE의 실무를 담당하게 될 문화체육관광부간의 협력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교육시설 지원과 교육재원 마련을 위해서 행정자치부와 기획예산처, 한국신문협회, 한국언론진흥재단 등 관련기관과의 상호협력을 필요로 한다. 그래서 이러한 교육을 위해서는 교육당국이 NIE와 미디어교육의 목표와 방향성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학교교육에서의 NIE와 미디어교육을 위해서는 교육당국이 다음의 과제를 해결해야 한다. 첫째로 NIE에서 사용될 교재를 제작할 주체를 정해야 한다. 둘째로 NIE를 담당할 교사의 교육의 방법과 교육기관을 선정해야 한다. 셋째로 NIE활용과 미디어의 이해를 가르칠 NIE강사와 미디어교육사의 인증에 대한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넷째로 미디어교육사를 일선 학교에 배치하기 위한 계획을 전체 교육과정과 연계하여 수립할 필요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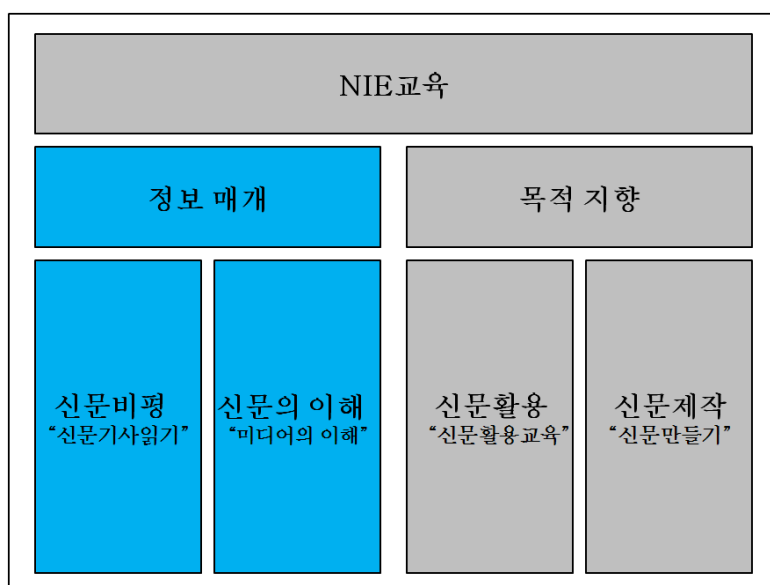
2. NIE 교재개발 전략

가. 교과목의 유형

학교교육으로서의 NIE를 위한 교과목으로는 크게 신문을 포함한 미디어 전반에 대한 이해를 담은 ‘미디어의 이해’와 신문에 대한 비판적인 수용을 위한 ‘신문기사읽기’, 신문을 수업의 보조교재로 활용하여 학습하기 위한 ‘신문 활용 교육’, 신문제작을 위한 ‘신문만들기’로 나눌 수 있다.

〈그림 IV-2〉

NIE교재의 유형



학교에서의 NIE와 미디어 교육은 다음과 같은 교재를 필요로 한다.

첫째, 전통적 의미의 미디어라고 부를 수 있는 수업보조매개체로는 칠판, 지도, 라디오, 텔레비전, 영화, 참고서, 컴퓨터 활용 교육, 방송수업, 스케치를 위한 모델, 비디오카메라, 만화, 대자보, 신문, 잡지 등 다양한 형태가 포함 된다. 이러한 의미에서 수업도구로써 미디어를 활용하는 방법은 일반 교과목에서 교사가 신문을 수업보조도구로 사용하는 것이다. 교과목은 신문을 활용한 교육이 될 수 있다.

현재 한국언론진흥재단이 2003년 발간한 『미디어교육길잡이』와 『미디어교육교재』와 한국신문협회가 2004년 발간한 『NIE가이드북』과 2010년 발간한 『신문활용교육의 이해』, 김영미의 『NIE새롭고 재미있는 창의력 학습』(2006년간행), 이태종의 『NIE원론』(2006년간행), 정문성등의 『사회과 교수 학습법』(2008년간행), 최상희의 『신문스크랩기술』(2006년간행)와 『NIE이해와 활용』(2004년간행)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신문을 활용한 학습에 대해서는 많은 교재가 나와 있는 상태이다. 이 교과목은 단독과목이 아니라 일반교과목을 보완해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검정교과서가 필요하지 않다. 오히려 다양한 참고자료가 많다면 교사들이 수업준비를 하는데 도움을 받을 수 있다.

NIE가 단독 학과목이 될 수 없듯이, 신문만이 모든 미디어를 대변할 수는 없다. 오히려 신문과 인터넷, 게임기, 모바일, 방송을 모두 활용하는 교육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 NIE활용교육교본이나 미디어활용교육교본을 한국교과서연구재단 차원에서 개발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교본은 미디어전문가와 교육전문가 그리고 현장에서 NIE와 미디어활용교육을 실시하는 교사들이 함께 참여할 필요가 있다. 이때 필요한 재원은 한국신문협회를 비롯하여 언론진흥기구와 관련 유관기관의 지원을 받을 필요가 있다.

둘째, 신문만들기이다. 신문만들기는 종이신문과 인터넷신문, 모바일 앱 등으로 다양하다. 모두 NIE로 규정할 수는 없지만, 크게 보면 NIE에서 시작하여 미디어교육으로 발전하는 단계에 있는 융합미디어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신문을 비롯한 뉴미디어를 이용한 제작능력교육은 교사들이 직접 수행하는데 한계가 있다. 그래서 교사 가운데 이러한 능력을 갖추 수 있도록 NIE강사나 미디어교육사 자격인증을 받도록 할 수 있고, 외부 강사를 활용할 수 도 있다. 교재는 검정교재보다는 이미 연구자들이 간행한 다양한 교재를 활용할 수 있다. 신문만들기는 학교교육의 교육목표와 직접 연계된 과목이기보다는 실습과목에 해당하기 때문에, 실습을 위해 필요한 교본(Guide Book)정도만 있어도 된다.

현재 일간신문사들이 자체적으로 제작하여 학교에 제공하는 신문만들기 교본도 있고, 단행본으로는 한국언론진흥재단이 2003년 발간한 『신문알기-신문만들기』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신문만들기는 이미 다양한 교재와 교본이 있다. 이 교과목은 단독과목이 아니라 일반교과목을 보완해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검정교과서를 필요로 하지 않다. 오히려 다양한 참고자료가 많다면 교사들이 수업준비를 하는데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각 신문사가 제공

하는 교본을 적극 활용할 수도 있다. 신문만들기 과목은 교재보다는 교육을 지도하는 교사 또는 강사의 능력에 따라 교육내용이 크게 좌우될 수 있는 교과목이다.

나아가 신문만들기는 인터넷홈페이지 구축하기, 우리학교 App만들기와 같이 새로운 디지털미디어를 이용한 교육도 병행되어야 한다. 우리학교 App의 경우에, 학교주변의 교육시설, 문화시설, 버스시간표, 비상연락망 등 다양한 용도로 사용이 가능하다. 또한 동영상을 제작하여 인터넷에 게재함으로써 입체적인 미디어능력향상을 할 수 있다. NIE를 MIE(Multimedia in Education)으로 연계하는 것이다.

셋째, 미디어를 도구가 아닌 수업내용으로 볼 때는, 대중매체를 통해 전달되는 사회현상에 대한 교육을 의미한다. 이 경우에는 주로 정치경제나 사회과목에서 수업을 진행할 수도 있고, 별도로 미디어 교과목을 신설할 수도 있다. 이 교과목은 신문을 비롯하여 광고, 라디오, 모바일, 사진, 영화, 인터넷, 텔레비전 등 다양한 미디어를 모두 포함하는 ‘미디어의 이해’과목으로 가르칠 수 있다. 교과목에는 세부적인 내용의 하나로 ‘신문비평’ 나아가 ‘미디어비평’을 포함할 수 있고, 필요에 따라서는 독립된 교과목을 만들 수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학교교육이 입시교육이 중심임을 감안하면, ‘미디어의 이해’ 교과목에 비평을 포함시키는 것이 합리적일 것이다.

현재 이러한 ‘미디어의 이해’교과목을 가르칠 수 있는 교재로 발간된 것은 한국언론진흥재단이 2010년 교육학자와 미디어학자, 교사로 구성된 연구진에게 위탁하여 발간한 고등학생 대상 『미디어와 사회』가 있다. 그러나 이 교재도 미디어비평을 포함하고 있지 않아서 개정판에는 한 부분으로 ‘미디어비평’을 포함시킨다면, ‘미디어의 이해’ 교재로 충분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계속해서 초등학생, 중학생을 위한 교재개발도 가능할 것이다. 단 초등학생의 경우에 ‘미디어의 이해’ 교과목이 반드시 필요한가라는 문제에 대해서는 더 많은 연구와 논의가 필요할 것이다.

나. 교과목 개발과제

학교교육을 위해 위의 교과목에 맞는 교재를 개발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과제를 해결해야 한다.

첫째, NIE와 미디어활용 교육에서 사용될 교재는 누가 집필하고 제작할 것인지에 대해서 교육과학기술부와 유관기관간의 상호협력이 필요하다. 현

실적으로 NIE교재와 미디어교육교재를 집필할 수 있는 전문 인력은 많지 않다. 제한된 연구 인력으로 교재를 개발하기 위해서는 전문가 네트워크를 구성하여, 이들이 교재를 개발할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 전문 인력에는 교육학자, 언론학자가 함께 참여할 수 있다.

둘째, NIE교재와 미디어활용 교육을 위한 교재검증의 주체이다. 학교교육에 사용될 교재를 다른 일반 교과서와 마찬가지로 교과서 검정을 하기 위해서는 그 기준과 참여주체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특히 교과서 검증이 필요한 ‘미디어의 이해’ 교과목 개발을 위해서는 교육과학기술부가 적극적으로 참여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 매우 정파적인 신문사의 보도 관행과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행위자집단에 교과서 집필과 검증을 맡길 수 없기 때문에 오랫동안 교과서 개발을 연구하고 만들어온 교육과학기술부와 관련 기관이 주도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보조교재에 대해서는 현행과 같이 자유롭게 맡길 수 있을 것이다.

셋째, NIE와 미디어교육을 위한 교육설비는 학교교육의 경우 교육과학기술부가 학교별로 필요한 설비와 기자재, 시설을 보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특히 고가의 방송장비와 전산장비 마련을 위해서는 방송통신위원회와 문화체육관광체육부, 한국언론진흥재단 등의 지원을 받을 필요가 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지원기관의 일방적인 선정이 아니라 교육현장의 수용에 맞도록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수요를 파악하여 조정할 필요가 있다. 교육설비와 기자재, 시설을 현재와 같이 지원기관에서 지원 대상을 선정하는 방식은 지원심의과정에서 인력과 예산의 중복투자라는 문제와 더불어 미디어교육 능력을 갖춘 학교에만 집중적으로 지원되거나, 지원신청서류를 잘 준비한 학교에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교육행정을 총괄하는 교육인적자원부가 총괄하여 전국적으로 균형 있는 시설확충과 교재 지원 사업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

근본적으로 공공교육시설의 교육기자재 충원과 시설확충, 장비마련은 교육기관을 운영하는 주무부처가 예산과 집행을 담당해야 하고, 동시에 다양한 이해관계를 가진 행위자 집단의 의견조율도 말아야 한다.

다. 교과목 개발 전략

학교교육을 위한 신문활용교육 교재는 ‘미디어의 이해’, ‘신문활용교육’, ‘신문만들기’로 나눌 수 있다.

‘미디어의 이해’는 신문뿐만 아니라 방송, 인터넷, 통신, 영화, 사진, 광고 등 미디어와 관련 있는 모든 인접분야를 총괄해야 한다. ‘미디어의 이해’ 교재는 미디어의 작동원리와 이론적 배경, 기술과 표현방식에 따라 분류되는 미디어 분야별 특징, 미디어의 내용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라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구체적으로 ‘미디어의 이해’ 교과목의 내용을 제안하면 다음과 같다.

- 커뮤니케이션이란 무엇인가 : 인간과 자연, 동물의 커뮤니케이션의 특징. 인간은 왜 소통을 해야만 하는가와 소통이 사회적으로 미치는 영향에 대한 설명 포함
- 미디어를 이용한 커뮤니케이션 기술 발달 : 인간의 커뮤니케이션을 매개하는 수단으로써 미디어의 역할과 영향력, 작동원리에 대한 기본적인 논의 제기
- 미디어를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 현대사회에서 인간이 인지하는 대부분의 사건이 미디어를 통해 이루어진다는 것을 감안하여, 미디어를 어떻게 비판적이고 창의적인 시각으로 바라볼 것인가에 대한 비평방법과 행간읽기 생각하기의 방법 제시
- 미디어의 다양한 소재 : 시사뉴스와 교양, 오락, 연예, 스포츠, 광고 등 미디어의 다양한 영역에 대해서 세부적인 설명
- 신문과 잡지 : 인쇄매체의 발전과정과 신문과 잡지의 제작과정, 신문과 잡지의 특징을 설명하고, 산업에 대해 소개
- 텔레비전과 라디오 : 전파매체의 발전과정과 텔레비전과 라디오의 제작과정, 최근에 더욱 분화되는 케이블, 위성, DMB, IPTV, 스포츠TV, 커넥티드TV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방송기술 발전의 의미를 알려주는 내용 포함하고, 산업에 대해 소개
- 사진과 영화 : 광학발달로 등장한 사진과 영화의 기술적 설명과 발전과정, 현대 사진과 영화영역에 대해 설명하고, 산업에 대해 소개
- 만화와 애니메이션 : 동굴벽화시대부터 존재해온 인류사회에서 가장 오래된 미디어인 그림과 만화, 애니메이션의 역사와 제작방법, 특징을 설명하고, 산업에 대해 소개
- 홍보와 광고 : 광고산업과 홍보의 역사와 작동방식, 그리고 산업에 대해서 소개
- 인터넷과 모바일 : 새로운 미디어로 등장하여 각광을 받고 있는 인터넷

과 모바일의 작동원리와 특징, 미래 산업전망에 대해 소개

- 대중음악 : 가장 중요한 미디어수단인 대중음악의 제작과정과 사회적 의미를 소개하고 산업적 가치에 대해서도 다룸

‘미디어의 이해’는 내용이 방대함을 감안, 한권짜리의 교재나 ‘미디어의 이해 I, II’로 나누어 편찬할 필요가 있다. ‘미디어의 이해 I’에서는 주로 커뮤니케이션과 미디어의 역사, 미디어 비평, 미디어가 전달하는 주요한 내용의 특징에 대해 다룸으로써, 학생들의 미디어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와 비판능력을 키워준다. ‘미디어의 이해 II’는 미디어의 세부적인 영역인 신문, 잡지, 텔레비전과 라디오, 사진, 영화, 만화, 애니메이션, 홍보, 광고, 인터넷, 모바일, 대중음악에 대해 소개하는 방식이 좋다. ‘미디어의 이해’ 교재는 책자뿐만 아니라 기자재를 이용한 교육을 위해 별도의 교사용 학습지도 교안에 동영상상이 포함된 보조자료(DVD, 사례를 담은 소책자 등)도 함께 개발되어야 한다. 개발주체는 교육당국과 언론관련 유관단체로 집필은 교사와 미디어학자들의 공동 작업이 필요하다. 현재 한국언론진흥재단이 출간한 교재를 참고할 만하지만, 인성교육을 포함한 교육용 보조교재 등의 개발이 미흡한 점을 감안하여 교육용 교재개발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신문활용교육’ 교재는 신문을 어떻게 활용하여 교육할 것이다. 한국신문협회가 자체적으로 발간한 교재도 있고, 개별 신문사가 NIE를 위해 제작한 보조교재도 있지만, 한국교과서연구재단이 주도하여 학교에서 NIE교육에 대한 교사용 학습지도서와 학생용 교재의 모형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특히 한국의 신문사들이 정파적인 내용과 상업적 목적에서 NIE교재를 개발하고 있음을 감안하여 학교교육에 적절한 NIE교재를 교육당국이 제작할 필요가 있다. ‘신문활용교육’은 신문을 활용하는 수업이기 때문에 학생들에게 제공할 교재는 필요하지 않지만, 교사들의 학습지도서가 필요한 교과목이다. 그래서 지속적인 학습지도서 개발이 필요하며, 대중매체의 특성상 학습지도서도 개정이 자주 이루어져야 한다.

‘신문활용교육’ 교사용 학습지도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수록될 필요가 있다.

- 신문을 활용한 교육의 목적과 목표, 수업 활용 모형
- 신문을 활용한 교육을 위한 기초지식
- 신문을 활용한 교육을 위한 교재준비

- o 수업에서 신문을 활용하여 교육하기
- o 신문을 활용한 교육의 준비사항

이러한 내용을 세부적으로 교사용 학습지도서에 기술하고, 학생용 교육교재는 개발예시를 교사용 학습지도서에 포함시킬 수 있다. 학생용 교육교재에는 다음과 같은 예시를 줄 수 있다.

- o 신문이란 무엇인가?
- o 신문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가?
- o 신문은 어떻게 만들어 지는가?
- o 신문을 만드는 사람들(현장실습을 하는 요령과 주요 신문사의 견학프로그램과 담당부서 연락처 제공)
- o 뉴스의 가치를 판단하는 기준(실제 신문을 가지고 수업하기)
- o 기사를 쓰는 방법(학생들에게 학교생활을 중심으로 주제어를 제시하고 기사 쓰는 실습을 수행)
- o 토론하기 : 신문이 가지고 있는 장점과 학교신문을 만들었을 때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서로 의견제시하기

‘신문활용교육’은 교사의 역량과 재량이 가장 많이 요구되는 교과목으로 교사에 대한 교육을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확대할 필요가 있다. 또한 ‘신문활용교육’은 신문만들기와 연계하여 수업을 진행하며, ‘신문만들기’ 교재는 전문적인 신문제작을 위해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된 학습지도서를 제작할 필요가 있다.

- o 신문 지면 구성
- o 신문 기사 작성법
- o 사진촬영, 그래픽, 도표활용법
- o PC를 활용한 신문편집예시
- o 디지털사진 편집 및 그래픽, 도표 활용 프로그램 예시
- o 신문실습을 지원할 수 있는 전국 및 지역종합일간 및 주간신문, 전문일간 및 주간신문의 연락처 및 담당자(신문협회와 공동으로 협력)

신문활용교육과 신문만들기는 읽기교육과 쓰기교육이 병행되는 수업으로

교육기관과 신문협회, 신문사가 공동으로 협력할 수 있는 교육방안과 학습지도서, 교육교재가 개발되어야 한다. 특히 학교교육을 위한 보조 학습도구로 신문을 정기적으로 공급하고, 현장학습을 용이하게 만들기 위한 협력관계 구축이 함께 수행되어야 교재의 활용도가 높을 수 있다.

라. 소 결

학교교육으로서의 NIE를 위한 교과목으로는 크게 신문을 포함한 미디어 전반에 대한 이해를 담은 ‘미디어의 이해’와 신문에 대한 비판적인 수용을 위한 ‘신문기사읽기’, 신문을 수업의 보조교재로 활용하여 학습하기 위한 ‘신문 활용 교육’, 신문제작을 위한 ‘신문만들기’로 나눌 수 있다. NIE와 미디어교육을 일반교과목을 수업보조 수단으로 활용하는 ‘신문 활용 교육’과 ‘신문만들기’는 단독과목이 아니라 일반교과목을 보완해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검정교과서가 필요하지 않다. 오히려 다양한 참고자료가 많다면 교사들이 수업준비를 하는데 도움을 받을 수 있다. 특히 신문만들기는 신문사를 비롯하여 다양한 기관에서 발간하여 학교에 지원하는 실습교본(Guide Book)을 적극 활용할 수 있다.

그러나 미디어를 도구가 아닌 수업내용으로 볼 때는, 대중매체를 통해 전달되는 사회현상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 이 경우에는 정치경제나 사회과목에서 수업을 진행할 수도 있지만 별도의 ‘미디어의 이해’ 교과목이 필요하다. 이 교과목은 신문을 비롯하여 광고, 라디오, 모바일, 사진, 영화, 인터넷, 텔레비전 등 다양한 미디어를 모두 포함하는 ‘미디어의 이해’과목으로 가르칠 수 있으며, 세부적인 교육내용의 하나로 ‘신문비평’ 나아가 ‘미디어비평’을 포함시키는 것이 합리적이다. 이러한 ‘미디어의 이해’ 교과목을 위한 교재는 검정교과서로 제작할 필요가 있으며, 최소한 중학교와 고등학교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전문가가 참여하여 집필해야 한다.

학교교육을 위해 위의 교과목에 맞는 교재를 개발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과제를 해결해야 한다.

첫째, NIE와 미디어활용 교육에서 사용될 교재는 누가 집필하고 제작할 것인지에 대해서 교육과학기술부와 유관기관간의 상호협력이 필요하다. 제한된 연구 인력을 고려하여 교육학자, 언론학자등이 참여하는 전문가 네트워크를 구성하여 이들이 교재를 개발할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

둘째, NIE교재와 미디어활용 교육을 위한 교재 검증은 일반 교과서와 마

찬가지로 교과서 검정을 위한 기준이 마련되어야 한다. 특히 교과서 검증이 필요한 ‘미디어의 이해’ 교과목 개발을 위해서는 교육과학기술부가 주도적으로 담당해야 한다. 적극적으로 참여할 필요가 있다.

셋째, NIE와 미디어교육을 위한 교육설비는 학교교육의 경우 교육과학기술부가 학교별로 필요한 설비와 기자재, 시설을 보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특히 고가의 방송장비와 전산장비 마련을 위해서는 방송통신위원회와 문화체육관광체육부, 한국언론진흥재단 등의 지원을 받을 필요가 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지원기관의 일방적인 선정이 아니라 교육현장의 수용에 맞도록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수요를 파악하여 조정할 필요가 있다.

V. 연구결과 및 제언

1. 연구결과요약

가. NIE의 목적과 유형

신문을 활용하여 사회현상을 설명하고, 학교교육의 부족한 현장감을 더해 주는 교육이 NIE이다. 오랫동안 NIE는 학교교육에서 필요한 보조교재를 활용한 교육으로 인식되었다. 그러나 ‘미디어의 이해’처럼 NIE 혹은 미디어교육이 수단이 아니라 교과목의 하나가 될 필요가 있다. 우리 사회가 점점 더 디지털미디어의 영향을 많이 받을수록 기존의 기술교과목이나 사회교과목에서 다루지 못했던 미디어기술을 통해 매개되는 정보와 사회현상을 학생들이 올바르게 인지하고 영향을 받아서, 자신의 가치관과 지식으로 발전시킬 수 있도록 교육할 필요가 있다.

미디어 교육의 목적은 ‘미디어 활용 능력’의 배양이다. 이러한 능력은 다음과 같은 중요성이 있다. 첫째로 미디어가 전달하는 정보를 취사선택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를 필요가 있다. 둘째로 미디어의 주장을 이해하고, 이를 뚜렷한 가치관으로 판단할 수 있는 비평능력이 필요하다. 셋째로 정보생산과 전달의 전략적 구조를 이해함으로써, 정보의 행간을 읽어낼 수 있는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이러한 미디어교육 가운데 NIE는 신문을 활용하여 교육적 효과를 높이기 위한 일련의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둘째로 학교에서 유용한 보조교재와 교수 방법을 제공하는 수단이 된다. 셋째로 신문을 친숙하게 하고 학습에 활용하여 교육적 효과를 높이는 프로그램이다. 넷째로 매체에 대한 균형 잡힌 비판의식, 사고의 자율성을 고무하는 미디어 교육이다. 다섯째로 학습목표 달성 및 학습의 효과를 높이기 위한 자료 활용의 방법이다. 여섯째로 신문사와 교사가 연계한 신문의 교육적 활용 프로그램이다. 일곱 번째로 ‘신문을 학교 수업의 자료로 이용하기 위한 수단이며, 동시에 미래의 신문 독자를 키우는 수단으로 이해하는 것이다.

그러나 디지털 환경의 등장과 함께 NIE도 이제는 신문과 방송, 인터넷과

모바일 등 미디어 전반에 걸친 이해와 활용능력으로 확대될 필요가 있다. NIE라는 용어가 처음 사용될 당시는 종이신문을 활용한 교육을 의미했다. 그러나 지금은 종이신문을 활용한 교육보다는 인터넷과 영상을 이용한 교육으로 확대되고 있다. 나아가 비판적이고 창의적인 수학적 능력 증대를 목적으로 했던 초창기 NIE가 지금은 방송영상물 제작과 비평에 이르기까지 미디어를 활용할 수 있는 능력으로 확대되고 있다. 그래서 종이신문을 수업 보조교재로 사용하는 교육뿐만 아니라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신문을 제작하고, 나아가 신문비평을 영상으로 제작하여 학교홈페이지에 동영상으로 제공할 수 있는 능력까지 확대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최근에 청소년들 사이에서 확산되고 있는 모바일을 이용한 정보서비스에 맞춰, 스마트폰의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하는 영역에 까지 교육이 확대될 수 있다.

NIE에 대한 교육은 이론적 영역에서 정보를 매개하는 교육과 실용적 영역에서 정보를 활용하는 교육으로 나눌 수 있다. 이 두 영역은 다시 교육목적에 따라서 미디어비평, 미디어의 이해, 미디어활용, 미디어제작 등 네 가지의 영역으로 나눌 수 있다.

미디어비평은 신문을 비롯한 다양한 미디어가 전달하는 정보와 내용을 학생 스스로가 비판적이고 창의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것이다. 이에 비해 미디어의 이해는 신문을 비롯한 미디어의 성격에 대해 이해하고, 미디어의 취재방식, 일상, 저널리즘의 생산방식에 대해 가르친다. 또한 무엇인지, 신문의 기능은 무엇이며, 어떠한 형태가 있는지에 대해 이해한다.

실용적인 영역에서는 신문을 활용하여 신문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신문읽기와 신문만들기를 연계하여 구체적으로 신문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를 실용적으로 배우는 단계이다. 적극적인 의미에서 신문 활용은 신문기사에 대한 접근방법과 활용법 배우기이다. 여기서는 신문기사가 일상생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유용성 교육이라고 할 수 있다.

나. 우리나라의 NIE 현황

우리나라 NIE는 엄밀한 의미에서 이미 1930년대 동아일보와 조선일보가 어린이를 대상으로 지면을 신설하면서 시작되었으며, 1950년대부터는 어린이신문이 발행되었다. 현재도 소년조선일보, 소년한국일보, 어린이동아 등 3개가 발간되고 있다. 그러나 본격적인 의미에서 NIE가 시작된 것은 비교적

최근의 일이다. 1985년 한국신문협회는 신문협회보를 통해 NIE라는 용어를 처음 사용했으며, 이후 1995년 중앙일보에서 처음으로 NIE 지면 만들었다. 현재는 대다수의 전국종합일간신문부터 지역종합일간신문, 지역종합주간신문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신문사가 NIE지면을 발행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NIE교재개발은 교육기관보다는 주로 미디어와 관련된 유관기관을 중심으로 이루어진다. 가장 적극적으로 NIE교재를 개발하는 기관은 한국신문협회와 한국언론진흥재단이다. 한국신문협회는 정기적으로 NIE교재를 개발하여 교사용과 학생용을 각 급 학교에 보급하고 있으며, 정기적으로 해외의 우수한 NIE사례를 연구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신문협회의 경우 우리나라 일간신문의 이해관계를 대변하기 때문에 교육목적보다는 미래의 독자확보를 위한 경제적 투자에 가깝다. 특히 NIE교재도 신문을 구입해서 활용하도록 만들고, 신문내용을 이해하고 수용하도록 지나치게 신문기업의 입장을 대변하고 있다. 반면 문화체육관광부의 산하기관인 한국언론진흥재단은 신문 산업 진흥과 신문읽기, 쓰기문화의 보급을 목적으로 2000년대 초부터 NIE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1차적으로 2003년에 초중고생을 위한 교재를 개발하였으며, 이후 이 교재를 이용하여 수업을 진행하는 교사들을 위한 연수와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한국언론진흥재단이 출간한 교재는 고등학교용으로 2010년에 발간되었고, 앞으로 초등학교용, 중학교용 교재가 지속적으로 발간될 예정이다.

NIE를 위한 교재는 주로 초등교육을 위한 교재를 중심으로 제작되었으며, 종합적인 NIE활용교육 교재보다는 논술을 위한 보조교재에 머무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선학교에서 NIE를 실시하는 교사들을 중심으로 바람직한 NIE교재 개발을 위한 연구가 지속되고 있다.

한국신문협회가 2000년 이후 발간된 NIE교재를 조사한 결과, 유아를 위한 교재는 8종, 초등학생을 위한 교재는 16종, 중고생을 위한 교재는 14종이었으며, 기타 NIE를 위한 참고교재는 20종이었다. 이 가운데 일부 교재는 지역별로 검정교재로 지정되기도 했지만 교과용도서를 출판하는 발행사에서 직접 교재로 발간한 책자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 전문가들이 제안하는 NIE에 대한 개선 방안

현장에서 활동하는 NIE전문가 인터뷰 결과 다음과 같은 NIE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이 제시되었다.

첫째, 학교교육으로서 NIE가 가장 먼저 집중돼야 할 분야는 미디어 이해와 비평 부분이다. NIE의 다른 분야인 신문 활용 교육이나 신문제작측면에서도 미디어의 하나인 신문을 교재로 사용하는 만큼 교재의 특성을 제대로 파악하고 바로 보는 것을 가르치는 것이 무엇보다 우선되어야 한다.

둘째, NIE에 대한 교육목표와 방향성이 부재하다. NIE에 대한 관심은 많지만 효율적인 지원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NIE라고는 하나 학교 교과과정에서 시행되는 수준은 교과와 관련된 신문 기사를 제공하는 정도에 그치는 경우도 있다. 논술이나 글쓰기·재량활동 등으로 NIE가 변질된 경우도 있었다.

셋째, NIE교재는 대다수가 일관된 체계 없이 특정 주제 활용 사례나 일반적인 워크북 형태로 구성돼 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실질적이고 체계적이며 지속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교재개발과 NIE전문가로서의 교사교육이 필요하다.

넷째, NIE수업에 사용될 교재를 검정교과서를 제작한다면 미디어 이해와 비평, NIE활용 교재가 필요하고, 현장에서 online과 offline에서 신문을 제작할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NIE의 일환으로 실시되는 신문제작교육은 많은 시간과 비용, 전문성이 필요하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학교교육에서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 신문제작교육이 원활히 이뤄지기 위해서는 신문사, 교육당국, 기타 지원기관 사이의 유기적인 협조체제가 이뤄져야 한다. 신문제작교육의 경우 교육과 제작으로 양분화 돼 이뤄지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다. 이런 관점에서 신문사와 교육당국을 연결할 수 있는 지원기관이 어린이/청소년 신문제작을 위한 체계적인 신문제작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해야한다. 교육당국은 신문제작에 학교와 학생들의 참여를 적극 유도하고 학교에서 지역으로 신문제작이 확산될 수 있도록 학교 내에서의 교지 제작 등을 적극 지원하며 그를 위한 충분한 예산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

여섯째, 한국의 NIE에서 'N'이 초점인지, 'E'가 초점인지 명확하지 않다. 학교교육으로서의 NIE는 인성교육 중심이기 때문에 'E'중심이 맞다. 그러나 아직까지 이러한 중심과제에 대한 인식이 제대로 정착되어 있지 못하다.

일곱째, NIE의 주체는 '학교-신문사-정부'이다. 학교는 학생들에게 직접적으로 NIE를 활용한 교육을 하는 기관이고, 신문사는 미래의 독자를 확보하기 위해 투자해야할 업계의 당사자이고, 정부는 신문 산업 진흥과 학교교육을 모두 진흥하고 육성해야한다.

라. 해외의 NIE 사례

NIE운동의 발상지인 미국은 주로 신문사가 중심이 되어 NIE를 실시한다. 미국은 현재 전국 1,500개 신문사 가운데 700개사가 NIE를 추진하고 있으며 초·중·고등학교를 합쳐 67,000개의 학교가 NIE 수업을 실시하고 있다. 미국신문협회(NAA)는 교사를 대상으로 하는 전국 규모의 NIE연수회를 개최하고 있으며, 신문사들은 협회가 제공하는 NIE 매뉴얼을 기초로 독자적으로 NIE용 교재를 제작해 각 급 학교에 배포하고 있다. NIE를 실시하고 있는 700개사에는 적어도 1~2명, 주요 신문사의 경우는 10명 이상의 NIE 코디네이터가 있다. 코디네이터는 전직 교사나 고등학교 교사 자격을 갖고 있으며 정기적으로 신문사가 소재한 지역의 초·중·고를 방문한다. 코디네이터는 NIE 담당교사를 지도하기도 하고 때로는 신문을 교재로 아이들을 직접 지도하기도 한다. 미국의 NIE는 신문업계가 주도하기 때문에, 미래신문 독자를 위한 투자의 성격이 강하다. 또한 NIE가 별도의 교과목으로 독립된 것이 아니라 기존 교과목을 보완해주는 신문 활용 교육에 머물고 있다(<http://www.presskorea.or.kr/>).

일본의 경우, 문자이탈현상과 독서기피현상에 제동을 걸고 활자 문화에 익숙해지도록 하기 위해 미국과 유럽 여러 나라에서 시행하고 있는 NIE 운동을 도입했다. 일본신문협회는 1992년 2월 NIE 위원회를 신설하고, 'NIE 기금'을 발족시켜 '신문 제공 사업'과 '연구·PR사업'을 적극적으로 전개하고 있다. NIE 기금 발족에 의해 NIE 실천 학교가 1개 지역 3개교 지정제(과일렛 계획)에서 1개 지역 초·중·고교 1% 지정제로 확대됐다. 일본 NIE의 특징은 △교육계와 신문계가 손잡고 신문계가 일정기간 신문을 학교나 아동·학생의 가정에 부담을 주지 않고 교실에 제공하며 △교육계와 신문계가 각 지역단위의 NIE 조직을 결성해 운동을 추진하는 것이다.

핀란드 NIE 운동은 핀란드신문협회가 1964년에 사회과목(History & Civics)교사 연합회의 첫 번째 프레스 세미나를 개최한 것으로부터 시작되었다. 현실감이 떨어지는 교과서의 대안으로 신문을 활용하자는 취지에서였다. 이 후 NIE가 학교에 널리 보급되자 1970년대 들어 교육부는 커리큘럼에 NIE를 명시했고, 1974년엔 NIE 특별위원회를 설치하기에 이르렀다. 한편 신문협회는 1985년에 각 주별 NIE 추진체를 조직했으며, 지방신문들은 지역내 교사들에게 NIE훈련을 실시했다. 핀란드의 NIE는 학교와 신문업계, 그리고 교육부가 일체감을 가지고 오랜 동안 교육현장에 적용한 결과 사회

적인 운동으로 승화하게 되었다. NIE가 성공할 수 있었던 요인으로는 먼저 신문을 교육재료로서 '재활용'하고 이를 실천하려는 국민들의 실용정신과 읽기를 즐기는 민족성에 있다. 또한 신문들이 공정하고 정확한 보도를 위해 끊임없이 노력한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캐나다는 전국적으로 미디어교육을 실시하고 있지만, 통일된 미디어교육 체계는 없다. 캐나다의 각 주정부는 서로 다른 독특한 교육체계를 가지고 있고, 미디어교육의 목표나 실천 지침 등의 공식적 입장에서도 각기 차이를 보이고 있다. 특히 미디어교육을 장려하고 있는 곳은 브리티시컬럼비아 주, 앨버타 주, 서스캐처원 주, 매니토바 주, 퀘벡 주 등이다. 한편 온타리오 주는 북미 지역에서 유일하게 미디어교육을 정규 교육과정으로 제도화 시켰다. 이러한 제도화 과정은 미디어교육법의 수준이 아니라 온타리오 주교육부의 가이드라인 발표를 통해 의무화된 것이다. 온타리오 주의 미디어교육 과정이 정규 교과과정에 포함되었다. 온타리오주는 국어교과과정의 최소 3분의 1을 미디어교육에 할당해야 한다. 둘째, 7~8학년(12~13세)의 연령층에서는 수업 시간의 10%를 미디어교육에 할애해야 한다. 셋째, 중·고등학교 과정을 마치기 위해 미디어교육을 선택 과목으로 이수하거나 국어 교육과정의 5개 분야 중 하나로 선택할 수 있다.

덴마크의 미디어교육의 특징을 정리하면 학교교육이 중심이 되고 있다. 교육의 목표는 덴마크어 능력향상을 위해 읽기와 쓰기교육에 중심을 두고 있다. 신문을 비롯하여 방송, 인터넷, 모바일 등은 이러한 교육을 수행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될 뿐이며, 학생들이 쉽게 미디어에 접근할 수 있도록 접근성을 보장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덴마크도서관 재단이 교육부와 문화부로부터 위임받아 운영하는 '읽기카페'는 덴마크인의 미디어활용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시민교육 공간으로 활용하고 있다. 성인을 위한 '읽기카페'는 주로 외국인이주민들이 읽기와 쓰기를 할 수 있는 공간이자 신문과 인터넷을 비롯한 미디어를 활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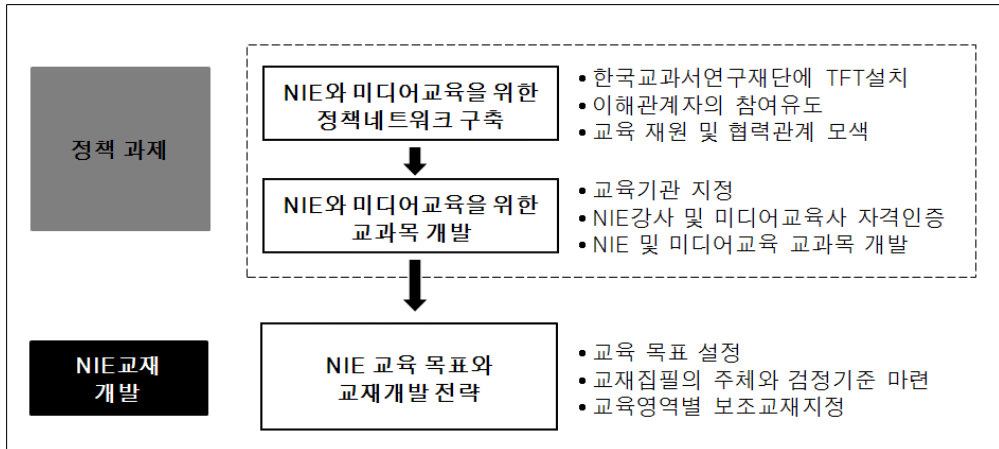
덴마크정부는 2004년부터 덴마크어로 쓰인 모든 출판물을 대량으로 구매하여 전국에 있는 도서관과 학교에 보급하여 도태위기에 있는 자국 언어를 전승하고 발전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그래서 미디어교육의 근간을 언어교육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2. 정책적 제언

이상의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효율적인 NIE정책 수립을 위한 시사점을 찾아보면 다음과 같다.

〈그림 V-1〉

NIE정책과제와 NIE교재개발



첫째, NIE를 비롯하여 미디어교육과 관련하여 다양한 이해관계를 가진 집단인 정책당국(교육과학기술부와 문화체육관광부), 연구 및 지원기관(한국교과서연구재단과 한국언론진흥재단, 한국언론학회와 한국미디어교육학회, 미디어교육학회), 행위자집단(교사 및 신문사), 이익집단(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학부모단체, 한국신문협회 등), 경제집단(교재 출판사, 신문사 논술교재 개발부서, 논술학원 등)등의 이해관계를 조절하고, NIE와 미디어교육을 학교교육의 일부로 정착시키기 위한 정책TFT가 필요하다. 이러한 정책TFT는 학교교육의 교과서연구와 개발을 담당하는 교육과학기술부와 한국교과서연구재단에 설치하고, 각 이해관계자들을 위원으로 참가시킬 수 있을 것이다. 이 정책TFT에서는 향후 NIE와 미디어교육을 ‘제7차 교육과정’ 계획에 맞춰서 교육목표와 교육방법, 교재개발에 대한 전략과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연구시킬 수 있다.

둘째, 학교교육에서 NIE와 미디어교육을 위해 다음의 구체적인 현안들에 대한 정책이 수립되어야 한다.

- NIE 교재 기술과 출판의 주체 선정
- NIE를 담당할 교사의 교육의 방법과 교육기관 선정

- NIE와 미디어교육을 담당할 NIE강사와 미디어교육사 인증 기준 마련
 - 미디어교육사를 일선 학교에 배치하기 위한 계획
- 등이다.

셋째, 학교교육으로서 NIE의 교과목은 교육목적에 따라 크게 네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이는 신문을 포함한 미디어 전반에 대한 이해를 담은 ‘미디어의 이해’와 신문에 대한 비판적인 수용을 위한 ‘신문기사읽기’, 신문을 수업의 보조교재로 활용하여 학습하기 위한 ‘신문 활용 교육’, 신문제작을 위한 ‘신문만들기’등이다. 그러나 NIE와 미디어교육을 일반교과목을 수업보조수단으로 활용하는 ‘신문 활용 교육’과 ‘신문만들기’는 단독과목이 아니라 일반교과목을 보완해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검정교과서가 필요하지 않다. 오히려 다양한 참고자료가 많다면 교사들이 수업준비를 하는데 도움을 받을 수 있다. 특히 신문만들기는 신문사를 비롯하여 다양한 기관에서 발간하여 학교에 지원하는 실습교본을 적극 활용할 수 있다. 교재가 필요 없는 실용과목을 제외하고 직접적인 ‘미디어’에 대한 이해를 필요로 하는 ‘미디어이해’과목의 신설과 검정교과서 제작에 대한 계획이 수립되어야 한다.

이러한 검정교과서 개발을 위해서는 다음의 과제가 선결되어야 한다.

첫째, NIE와 미디어활용 교육에서 사용될 교재는 누가 집필하고 제작할 것인지에 대해서 교육과학기술부와 유관기관간의 상호협력이 필요하다. 제한된 연구 인력을 고려하여 교육학자, 언론학자등이 참여하는 전문가 네트워크를 구성하여 이들이 교재를 개발할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

둘째, NIE교재와 미디어활용 교육을 위한 교재 검증은 일반 교과서와 마찬가지로 교과서 검정을 위한 기준이 마련되어야 한다. 특히 교과서 검증이 필요한 ‘미디어의 이해’ 교과목 개발을 위해서는 교육과학기술부가 주도적으로 담당해야 한다. 적극적으로 참여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 매우 정파적인 신문사의 보도관행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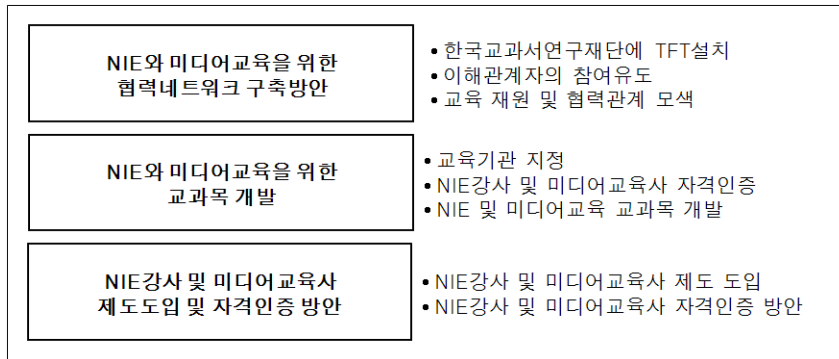
셋째, NIE와 미디어교육을 위한 교육설비는 학교교육의 경우 교육과학기술부가 학교별로 필요한 설비와 기자재, 시설을 보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특히 고가의 방송장비와 전산장비 마련을 위해서는 방송통신위원회와 문화체육관광체육부, 한국언론진흥재단 등의 지원을 받을 필요가 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지원기관의 일방적인 선정이 아니라 교육현장의 수용에 맞도록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수요를 파악하여 조정할 필요가 있다.

3. 후속 연구 제언

본 연구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후속연구 과제를 제안한다.

〈그림 V-2〉

후속 연구 과제



첫째, NIE 전문 인력 양성과 교재 개발을 위해서 교육정책당국과 교육관련 유관기관을 한축으로, 그리고 문화정책당국과 언론관련 유관기관을 다른 한축으로 하는 협력관계 구축과 한국교과서연구재단에 설치해야할 미디어교육정책TFF의 정책 거버넌스 모형을 연구할 필요가 있다. 학교교육은 사회적 합의를 중요시하는 특징이 있으며, 특히 한 사회의 가치를 전승하고 새로운 발전 동력을 찾기 위한 창의적인 과정에 포함된다. 이러한 학교교육을 특성을 고려하여 교육정책과 문화정책의 상호 조율과 민관이 자율적으로 협력네트워크를 구축할 수 있도록 미디어 교육을 위한 협력 거버넌스 모형이 제시될 필요가 있다. 특히 언론기관과 문화정책당국은 오랫동안 미디어의 사회적 영향력 강화와 지속가능한 수용자 확보에 많은 관심을 가져왔고, 현재 이러한 기관이 주도하는 NIE와 미디어교육은 사실상 미래의 소비자 확보를 위한 차원의 지원이 많다. 이러한 경제적 이해관계에 맞서 인성교육과 지성교육을 목표로 하는 학교교육의 입장을 대변하는 교육과학기술부와 한국교과서연구재단의 향후 새로운 교과목으로서의 NIE와 미디어교육에 대한 정책목표와 교육철학, 협력을 위한 전략이 수립될 필요가 있다.

둘째, NIE와 미디어교육 교과목에 대한 연구이다. 본 연구결과에서도 밝혔듯, NIE와 미디어교육은 크게 미디어에 대한 이해, 미디어 비평, 미디어 활용교육, 미디어제작 등 4가지로 나눌 수 있다. 이 가운데 검정교재가 필요한 것은 ‘미디어의 이해’ 과목이다. 미디어활용교육과 미디어제작이 실용

적인 차원에서의 NIE와 미디어교육이라면, ‘미디어의 이해’는 미디어현상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심어줄 수 있고, 미디어를 비판적이면서도 창의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능력을 가르치는 교육이다. 이를 위해서는 ‘미디어의 이해’ 교과목에 수록할 내용과 교육목표 등이 제시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 교과목에는 미디어비평이 포함될 필요가 있다. 현재로서의 한국언론진흥재단이 2010년에 출간한 고등학생을 위한 『미디어와 사회』 교재이지만, 이 교재도 교과서를 전문적으로 연구하고 개발한 기관이 아닌 언론지원기관이 저술과 출간을 주도했기 때문에 미디어비평과 전인교육을 목표로 한 교육철학부분에서 한계가 있다.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NIE와 미디어교육 교재의 내용을 분석해서, 검정교과서에 맞는 교육내용을 정하고, 이에 맞는 교재를 교육당국이 주도하여 출간할 필요가 있다.

셋째, NIE와 미디어교육이 특수한 미디어현상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전문교육과정만큼이나 전문교육자를 양성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현재는 사설기관이나 언론유관기관에서 교육자로서가 아니라 기능인으로서 NIE강사와 미디어교육사 자격을 부여하고 있다. 그러나 NIE교사 혹은 강사와 미디어교육사는 교육자로서의 자질이 필요한 만큼, 향후 학교교육의 일부 혹은 독자적인 교과목을 담당할 미디어교육사의 양성과 자격인증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 마련을 연구할 필요가 있다.

이상의 세 가지 연구과제는 향후 NIE와 미디어교육을 학교교육으로 정착시키기 위해 기초적으로 수행되어야 할 연구이다.

참고문헌

- 강석우 외(2004), 『NIE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 서울 : 커뮤니케이션북스.
- 강성기(1991), 『신문소프트 500%, 신문활용술』. 서울: 도서출판 정보성.
- 공규택(2000), 『신문가지고 놀기』. 서울: 나라말.
- 김강선(1997). 『신문을 활용한 글짓기 학습 프로그램 구안, 적용을 통한 글짓기 능력 신장』. 교총 현장연구논문집 국어교육분과 연구보고서.
- 김기태·강진숙·심영섭·지성우 (2007). 『미디어교육 진흥을 위한 법·제도 연구』. 서울 : 한국언론재단.
- 김기태·권혁남·김양은 (2007). 『NIE프로그램의 내용분석 및 효과검증』. 서울 : 신문발전위원회.
- 김순희(2001). 『웹기반 NIE 교육이 과학탐구력 향상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김영순외(2010). 『고등학교용 미디어와 사회』. 서울: 한국언론진흥재단.
- 김정일(2000). 『신문활용 학습이 읽기 흥미도 향상에 미치는 영향』. 대구대 학교 교육대학원 석사 학위 논문.
- 김양은(2001). 『미디어환경변화에 따른 미디어교육에 관한 연구 : 한국의 미디어교육의 실행모색』. 중앙대학교 신문방송학과 박사학위 논문.
- 김여옥(2009). 『비판적 리터러시 함양을 위한 사회과 학습 방안의 탐색』.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 사회과교육 석사 학위 논문.
- 김훈순(1994). 『신문의 교육적 활용에 관한 연구』. 서울 : 한국언론연구원.
- 동아일보사(1985). 『‘동아일보사』. 서울: 동아일보사.
- 마현정(2009), 『NIE를 활용한 환경교육이 초등학생의 환경친화적 태도에 미치는 영향』. 부산대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박성희·김세은·전경란(2010), 『어린이 신문의 활성화 방안 연구』. 서울: 한국언론진흥재단.
- 변경희(1999), 『NIE를 적용한 지구과학 교수-학습 프로그램 개발』. 부산대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성종수(1980), 신문활용의 국어교육적 지도방안. 『교육연구 논문집(경남 교육위원회)』 제15호.
- 신동화·이제선(2003). 고등학교 과학 ‘환경’단원 수업에서의 NIE의 효과,

- 『한국과학교육학회지』 제23권6호.
- 윤현희(2008). 『읽기 능력과 흥미도 향상을 위한 어린이 영자신문 활용 초등영어 프로그램 개발』.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 학위 논문.
- 이상헌 (2009). NIE관련 지면과 프로그램 현황. 『신문과 방송』 6월호, 19-24.
- 이수희(2004). 『NIE를 통한 초등미술교육 지도방안 연구』. 춘천교육대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이영수(2006). 호주의 미디어교육에 대한 연구. 『언론연구』 제11집, 93-117.
- 이인표(1997). 신문활용을 통한 경제교육 : 최근주요경제현안에 대한 신문보도의 평가를 중심으로. 『사회와 교육』 제24호, 137-154.
- 이정균(1999). 『신문으로 공부하자』. 서울: 도서출판 민.
- 이정춘(2004). 『미디어교육론: 미디어 시대에 살다』. 서울: 집문당.
- 이정화(2004). 『신문을 활용한 과학과 수업이 중학생들의 과학학습태도에 미치는 효과』. 전남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이태중(2006). 『NIE 원론 1, 2』. 서울: 통키.
- 정문성·구정화(2005). 『학생 NIE 알아보기』. 한국신문협회.
- 정문성·구정화·박미영(2005). 『학교 NIE 알아보기』. 한국신문협회.
- 정수정(2009). 『NIE를 활용한 지도방안: 중학교 통계영역을 중심으로』. 서강대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정지영(2002). 『신문자료 활용이 초등학교 슬기로운 생활교과학습에 미치는 효과』. 숙명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조선일보 80년사 편찬실 (2000). 『조선일보 80년사』. 서울: 조선일보사.
- 조성백(2010). 『신문 사설을 활용한 Pro-con 논쟁 수업 프로그램 개발』. 한국교원대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조혜강(2005). 『소집단 활동을 통한 NIE 프로그램이 발표력과 쓰기능력에 미치는 효과연구』. 강릉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최민재(2006). 『2006 한국의 NIE』. 서울: 한국언론재단.
- 최민재(2006). 『한국의 미디어교육 현황』. 서울: 커뮤니케이션북스.
- 최상희(2004). 『NIE 이해와 활용』. 서울: 커뮤니케이션북스.
- 최창섭(2000). 『한국형 청소년 미디어교육 추진모델 개발 연구』 청소년정책 전문연구7, 한국청소년개발원.
- 허단(1997). 『신문이 쏙쏙, 신문이 쉬워졌어요』. 서울: 어진소리 민.

허병두(1997), 『신문활용교육이란 무엇인가: NIE의 이해와 실제』. 서울: 중앙M&B.

한국NIE위원회(2010). 『신문활용 교육의 이해와 실천』. 서울: 한국신문협회.

한국일보 30년사 편찬위원회 (1984). 『한국일보 30년사』. 서울: 한국일보사.

Andersen, Hanne Leth (2007). *Skriftlighed i kommunikation og formidling – og som redskab til fordybelse og indsigt. Konference om det skriftlige arbejde(9. februar 2007)*. Roskilde.

Baacke, D. (1996). Medienkompetenz als Netzwerk. *Medien Praktisch. Zeitschrift für Medienpädagogik*. 20 (2), 4–10.

Baacke, D. (1999). Medienkompetenz als zentrales Operationsfeld von Projekten. In : Baacke, D. (Hg.) *Handbuch Medien : Medienkompetenz* (pp. 31–35) Bonn.

Bonfadelli, H. (2001). *Einführung in die Medienwirkungsforschung. Band I: Grundlagen und theoretische Perspektiven; Band II: Anwendungen in Politik, Wirtschaft und Kultur*. Konstanz : UVK Verlag.

Bundsgaard, Jeppe (2006). *Søgning er læsning : Videregående læsning og nye læsekompetencer – nye opgaver for dansklærere og skolebibliotekarer*. Odense M.

Chomsky, N. (1957/1975). *Syntactic Structures*. Berlin : Verlag Walter de Gruyter.

Dansk Biblioteksforskning (2010a). *Brug biblioteket : Vi kan støtte med penge og rådgivning ...som et centrum for integration og medborgerskab*. København.

Dansk Biblioteksforskning (2010b). *Tema – Medier, barndom og viden: Børnebiblioteksfunktioner i forvandling*. København.

Elf, Nikolaj Frydensbjerg (2006). *Syn for sagn : Forskningsresultater fra et mediepädagogisk eksperiment med faglighedsrapporterne anvendt på H.C. Andersen i dansk på hhx, UVM-konference(1. november 2006)*. Vejle.

Elf, Nikolaj Frydensbjerg (2007). *Danskfagets mediepädagogik – historie, teori og ny praksis (Dansklærerforeningen/Gs årsmøde, stx og hf)*. Horsens.

Glott, P. (2001). *Von Analog nach Digital. Unsere Gesellschaft auf dem Weg zur digitalen Kultur*. Frauenfeld : Huber.

Habermas, J. (1981). *Theorie des kommunikativen Handelns. Band 2: Zur Kritik der funktionalistischen Vernunft*. Frankfurt/M.: Suhrkamp.

- Haefner, K. (1990). *Neue Technologien und ihre Auswirkungen auf das Bildungs- und Beschäftigungssystem*. In : Bundeszentrale fuer politische Bildung (Hg.), *Medien, Sozialisation und Unterricht* (pp. 11–23), Bonn.
- Hoffmann–Riem, W. & Sarcinelli, U. (1999) Politische Wirkungen der Medien. In : Wilke, J. (Hg.). *Mediengeschichte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pp. 720–748) Koeln : Boehlau Verlag.
- Kracuaer, S. (1939/2004). *Werke in neun Bänden Band 7 : Romane und Erzählungen*. Frankfurt a.M. : Suhrkamp.
- Luhmann, N. (1997). *Die Gesellschaft der Gesellschaft*. Frankfurt a.M. : Suhrkamp.
- Massing, P. (2001). Buergerleitbilder und Medienkompetenz. In : Wiesseno, G.(Hg.). *Politikunterricht im Informationszeitalter* (pp. 39–50), Bad Schwalbach : Wochenschauverlag.
- Mohr, I., Breunig, C., Feierabend, S. Nolting, C. & Oehmichen, E. (Hrsg.) (2003). *Medienkompetenz bei ARD und ZDF*. München: kopaed.
- Moser, H.. (1999). *Einfuehrung in die Medienpaedagogik. Aufwachsen im Medienzeitalter*. Opladen : Westdeutscher Verlag.
- Sarcinelli, U. (2000) Medienkompetenz in der politischen Bildung. *Aus Politik und Zeitgeschichte* B 13, 29–38.
- Schell, F., Stolzenburg, E. & Theunert, H. (Hg.)(1999). *Medienkompetenz: Grundlagen und pädagogisches Handeln*. München: KoPäd.
- Schorb, B. (1997). Medienkompetenz. In : J. Hüther, B. Schorb & C. Brehm–Klotz (Hg.), *Grundbegriffe: Medienpädagogik* (pp. 234~240), München.
- Tulodziecki, G.(1997). *Thesen zum Beitrag der Schule zur Medienpädagogik. In Medienkompetenz im Informationszeitalter. Hrsg. v. Enquete–Kommission "Zukunft der Medien in Wirtschaft und Gesellschaft; Deutschlands Weg in die Informationsgesellschaft"*. Deutscher Bundestag.
- Wiesseno, G. (2001). Medien im Politikunterricht. In : Wiesseno, G.(Hg.), *Politikunterricht im Informationszeitalter* (pp. 21–38), Bad Schwalbach : Wochenschauverlag.
- Wilke, J. (1999). *Mediengeschichte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Koeln : Bohelau Verlag.

부록 : NIE전문가 인터뷰 항목

1. NIE는 크게 NIE활용교육과 미디어이해와 비평, 신문제작교육 등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학교교육으로서 NIE가 집중해야 할 분야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2. 국내 NIE는 주로 NIE활용교육중심으로 진행됩니다. 우리나라에서 미디어이해와 비평은 NIE활용교육을 통해 부가적으로 교육된다는 비판이 있습니다. NIE를 하는 주체는 주로 일선 교사인데, 최근에는 신문사에서 직접 교재를 개발하여 지원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NIE활용교육이 현실적으로 학교교육에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NIE전문가로서 현행 NIE가 학교교육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 2.1. NIE활용을 위해 충분한 교재와 참고자료가 제공되고 있습니까?
 - 2.2. 개선방안은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 2.3. 현재 일간신문의 NIE교재개발은 주로 논술교육 교재개발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일간신문이 제공하는 NIE교재의 검정교육용 교재로서의 '적절성'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2.4. 검정교과서로서 NIE교재가 개발된다면 포함되어야 할 내용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3. NIE에서 신문제작교육은 학교에서 우리가족 신문만들기와 같은 간단한 방식이 대부분이 이고, 전문적인 교육도 극히 예외적인 활동 사례만 있습니다. 과거의 NIE신문제작이 일간신문사의 어린이신문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면, 이제는 학생들이 직접 만드는 어린이&청소년신문으로 전환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활성화는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3.1. 신문제작은 신문사의 적극적인 편집기술 및 제작지원과 교육당국의 예

산지원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신문사와 지원기관의 지원상황은 어떻습니까?

3.2. 신문제작교육이 원활히 이루어지기 위해 신문사, 교육당국, 기타 지원기관이 해야 할 과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4. NIE는 주체는 ‘학교-신문사-정부’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학교는 학생들에게 직접적으로 NIE를 활용한 교육을 하는 기관이고, 신문사는 미래의 독자를 확보하기 위해 투자해야 할 업계의 당사자이고, 정부는 신문 산업 진흥과 학교교육을 모두 진흥하고 육성해야 할 정책주체입니다. 각각의 역할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5. 우리나라 NIE는 결국 신문사의 재정적자보존과 저소득층지원, 지역신문 발전을 위한 지원 사업 등을 통해 신문판매부수를 늘리는데 목적이 더 있다는 비판을 받습니다. 즉 학교교육을 위한 적극적인 교재개발과 교육 공학적인 학습법 개발보다는 신문사의 이익을 우선하는 정책이 중심이라는 비판입니다. 개선방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다른 의견이나 고견이 있으시면 자유롭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랜 시간 고맙습니다. 끝.